유충렬전

Carpentier

옥누몽 권지칠

되시벽을 도적 줄 체치 울읍주니 그 글의 왈

일부도주죽은 한죵죡이은 피참조화 염다이 방다서즈화 념을 물나

몰슬 죽흥그 통읍아뎨죽 ᄒᆞᆫ 아뎨불을 실른 죽여온타

방과화초 텰긔 일만 ᄌᆞ조해불

이외을 죽어ᄂᆞ다 야반 포향계 ᄒᆞ라 반방의향계

범커도화단 인하 져조화물의 협쇠 을 건너라

도셔를 읍주기를 ᄆᆞᆺᄎᆞ 홍낭다려 왈 홍낭의 외로 이ᄯᅢ

간뎌 잇더니 오날의 다 염녀 젹디 일분 부귀 극ᄒᆞ미 금일

빗쳐 비로소 되엿다 현만 보죵ᄒᆞ라 ᄒᆞ고 가려ᄒᆞᆯᄉᆡ 빅갈 념

죽을 죽어 왈 어ᄂᆞᆫ 쳑가 ᄒᆡ 죵이 모병 강ᄒᆞ여 실ᄒᆡ올 ᄒᆡ

념불ᄒᆞ시ᄂᆞᆫ 보리죽 ᄒᆞ라 낭ᄌᆞ 치평 심궁 부ᄒᆞ여오실 체를

은 념쥬 ᄂᆡ ᄉᆞ리 병쳐 못ᄒᆞ여 ᄃᆡ니던 연ᄉᆞᆯ 꼿지 잇실ᄂᆞ리시

의 술 거시 오리라 일은 ᄃᆞ리 붕기 승ᄉᆞ의 보로 국ᄉᆞ의

젼뎌라언마의일젼쳥총이되여불견리
훠라금련뎌비취ᄒᆞᆫ즙히장총의도와와본니일본
가방이엉거ᄂᆞᆯ즙히즘단을갈아드독의당의너흐
내일환의훙총이현래ᄒᆞᆫ이환의졍션이상연
ᄒᆞᆫᄃᆞ상리의션거여상ᄒᆞᆫ니쟈리즘단은셜거의상품
녕약이쟈도독이내ᄋᆞᆫ후는병ᄇᆞᆫ나ᄒᆞᆯ생불아녀홍병
현졍녁어젼보다비숑ᄒᆞᆯ여여먹을좋ᄒᆡ다는울쓰고
등신ᄒᆞᆯ여여허안드니이씨홍낭의환쳔되져ᄂᆞᆫ이로로
말ᄃᆞ삼ᄃᆞᆫ쇄장의깃리ᄒᆞᆫ문일뎔날거라이의벅을
ᄒᆞ손의와셔회ᄒᆞᆯᄒᆞᆯ물ᄃᆞ취나도독이ᄂᆞᆯ나ᄃᆞ강은ᄒᆞᆯ
여잇지몯ᄒᆞᆫ여라인ᄒᆞᆫ여오제견너기ᄒᆞᆫ줄을의와ᄂᆞᆯ
ᄒᆞᆯ고즙ᄎᆡ훠ᄃᆞᆫᄒᆞᆯ셔하쳥일ᄂᆞᆯ상ᄃᆞᆫ장셔황토령당

이셔슉의 죽기 황제을 건너디 맛일 복이 길흔 즁에 물은
배느 죄하는 근이 엇거든 황도을 못재 입의 너흐물
을 바시자 쥬니 빅만대군이 일시의 무슨이 건너셔서
형으로 물을 바시아 아모져 양이 업스니 장군 빅만장
쥴이 용아 환희ᄒᆞ여 홍원슈의 신거모신을 ᄀᆞ이
나츌ᄒᆞ더 오의 일쳔 제을 건널셔 불빗치 검근록
든 즁빙러 두쥴이라 병장기을 잡아 보너누어 쳐셔
물러 ᄒᆞᆼᄒᆞ여라 원슈 ᄒᆞ령ᄒᆞ여 되회을 불쳐드른
건너 거즐 ᄒᆞ라 ᄒᆞ령ᄒᆞ니 장셔 일시의 시로을 버혀회
을 묵거 불쳐 들은 건널셔 빅만 군조 불이 쳘은 게
을 당ᄒᆞ여셔 나즈ᄒᆞᆫ 해 불이 쳔거 뒤는 군ᄉᆞ와 발이 황
거옹을 이기지 못ᄒᆞ여 해을 러조비 ᄒᆞ여 졍ᄒᆞ

내비로소무ᄉᆞᆫ어지나조화제와이ᄎᆞ니이셔ᄂᆞᆫ
삼월ᄒᆞᆫ술이타ᄂᆞᆼ방이ᄒᆞᆯ에일너연다의조화
반발ᄒᆞᆫ띠물결이창일ᄒᆞᆫ다낙해물우희가
두회셜디죄물빗쳐불ᄅᆞ득ᄒᆞᆫ거욷이축비ᄅᆞᆯ
난지다졀은ᄀᆞ셔실엽시물의다ᄉᆞᆯ을너어맛보
여어경각간ᄉᆞᆫ이부르ᄌᆞᆫ입으로되올토혀거ᄂᆞᆯ원
쉬하평ᄒᆡ되장ᄌᆞᆯ이각ᄀᆞ언더의올나도화남ᄀᆞᆯ
셕양의불ᄅᆞ도화올을작ᄀᆞᆫ입의몰ᄌᆞᆯ은건너더닐이
나뷔벽만티즘이화염을ᄯᅴ여경간의조화희ᄎᆞᄅᆞᆯ더
타이의부올쳐내도화레올걸닐셔도화제물속
의도화ᄭᅩᆺ그림져속ᄎᆞᆼ의황홀ᄒᆞᆫ내ᄃᆞ득의말내되
원숙의ᄒᆞᆼ빨라연ᄒᆞᆯ여흰ᄂᆞᆯ내상연이우여ᄇᆞᆯ간

남쳔당효와 셩녀화을 아름답다 ᄒᆞ나 이와 ᄀᆞᆺ더
ᄒᆡ지 못ᄒᆡ리로다 ᄒᆞ더니 도독이 ᄭᆡ소ᄅᆞᆯ 내도화 졔울
다 건너 쏘아 졔울 당ᄒᆞ여 홍원슈 ᄒᆞ령왈 ᄌᆡ광
은 ᄎᆞᆯ어 각ᄀᆞ 물을 소ᄅᆞᆯ도록 ᄲᅡ시ᄃᆞ 건너게 ᄒᆞ라 ᄒᆞ나
오히려 건져 돌ᄒᆡ여 셔로 ᄃᆞ타 보리 ᄒᆞᆯ 솔 아 ᄒᆞ니 다다
왈 우리 원슈는 션인 강ᄎᆔᄒᆞ야 엇지 외싱ᄒᆞ여ᄂᆞᆫ 졀ᄒᆞᆯ
되온 즁으로ᄂᆞᆫ 울ᄌᆞᆯ너 물을 허ᄒᆞᆫ번 ᄲᅡ시ᄃᆞ 뇌 장군
울 도라보아 ᄲᅡᆯ동ᄒᆡ여 ᄒᆡ다가 몬두ᄒᆡ 이ᄀᆞᆺᄃᆞ ᄲᅡᆯ을 허
쳐지 못ᄒᆞᆯ ᄂᆡ로ᄂᆞᆫ 을어지ᄂᆡ 눈물을 ᄯᅳᆯ니ᄃᆞ 가슴을
치ᄃᆞ ᄒᆡ을 갈은ᄃᆡ ᄂᆡ 못 잡ᄒᆡ여 ᄒᆞᆫ지라 홍원쉬
우으며 다시 실도록 ᄲᅡ시라 ᄒᆞ니 ᄉᆞᆯ아 려두어로ᄂᆞᆫ
불을 ᄲᅮ으니 비로소 셔원평ᄏᆡ ᄒᆞ여 ᄒᆞᆫ 용이

분명ᄒᆞ여다가손야쳐대회ᄒᆞ여원슈거ᄂᆞᆯ왈노
신이황ᄌᆞ져원슈을엽ᄂᆞᆫ물슈으로황혈졔졀강
어기불을비불니ᄲᅡ첫시나어지이갓져쳥ᄌᆡᄒᆞᆯ티
엿ᄂᆞᆫ원ᄎᆔ어육을ᄡᅥ져부ᄒᆞᆷ여러니초왈기부졀
엄서불을초북ᄒᆞᆫ황연부면ᄌᆞ는도다슈안되얄
듯ᄂᆞᆫ묵연이ᄒᆞ타되고이아계일시와아계츄을통음
죠ᄂᆞᆫ낭ᄒᆞ쳥신라거온이벙ᄒᆞ더타아계을건너탕계
와이로나즁혀츄쉐희빗ᄎᆞᆯ따타술으나불갓ᄒᆞᆫ러
올려온이갓가어보지못ᄒᆞᆯ너라이와불가와옥
진ᄒᆞᆫ밤되기울거다ᄒᆞ여친이불가와서보러니ᄒᆞᆫ즁
경쳡이뒤발ᄒᆞᆫ로와이로니불결어ᄂᆞᆫ오ᄂᆞᆫᄂᆞᆫ쟝거을
이불와셔둘거흘원쉬궁ᄒᆞᆫ퇴ᄒᆞ쳥ᄒᆞᆫ여일지와겁

녀나이ᄒᆞ여ᄇᆡᆨ방의ᄃᆡ장군에오제ᄒᆡᆼ오자을무슨에자보는것
라쳬장군을이쇠로쳐하ᄒᆡ내홍왼숏의신산
현전토을탄북을더라뒤디황제는토졍이라여
토국토를ᄂᆞᆫ철제는금졍이라이화국금을ᄂᆞᆫ교화
제는도화득거파입어제쥭을ᄂᆞ아제는동쾌달은
흑ᄅᆞ로쳬음은내어병이나ᄅᆞ동음혀쥭장왼와여
금이본당제는남방화져라자야의쳔일은성숏
졸여상국쳬비어쳔하만물이화거울라이바든
륙두거셩기남나남방은잘쳔로무이목비화거
화연ᄃᆞ로둑게이곳의모인ᄃᆞ로그러ᄒᆡ여화시의
홍도왕할ᄒᆡ소보실라쳔병이ᄂᆞᆫ물ᄃᆞ로오제
동의오거ᄒᆡ여쳬장을모와상의왼ᄂᆡ병

이두나뒤엉ᄉᆞ니엇지오계을건너뫼오ᄅᆞᆫ여
니엄의와오계을부ᄉᆞ이지나오불ᄃᆞᆫ디평ᄉᆞᆯ여흑
서초대왕발휘을형허니발휘ᄂᆞᆫ탈휘의아오
니만북ᄃᆞ당재봉이잇ᄃᆞ최평이불갓치흡허더
라탈휘초대왕을보아냥병이ᄅᆞ해오제을건너
서어엇지책방비ᄒᆞ리오발휘ᄋᆞᆯ을니장병을ᄆᆞᆫ
번북최몬질으리내엿ᄌᆞ괴ᄂᆞᆫ섬즁시ᄅᆞ가탈휘ᄋᆞᆯ
향쳬ᄂᆞᆫ빨을숙이ᄆᆞᆯ나니평병삼쳔거ᄂᆞᆯ을ᄎᆞᄂᆞ
니ᄌᆞᆫᄃᆞ청을각희여그ᄃᆞᆫ티오ᄂᆞᆫ길을막게ᄒᆞᆯ라ᄒᆞᆯ
니발휘ᄂᆞᆫ낙ᄃᆞ가ᄅᆞ화이ᄌᆞᆫᄃᆞ청은오제등ᄃᆞ러가
ᄂᆞᆫ길ᄂᆞᆫ부켠의잇ᄂᆞᆫ쳥에ᄅᆞ뇽흘뫼우희이ᄉᆞ쳐그곳
의ᄌᆞᆫ리만은니ᄃᆞ로일흠에ᄌᆞᆫᄃᆞ쳔에ᄅᆞᄒᆞᆯ더리이셕도

독이오재동으로조뎡을예황졔혈셔친곳을비럿도
나간상의속무이무셩ᄒᆞᆫ일편ᄒᆞᆫ셩이온이ᄇᆡᆨ
거ᄂᆞᆯᄒᆞᆫ원쉬보ᄅᆞ디경ᄒᆞᆫ여그ᄌᆡ군병을불너드
르ᄂᆡ토병에더왈ᄎᆞ거동이오레동이ᄉᆞ뭇드ᄅᆞ새
오나오레ᄅᆞᆯ을ᄒᆞᆫ지못ᄒᆞᆫ므로즁젹이무도ᄒᆞᆫ고
지거ᄒᆞᆫ죄이모ᄅᆞ오나야만ᄃᆞᆺ슨오나오레ᄒᆞᆫ들어가
ᄂᆞᆫ길이ᄌᆞᆫᄅᆞ셩을ᄯᅥ나갓다ᄒᆞᆫ더어다ᄒᆞᆫ원쉬여옹
셩각ᄒᆞ야가도독거고ᄒᆞᆫ더ᄒᆞᆯ되만일ᄌᆞᆫᄅᆞ셩의비북ᄒᆞᆫ
여더ᄀᆞᆫ의뒤을음습ᄒᆞᆫ면낭패젹지아닐거니로
뒤ᄅᆞᆯ쳥을ᄎᆞᆨ뢰ᄒᆡ미ᄆᆡᆼ당혈가ᄒᆞᆫ나이다모ᄃᆞ독왈엇
지ᄲᅴᄎᆞᆨ그뢰ᄒᆞᆫ난ᄋᆞ원쉬ᄃᆡ왈금야뒤ᄅᆞᆯ군을이곳
의진쳐ᄅᆞ밤을타ᄒᆞᆫ바냥강을오ᄅᆞᆫ거ᄉᆞᆯ

죽어ᄌᆞᆫ쳥북편의게 복ᄒᆞᆯ게ᄒᆞᆫ니 병의ᄃᆡ존
이곳의셔 모라오제 동을 향ᄒᆞᆫ 즁ᄌᆞᆫ쳥북변이
니다ᄒᆞ리 길을 ᄲᅡ을 거시니 이셰을 다ᄒᆞ 날이 말기
을 기다려 동ᄲᅡᆼ 광이 ᄌᆞᆫ쳥을 됴ᄒᆞᆫ네 안든 ᄒᆞᆯ게 ᄒᆞ
호쳐ᄒᆞᆫ 날에 말기을 기다려ᄒᆞᆫ 각을 올녀 ᄆᆡ더ᄒᆞᆫ을
보며 오ᄅᆡ 동을 바라ᄒᆞᆫ 롱우갓 쳐곳퇴 가니 소ᄅᆡ 왕
이쳥 ᄇᆞᆫ을 옐ᄒᆞᆫ 졍편을 거ᄂᆞ려 쓕고 뢰왈 ᄎᆔ가ᄉᆞ본
도적이 검영시 홍도즁을 피ᄂᆞ 담이 엇니 ᄃᆡ ᄒᆞᆯ 놀ᄒᆞᆷ
ᄒᆞᆫ니 다라 쇄 호ᄅᆡ ᄒᆞᆯ거ᄒᆞᆯ 원쉬 즁히 진셰을 변ᄒᆞᆫ ᄃᆡ
후ᄌᆞᆫ을 쳔복을 삼ᄒᆞᆫ 쳔 붕으로 후ᄃᆡ되여 일ᄒᆡ이,
말ᄇᆡ리을 ᄃᆞᆯ오려 ᄇᆡ리을 ᄃᆞᆯ니 빌ᄒᆡ을 졔 션ᄀᆞᆯ
니원쉬 도독하 진편의셔 바라보건ᄃᆡ 빌ᄒᆡ 신 광이

심쳑이오 얼굴이 검고 범의 눈이오 곰의 허리라
풍냥한 모양이 사랑갓지 아니하더라 도츈의 작
혈퇴을 풀ᄅ코 게소ᄅ리길ᄂᆡ 왈 주션옥휘 잠
이겸 염시대쳑ᄅ 적줄는다 해대 다를ᄂᆡ로 독이
원ᄎᆞ다려 일너 왈 너는 이엇지 ᄉᆞ람의 취리 보이지 신이
연년 듀증셩의 무뢰타 이의 ᄇᆞ 쳔룡으로 나가더
쳑해라 ᄒᆞᆫᄂᆡ의 쳔룡이 벽녁믁을 드러 발휘을
ᄀᆞ저려 ᄒᆞᆫ나 발휘오 ᄎᆞᆨ의는 혈퇴을 년ᄒᆞ야 ᄡᅳ리라
축로 벽녁 부을 바라 ᄐᆞᆯ휘 근러 ᄒᆞᆫᄂᆡ 쳔룡이 대로
ᄒᆞ여도 퇴ᄂᆞᆫ로 울연ᄂᆞ이 리ᄋᆞᆼ이 굿치 안이ᄒᆞᆫ대 발휘더
호 열쳥의 ᄒᆞᆫ번 색ᄅᆞᄂᆞ지나 쳔룡이 번신낙마ᄒᆞᆫ단
지 ᄒᆞ바ᄅᆞᆯ 휘거ᄉᆞ 왈 고아쟝셕로라 ᄂᆡᄂᆞᆫ 쳐나ᄅᆞᆯ

다ᄉᆞᆺ 향을 능히 결워 보ᄂᆞᆫ고 다노ᄉᆡ의 몸
녀을 일ᄃᆞ 쳐ᄒᆞ리ᄅᆞᆫ이 ᄒᆞᆯ퇴을 마쳔의 더 질지어
들어보와 언ᄯᅦ의라면 ᄒᆞᆯ퇴을 더지거나 ᄯᅥᆺ슨 반이나 ᄯᅥ
ᄯᅱ바 ᄒᆞ녀 쳔ᄒᆞᆫ이 불노을 여 힘을 ᄆᆞ올 녀 ᄉᆡᆼ이ᄅᆞ
죄텨나 무김기 쳔만ᄅᆞᆫ이나 되년리 화져옥 ᄉᆡᆼ어ᄂᆞᆯᄂᆞᆫ
몸을 쇼ᄉᆞ말과 몰을 나본 젼으로 ᄃᆞ라 와ᄐᆞᆫ 왈이 ᄅᆞᆷ병
상ᄒᆞᆫ ᄉᆞ람의 힘이 어니라 어ᄉᆞ 후신을 모ᄃᆞ 최ᄅᆞᆫ오
평ᄇᆡᆨ셔 어병ᄌᆞ 평을 ᄆᆞᆯ로 되왕의 ᄌᆞ후신인가
몰나이다 언니의 말 ᄃᆡ쉐여 왈 ᄇᆡᆨ만병병 운 ᄆᆞᆯ을
괴말ᄃᆞ 뒤병ᄒᆞᆫ 되열국 ᄒᆞᆯ기우려 쳔에와 로노야 경
ᄒᆞ지어 더니 더 젹ᄒᆞ되 엇거든 나 ᄉᆈᄎᆡ 줄니의 ᄉᆈᄌᆡ
호ᄃᆞᆯ여나 쇠ᄎᆡ 줄니로 ᄃᆞᆨ이 ᄎᆡ로 왈ᄆᆞᆫ ᄌᆞᆨ의 무ᄎᆡ ᄌᆡᄆᆡ

이갓흔 나그배뢰울 즉히지 못헌 즉 기행즌 고로 어
라 원쉬 ᄒᆞ이제 왈 ᄒᆞ장이 녹려를 바ᄂᆞᆫ 부울 견
위보ᄂᆞᆫ 져ᄒᆞᆫ 나다 도독이 침음부랑을 나연치 ᄒᆞ다서
옷ᄉᆞᆫ 왈 ᄒᆞ장의 성검을 평생의 순랑터ᄂᆞᆫ 비화만
장에 더터울리 불어지 붓치리 이ᄅᆞ 데되의 편바실
이다 ᄒᆞᆺ ᄒᆡᆼ으 내ᄉᆡ ᄒᆡ의 만장을 팡지 못ᄒᆞ 변군 편을
득퇴 이아 ᄒᆞᆫᄃᆞ 창검을 줄니흔 아ᄒᆡ울 ᄆᆡᆺ기ᄅᆞ 적
은 환도울 차ᄅᆞ 중서울 ᄒᆡ그 ᄆᆞᆯ거울으 내어리 사온
케 동다 ᄒᆞᆫ 가ᄒᆞᆫ 동ᄒᆡ 만장다 비옥 ᄭᅵᆫ다 ᄒᆡ산ᄒᆞ 동리
셜로 상쟉ᄒᆞᆫ 인물이 아네라 ᄒᆡ장 삼근이 ᄭᅧᆫ젼 ᄒᆞ다
나쇄 그송 부울 구평ᄒᆞᆯ 세도독이 쇼ᄒᆞᆫ 진의 놉희연
퍼 ᄆᆞᆫ 일흔 나이 ᄋᆡ태 가ᄅᆞᆫ 뒤ᄀᆞᆫ울 모라 구원ᄒᆞ려 ᄒᆞ
더라 이ᄯᅢ 흉 원쉬 셩ᄃᆞᆫ 편ᄒᆞ의 ᄯᅥᆯ화마울

울타ᄅ나셔너션연한체로와로일헌로ᄂ체
길편의일리기이인이여론발휘의거동이더욱가호
홍더라발휘활퇴울주족며셔홈을도독다가홍
원숙의섭ᄂ야질노빨ᄅ비을기스치광ᄅ완ᄂ이여
오ᄂ빠의숙풍의가괴병자영ᄅ몸의강옷시연스
물보ᄂ대초왈늬ᄅ병ᄅ격ᄅ티가랑이평ᄅ더엿보쳐
나온이노애한번초편ᄅ뢰조더활퇴울ᄅ뢰온
뭥울ᄅ팡ᄅ며달은아ᄅ너홍원취발울즐내섬여
보울굴너셔며살울새여한지울쇼뇌효로눈쌀
에발휘의녕불울맛최나ᄂ무와돌갓효더살죽이
구울너하휘셔커지며상피이엽ᄂ괴타발휘가ᄂ제
초왈을빙헌아퇴격포울밋ᄅ변의낭옷슬거우은
표라ᄅ며즙히팔아로거훌호ᄅ낭이라셔로ᄂ퇴셔

내옥숫을번드러활쥐을소아발뒤의좌편눈을맛ㅅ
쳐니안뒤졸흘흘날고라발뒤환바뒤흐뤼흘드는
외살을새바이내노러둥쳔흘여볼갓되이러나거옷
술배놔쏴회여져ㅎ감은실을로되기여얼네오며
로은옴술노다시ㄷ렴슐파노애빗당이가긋슴으로
쇠바드리라이을갈배달아르니홍낭이신연이자
악을여열호걸하니엄숙다시빌을돌니연방
이러흔내다시혹지되얼네는이잇써도하날이놉
흔시불보르기로내엄의눈을소앗시다시쇄시되
외옥편는을맛치리라흔헷활을달희여시쇄
호뤼나뵈발퇴손을드러가되옥내활퇴을드니
흔낭봉쾅흔여반궁냑더저르마장의쇠비을기닐
내려호와활노애벽로쳐배를저니나반내리흔책

네쳘은죄을바ᄅᆞ과ᄅᆞᄃᆞ리ᄃᆞᆫ니홍낭이곤ᄒᆞ매
귀ᄒᆞᆫ며ᄃᆞ리살을ᄲᅢ여ᄂᆞᆯᄅᆞ소ᄅᆡᄒᆞ며ᄋᆞᆯ이뎐ᄒᆞᆫ오
랑리ᄃᆞᆼ산ᄂᆞᆫ을앗기ᄅᆞ심ᄒᆞᆫ을모도ᄂᆞᆫ도리얍시와
쇄퍼뒤쳘은뎐이ᄲᅡᆯ갓치바ᄅᆞᆯ발ᄒᆡ의ᄇᆡᄒᆞᆷ을맛쳐
나사못ᄒᆞ여ᄒᆞᆼ가지나오ᄂᆞ대리홍낭의쳘은뎐에ᄲᅡᆯ상뎐
살다달나빅발ᄇᆡᆨᄒᆞᆫ혈ᄉᆡᆯ아나라당ᄒᆡ울견ᄒᆞᆨ
어ᄇᆡ공을ᄉᆞᆯ나발ᄒᆡ의뎐신이쇠가지단ᄅᆞᄒᆞᆫ나ᄇᆡ곱
궁기아엇지뎐ᄅᆞᄒᆞᆫ리오비ᄒᆞᄉᆞ한ᄇᆡ대져ᄒᆞᆫᄅᆞ말제
쇄리지뎐ᄂᆞᆫ의등쟝갓ᄒᆞᆫ화ᄅᆞᆼ에ᄀᆞᆼ을ᄇᆡ다시야ᄂᆞᆫ여
나홍낭의제달아ᄒᆞᆯ나ᄒᆞᆫ다가ᄒᆞ혜엽더져네ᄒᆞ독
이징상의쇠마리보ᄅᆞ뒤군을모라엉살ᄒᆞᆫ며그내리
울버혀가의달아ᄒᆞ졍ᄒᆞᆫᄂᆡ만ᄇᆡᆼ이ᄒᆞᆫ겨지ᄂᆞᆫ지라

쳐장삼죵이원슈의신이현공법을징졀을베엄
디련지파을놀나며타이쇠돈미낭장이곳ᄃᆞ졀
북쳔의미북죵엿다가발하뒤쳔태과의몸을
보ᄃᆞ일시의염살죵여쳥을어드니이의쥐군을과
나쾌셩의돌어형지을살펴보니길지쳘용상
셩어올띡ᄃᆞ을열ᄅᆞ보니곤낭쟉되편거시만곤
졈의가둑쳔과서무비슈졀폐되지라조록의몰
우리군의일둑이슈쳔의성출죵ᄃᆞ가되쾨지어내
죵엿상어팔뒤재중죵여슈쳔오죠다라돌변엿지
졸태오통원의옷ᄃᆞ왈슈쳔슈쳔이블니여회다
쇄간의쾌갈목둑구슈중은이염슈미졸운굴이쏘한
슈군조둑이쇠지라그둑여옷며되대죵을쳥죵의
안ᄃᆞᆫ굴ᄃᆞ방븟쳐빅쳥을●안부굴며이의

은ᄃᆞᆫ변통편의ᄂᆞᆷᄋᆞᆫ셕더잇셔정리될슈ᄒᆞ
ᄃᆞ래화를ᄒᆞ거ᄂᆞᆯ조두이원슈다려날우리흉진의
굴몸을여비축의조용ᄒᆞᆫ곳거리을걸을제못
ᄒᆞ엿더니이ᄎᆡ이갓ᄒᆞᆫ정리을보기쉽지못ᄒᆞᆯ지
라여의두어ᄌᆞᆫ술을갓다셕ᄃᆡ의올나안을되올
쇼쳥ᄒᆞᆫ되라이의ᄌᆡ경을보ᄂᆞᆯ너ᄭᆞ가기쉬되ᄒᆞᄂᆞᆫ
다방ᄎᆞᆫ아ᄎᆡ을다려편복으로ᄃᆡ의올으ᄂᆡ셔암산
셕이가장욱아ᄒᆞᆫ울ᄒᆞᆫ쳥ᄒᆞᆫ쳐여ᄎᆞᆼ빅여주졍ᄒᆞᆫ데
셕ᄃᆡ놉ᄒᆞ쇠ᄌᆡ가안ᄒᆞ되버터잇ᄂᆞᆫ뒤의킈ᄋᆞᆯ은욱
ᄃᆞ방ᄃᆞᄒᆡ여가엉시널너난피곤그의울음소리ᄃᆡᆨ
숙을ᄐᆞᆸ은ᄌᆞ파로두이츌야ᄎᆡ을병ᄒᆞᆫ여축쳔
을가ᄌᆡ요라ᄒᆞᆫ여원슈와ᄎᆡ로편ᄒᆞᆫ여갓ᄎᆡ여

만홍낭이죽홍낭ᄉᆡᆼ을나죽이ᄒᆞᄃᆞ호채ᄋᆡᆼᄒᆞᆫ벗
채나타나거늘토죽이졍숙봉왈낭이무상불
현열이잇난조홍낭이죽연게왈쳥은드ᄅᆞ니
우자는비ᄅᆞᆫ행이되ᄅᆞ기ᄅᆞ노든물을섬우희나니
쳬ᄅᆞᄃᆞ는강남도이ᄉᆞ는서라그울음소ᄅᆡ다도ᄃᆞ에낭
스나뎐열은그소ᄅᆡ그리화쳥을ᄃᆞ름일은엇지그ᄅᆡ
취랑을나잇ᄃᆞ쳥이쳥누쳘롱으로심중을맛나
금열병화죽ᄒᆡ나아내ᄃᆞ의ᄂᆞ음이그죽ᄒᆡ물모ᄅᆞ
ᄃᆞ뫼아이리현졍리을ᄃᆞᆼ현죽졔경옹의ᄃᆞ물
라ᄃᆡᆼ숙ᄌᆞ의탄식이무단이셩기나이다도베어내
뫼쳥이뎐일홍누졍의놀아내범의조숙과봉
홀ᄃᆞ홍일걸가무의강리현ᄲᅡ울이잇셔랑

랑음지여류체ᄅ의오싱과츅옥ᄒᆞ여별ᄂ
한평ᄉᆡᆼ을잇지못ᄒᆞ미라상승분쳐ᄂᆞᆫᄃ의소리을
드러보소서삼월츈풍의북산의ᄭᅩᆺ치퇴ᄃ남
산의잉ᄒᆞ고ᄅ으려주섬소량이난만호탕시의난
쌍ᄂ이나는ᄃ더나뷔을연ᄃ여ᄭᅩᆺ가지을ᄃᄃ웅ᄒᆞ
청ᄃ화ᄃ나기셩이화창ᄒ여ᄒᆞᆫ빵을뫼오ᄃ오
별은ᄎ비을냉츄ᄅ두번을뫼쟝가소부는단장
울긔츅ᄒ여아리ᄯᅡ온우음라번화ᄒᆞᆫ소리ᄂᆞᆫ
울시과허ᄂᆡ쳐량을ᄃᆞᆺ토와상ᄃᆞᆯ이여ᄃ옥ᄒ여
나ᄐᆡ볼ᄂ를드쇠통에소ᄂ편득고소리외왕ᄒ여ᄒᆞᆫ
번을뫼열손옥호는편ᄂ이바라재ᄃ독번ᄋᆞᆯ뫼기가
인츼옥의누흔이졈ᄃ즐나여는무심ᄒᆞᆫ바을우ᄉ심

이르로니라 쳥이 신앙을 평숙강남의우연이맛낫
다가쳔녀졀녁의마시이가치모여나ᄅ락궁층
의셕되가혼챵경을별녁흘오제협지의복
궁훤ᄅ로을비상이적거서야일텬불ᄃᆞᆫ바음이왜
로빗쥐여다시이ᄃᆡ의울은북편반나여ᄅ궁을
챵방즐니보년일실이쟝취일쥬이라해볼내빅
일이무편ᄌᆞᆯᄅ홈인에욱시졀여셕안ᄉᆞᆫ디심ᄉᆞᆫ을
축동흘나아지못거이다좀일ᄆᆡ움이벽별호지강ᄎᆞᆺ
어귀로가나자연ᄒ의축여자실흘너로독이쳥좌
의우어왈낭의지편으로여지에맛치복이ᄇᆞᆯ흘는
노비낭으로더부러이뮈여울은젓도우연지상오ᄅᆞᆫ
쳥들은것도우연지ᄒᆞᆫ라순라쳥ᄒᆞᆫ울ᄇᆡ로미

이ᄯᅩ한우는일이라엇지ᄉᆞ호평곤을이르ᄂᆞᆫ
느기리ᄇᆡᆨ변을목양이지ᄀᆡ변이ᄂᆞᆫᄇᆡᆨ변지낙이오
일은울고옹이지ᄂᆡ변이ᄂᆞᆫ일은저낙여ᄅᆡ셔산의
낙조을보ᄂᆡᄅᆞ동산의ᄇᆡᆼ월을바ᄅᆞᄆᆡ무비경ᄅᆡ
나ᄅᆞ홍의남은술이잇거ᄂᆞᆫ가져오라ᄒᆡ낭으로
더부러한번취ᄒᆞᆫ여낭의심회을위로ᄒᆞ되라
홍낭이ᄭᅵ술을ᄅᆞ다시옥배물가져권ᄒᆞᆫ던ᄂᆡ밤이
엽의김ᄅᆞ친이술이나ᄅᆡ옷을적셔ᄂᆡ홍낭이로
옹ᄅᆞ쏠상궁이원옹의ᄎᆔ홍을세므로ᄎᆔᄒᆞᆫ여
패장을보셔ᄂᆡ불가ᄒᆞᄅᆞᄯᅩ한밤이깁ᄅᆞ술이축
홀옹이천금저구을ᄌᆞᆫ보ᄂᆞᆫ순일은시지낙을ᄎᆔ련
치ᄲᆞᆯ으시ᄅᆞ표ᄅᆡ가세ᄭᅵ고흘가ᄒᆞᄂᆞ이다도록에

쇼왕오랑비 주와 즐기자 꽃을여 때 웅이 울ᄃᆞ 줄여
내 빅황공쥬의 큰일이 영ᄃᆞ 이 즈경디 쾌활ᄒᆞᄂᆞ니
장간 흑티 비 목상 불가 흘피 요 낭은 다시 한잔을 치
라 ᄊᆞᆫ니 하 귀왕이 이 못가지 힘리 이 벌가들 고리 ᄒᆞ옹낭
이다시 간왈 병자는 순리와 제장 삼군이 칼을 인
고창디을 내여 읽기 터흘 셩가다 독려 본곤 싱에 망ㅣ
다령안이 강토지 못하거늘 이제 상중이 조라 보되
아나 사비 죽의 진흑 증 기다 연이 일상ᄃᆞ 쳐 중셔이
는다 황의 자라 이제 흔 갓가이 보시지 못할가 흘노여
다 도독이 라스습ᄒᆞᆫ 물는 줄ᄒᆡᆫ 아나라 ᄒᆞᆫ 반쳐 그려 줄여
오셔이 있셔 왈 근일 낭의기 동을 보미 일번 웃출ᄉᆞᆯ
출비 엄쳐 거스 ᄇᆡ 이 망으니 이두상 즈미 ᄃᆞ흥
낭이 스를을 당의 여잔을 쳐우과 이여ᄃᆞᆫ

독의나오ᄃᆡ왈쳥ᄒᆞ야ᄇᆡ호미업ᄉᆞ오나
복위부군은야필뎡필계ᄂᆞᆫ믈ᄂᆞᆫ얻ᄉᆞ오ᄂᆡ상공
말ᄉᆞᆷ의ᄀᆞᆼ숑치아니ᄒᆞ고ᄂᆡ가말을ᄉᆞᆯ폼ᄒᆞᆯ리시ᄂᆞᆫ니
잇ᄂᆞᆫ상공ᄒᆞᆯ즉쳥ᄒᆞᆷ을슌ᄃᆡ거울빗ᄉᆞ시ᄂᆞᆫ졸쇄을
보ᄒᆞᆷ치아니시나이여지현뇌만ᄂᆡ의낭뎐ᄒᆞ야발의
도쳑의되지망을ᄉᆡᆼ각지못ᄒᆞᆯ셔아ᄂᆡ가도둑이거쳑
더욱졀염을어질을밧지아니ᄒᆞ고쟝ᄎᆞᆼ의소ᄅᆡ와ᄀᆡ월
ᄎᆡᆨ이일ᄒᆞᆼ노리등등을ᄂᆡ흉낭에ᄉᆞᆯ이와강해안지못
ᄒᆞᆯᄂᆞᆫ반ᄒᆞᆫ이나서렴ᄒᆞᆯ엿ᄃᆡᄂᆡ도둑이평쳑왈월슉
외쇄ᄒᆞᆼᄒᆞᆫ시므로오뢰쳐셔ᄆᆡ불일ᄒᆞᆯᄂᆡ도리가쉬
ᄭᅵ을ᄒᆞᆯ가ᄒᆞᆫ아나고와원쉬아ᄭᅵ울슉이ᄅᆞᆫᄃᆡ욕군ᄒᆞᆫ에
쇠ᄂᆞᆫ물네가지ᄒᆞᆯ네도둑이순야ᄒᆡᆼᄒᆞᆯ불네왈원슉

울인도ᄅᆞᆯ여ᄲᅢᆺ나ᄌᆞ라가되부ᄌᆞ리안내거ᄂᆞᆫ다지내
곳의츌임지ᄯᆞᆯ나홍낭이혈일엽서불내와
초연단ᄒᆡ와ᄒᆞ여ᄯᆞᆯ이엽스니울아ᄒᆡ조용분왈원
쉬목삼일울상순괴ᄆᆡ타ᄒᆞᆯ셔가왈쉬왈이는
노쟝의알벼이양야라ᄒᆞ져제ᄯᆞᆯ나ᄌᆞᄅᆞ시야의음부
울ᄀᆞᆯ으지아니ᄒᆞᆯ여편ᄅᆞ불벼의셩각ᄒᆞᆯ며조녹의셩
흠이란흉을여흡히광게불보괴못ᄒᆡ엿던ᄂᆞᆫ곰얼
져ᄉᆞᆫ는쳘옥연ᄅᆞᄒᆡᄆᆡ니간연이알일이잇시리라ᄒᆞᆫ
여쳥상의수연이가다시ᄉᆡᆼ각ᄒᆞᆯ대니본데쳔ᄒᆡᆫᄌᆞᆫ
회ᄒᆞ로인셕을ᄒᆞ이ᄅᆞᆯ여ᄉᆞ랑을ᄒᆡᆼ기며ᄌᆞᆯ셔괴박ᄒᆞᆯ
여져분의우ᄒᆞᆯᄌᆞᆫ본셕을져ᄒᆡ지못ᄒᆞᆯᄅᆞ무부되
념녀ᄆᆡ본셕이되니곤ᄌᆞᆫ의ᄆᆡ안ᄌᆞᆯᄆᆡ와이엇거

나의죄아니되오ᄅ거울을가져그얼골을
비최여보니괴셕을낫도ᄅ죄ᄒᆞ여이러ᄐᆞᆺ셰상악
즐비자연심셔산난흔ᄂᆡ감을일우지못흠은말ᄆᆡ암ᄋᆞᆷ이
오케후드두장텬의에든나감히드러가지못흔
박거멋더니도둑이흔야쳐울불너쳥셕왈너계가
일은말이이거ᄂᆞᆯ원쉬장텬의이ᄅᆞᆫ본엇던일이뇨
박비물너가ᄃᆞᆯ홍낭이ᄌᆞ시드ᄃᆡ와심셕가장을ᄅ
둘여쳠상의ᄂᆞ어시여옴ᄃᆞ나ᄋᆡ드두ᄋᆡ홍낭이
지령다홍낭의낭도도ᄃᆞᆨ미ᄋᆞᆷ이쇠ᄅᆞᆯ빗최여반ᄒᆞ
히ᄉᆞᆨ티미엄ᄉᆞ어지ᄂᆞ히미잇셔ᄂᆡ의심이셜기되
오미ᄂᆞᆫ데범텬이ᄌᆞᆨ티변가되오미엇ᄂᆞᆫ죄를미감
혼ᄌᆞ노히미쉬우나홍낭의흉병과ᄒᆡ여신ᄃᆞᆯ므로

도낭도목와이트래는의ᄉᆞ어래ᄂᆞᆫᄆᆞ음이악ᄒᆞᆯ여우
은즉가지옷ᄉᆞᆫ근심ᄒᆞᆫ즉가지ᄅᆞᆫ심ᄒᆞᆫ던바호에
혜의와ᄆᆡ안ᄒᆞᆯ믈당ᄒᆞᆯ비ᄒᆞ음은그즉쳘을의상
ᄒᆞᆯᄃᆞ나증은그ᄒᆞ믈을ᄉᆡᆼ각ᄒᆞ여ᄆᆡᆺ촘네을ᄂᆞ이것
과이아ᄒᆞᆯ너이ᄂᆞᆫ부ᄅᆞ지간ᄅᆞ쳘ᄒᆞᆫᄆᆞ음이라ᄆᆡᆫ일이
ᄆᆞ음이엄ᄉᆞ변네ᄂᆞᆫ더본ᄉᆡᆨ이아니오쇼ᄒᆞᆫ이ᄆᆞ음이라
혈득이ᄂᆞᆫ부덕의ᄒᆞᆯ상ᄒᆞᆯᄆᆡ쳘이ᄋᆞ어엇지부간
삼갈ᄒᆞᆯ비어너희오이ᄒᆞ여도묵이흉낭여ᄆᆡᆯ숨인ᄃᆞᆺ리
ᄅᆞ쳘을당ᄒᆞ여ᄆᆡ즁ᄒᆡᆨ져연이라ᄃᆡ욱이손랑ᄒᆞᄂᆞᆫᄆᆞ음다
공경지심이창누쳔ᄒᆞᆯ은ᄒᆞᆯ아지아니ᄒᆞᆯ비ᄒᆞ보지심이
간쳘ᄒᆞᆯ즁비로도ᄒᆞ야ᄒᆞ로은ᄆᆞ음이ᄒᆞ려ᄒᆞᆫ왈ᄀᆞ믈이
ᄉᆞ쳠을ᄒᆞ리지어ᄉᆞ쳠의와안셩이●은ᄉᆞᄂᆞᆫ덕이

부쳐ᄂᆞᆫ 버려치 승텬ᄒᆞᆫᄂᆞᆫ지 편이 쾌단ᄒᆞ나
나이졔 ᄒᆞᆫ낭을 슌연지 몃회지 간일 호령ᄒᆞ을
보리 못ᄒᆞ엿시나 이만일 네 취츅ᄒᆞ예 이난득이 ᄒᆞᆼ을
외ᄒᆞᆫ 깃분일이 이ᄋᆞ가 되엿ᄂᆞᆫ 옥이 바아 저기 ᄉᆡᆼ다 ᄭᅩᆺ
다온 ᄃᆞᆯ이 번셩치 못ᄒᆞᆯ 너엇저 아쳐 통재 아니 되오
병일오 재종ᄉᆡ와 ᄒᆞᆷ의 반다시 날을 ᄒᆞᆫ ᄂᆞᆫ가지 못ᄒᆡ
게ᄒᆞᆯ거시니 진약현 거졀노 연일노 ᄅᆡᆨ줄 비실 ᄒᆞ여
불연ᄒᆡᆼ지라 이ᄎᆡ을 ᄒᆞᆫ번 거ᄉᆡᆨ을 ᄎᆞᆺ지 아녀 오ᄒᆡᆼ
ᄒᆡ라 다 이ᄒᆡ 원쉬 장ᄒᆞᆼ이 이처 인을 지에 불연물
ᄉᆞᄅᆞᆷ의 ᄆᆞ심 ᄂᆞᆫ 이ᄋᆞᆫ ᄒᆞ엿더니 ᄒᆞ야 ᄎᆔᄒᆞᆫ 쳥을 펀ᄒᆞ여 왈
금일 ᄒᆡᆼ ᄇᆡᆼ의 오재 통으로 ᄒᆡᆼᄒᆞᆫ 리ᄒᆞᆫ 소샹 ᄒᆞᆫ 긔도ᄒᆞᆫ
안ᄒᆞᆫ 원슈을 모ᄒᆡ고 ᄃᆞ ᄉᆡᆼ의 ᄯᅳᆺ게 ᄒᆞᆯ 되야 ᄒᆞᄂᆞᆫ 즁ᄃᆡ
라 원ᄒᆡ 묵연이 ᄉᆡᆼ각ᄒᆞᆫ 바이 엇지 안ᄒᆡ ᄃᆞ가 ᄌᆞ득 ᄌᆞᆼᄒᆞᆼ

의나이기내도쥭이조용이이셔병셔을보다가원슈
양희나아가ᄅ왈작일지야는만ᄂ불빈즐오나금
일즁군ᄒᆡ블ᄒᆡ치아니시니어ᄂᆞᆫ쥬ᄅ이ᄲᅡ되던비아
니로소이다이졔발휘을보건ᄃᆡ탈ᄒᆡ의흉악ᄒᆞᆫ물
짐작ᄒᆡ올지라금일ᄉᆡᆨ흉이그ᄒᆡ실ᄉᆞᆯ을모르ᄅ졍
젹지못ᄒᆞᆯ거시니비록별달은평즁에영ᄉᆞ온우
녀지외지의ᄃᆞᆯ에가셔계즁ᄃᆡ잇ᄂᆞᆫ바라건ᄃᆡ쳣재
울쟝아ᄒᆞᆨ하의츙ᄃᆞᆫ환난을갓치ᄒᆞᆯ가ᄒᆞ나이다
도둑이졍ᄉᆡᆨ왈원쉬야ᄂᆡ변냥ᄒᆞ니ᄒᆞᆯ즐이아곰일
ᄉᆡ흉은이용닐ᄒᆞᆫ냥춍쥭이ᄎᆞᆨ쟝츌ᄒᆡ니원슈는
번노ᄒᆞ되ᄲᆞᆯ나흉냥이블승ᄒᆞ리니ᄒᆞ여도카온지슈
욕의호은비흉원슈쟝츌ᄒᆡ와원슈을보ᄂᆞᆫ

왈금일은오제동쇄홈여장뒤를파흘도둑이
원숙의병을염녀흐여혼즈가서구흔범니젹
지이잇지라원숙은어지크게흐여서아니가흐원쉬
쵸왈이군장을이모르시라창을세내칼을드를
녀장숙을벼이내전을흥졸을물흥흔팔이잡
간는현듯흐나정ㄷ리걸여당ㄴ지병으로본부결
젼의쵸흥복젹흐면싱리흥흔탈이엇지도둑을
인을당흘리오다만회흐의헤장이젹기흘흔ㄹ옵
이병들어쫓츨가지못흐나장군은도둑을뫼셔
밧일금희비잇거든흔팔의게흉흉흘여환난을갓
쳐히지히라쵸는비웅누ㄷ가여라현병의도둑이힘
군현는셔건ㄷ쳥의게오제동이이실내라히군을다쇗

연의낭화쌍봉쟝군이졔일긔와는활을쑥ᄃᆞᆯ이ᄊᆡ
이긔되ᄂᆞᆫ좌익쟝군동취졔삼긔되ᄂᆞᆫ우ᄉᆞᆫ마초우겸으
로졔오긔되ᄂᆞᆫ좌익쟝군마ᄃᆞᆯ이졔ᄉᆞ긔되ᄂᆞᆫ도독
은춍군이되여오졔동와진세을베풀세발된
군은동셔각을일위일ᄌᆞ진을치고추레와보
졸은충간외엇셔동셔각을변ᄒᆞ여일ᄌᆞ로진을
되나죽미동으로봇쳐셔효로ᄡᅥ취평체축히셔여
둘러ᄡᅡ초ᄉᆞᆫ미셩각줄뒤오랑리ᄅᆞ동쇽이춍둘ᄂᆞᆯ
기을조아ᄎᆞ나반일쟉변이우리진춍간을춍살
ᄃᆞᆯ변쇽미쓴어쳐엇지ᄒᆡ키오ᄂᆞᆫ가시나진을그리경
왈쇽과보게여득실을볼으니와도독이진을치ᄂᆞᆫ
ᄊᆞ홈을도드니ᄅᆞᆯ뒤한의셔바라보ᄂᆞᆫ쇼왈더병쥐
쉬심빠제군을일은ᄌᆞ로진쳐나이는형체을

호쟝ᄒᆞᆫ 비라 슉이 당ᄒᆞ련ᄂᆞᆫ 것ᄉᆞᆯ 조자랑
쳐아니 현니기 병ᄒᆡ여 그 흉간을 키면 슉ᄭᅵᆯ
과즉지 못ᄒᆞ여 낭단의 난토며 낭ᄎᆡ젹지 아니ᄒᆞ라
흘ᄂᆞᆫ 동북을 열ᄂᆞᆫ 평병을 모라 병진을 홍도ᄅᆞᆯ ᄂᆞᆯ
니 그 형세 흉우가ᄉᆞ 더ᄒᆞ다 도독이 급히 북을 치며 슉
과 울돌어 동서 가울 향ᄒᆞ니 슉미상을 ᄒᆞ여 일
리 원진이 져며 탈ᄒᆞ히 진의 ᄊᆞ이여 바야흐로 진되거ᄂᆞᆯ
인ᄃᆞᆺᄂᆞᆫ 퇴병 고뫼ᄒᆞ나 명병이 형ᄂᆞᆫ 풍갓치 예와 ᄊᆞ
슉기와 창검이 쳔이 ᄒᆡ되여 나지 못ᄒᆞᄂᆞ니 탈ᄒᆡ
대조ᄒᆞ여 쟝을 불ᄂᆞ 동흉ᄒᆡ 도ᄅᆞᆯ ᄒᆞᄂᆞ니 도독이 진
샹의 ᄒᆡ보니 탈히 신쟝이 실여 확은 ᄒᆞᄂᆞᆯ 얼굴이 검
ᄂᆞᆫ 좁ᄌᆞᆫ ᄇᆡ굴ᄒᆡᄂᆞᆫ 이모로 쏙을 거스되ᄂᆞᆫ ᄇᆡᆨ니

기ᄌᆞ 소ᄅᆡ 즐나고 소ᄅᆡ ᄒᆡ 나ᄂᆞᆫ 울 물 흐ᄅᆞᆫ 곳 ᄂᆡ 산ᄒᆞᆯ ᄃᆡ기
키ᄂᆞᆫ 듯 거세 심 불흉ᄒᆞ야 여파로 독이 죄장을 변
ᄒᆞᆯ여 일제이나 막으되 ᄂᆞᆫ ᄂᆡ 쎄지 경의 겸국이 ᄲᅢ발
치듯 화우의 세되나 탄ᄂᆞᆯ 해로 ᄌᆞᆷ로 광ᄒᆡ ᄆᆡ 엉ᄒᆞᆫ 장
챵을 독로 구ᄅᆞᆫ 한ᄇᆞ리 ᄒᆞ도ᄅᆞᆫ의 풍쳔이 진동ᄒᆞᄆᆡ
명진쾌강의 ᄒᆞᆫ 말이 놀나 실여보올 물너ᄒᆞ더
초슌미도독거ᄅᆞᆫ 와ᄅᆞᆯ 회영 악ᄒᆞᆫ 분시ᄒᆞ도ᄅᆞᆫ더
현ᄌᆞ파ᄒᆞᆫ 일 셩즁을 다가ᄂᆞᆫ 반다서 사람이 ᄆᆡᆼ나상
ᄒᆞᄂᆞᆫ 거서 ᄂᆡ 공보 축을 발ᄒᆞᆯ 여 ◆ 초아광으 미ᄅᆞ ᄒᆞᆯ
가ᄌᆞᆯ 나이ᄃᆡ로 초독이 초왈 병쉬의 ᄒᆡ 엿시ᄃᆡ 공ᄒᆞᆫ로 ᄌᆡ
을 ᄌᆞᆸ지 ᄆᆞᆯ나 ᄒᆞᆯ 엿셔 ᄃᆡ만 ᄀᆞ리 세울 ᄊᆞ와 엉을
보ᄂᆡ ᄅᆞ ᄀᆞ ᄒᆞ미 ● 무반ᄃᆞ과 초슌미ᄂᆞᆫ 이 ᄅᆞᆸ 왈

탈ᄎᆔᄒᆞᆫ법갓ᄒᆞᆫ광쇠라다ᄒᆡᆼ이함평의ᄃᆞᆯ
엇거ᄂᆞᆯ고져ᄂᆞᄒᆞᆫ변후의는광기여러ᄋᆞᆯ가ᄒᆞ나이다
조득이ᄎᆔ락ᄒᆞᆫ나죽시속빅병군과탈ᄎᆔᄋᆞᆯ에
위ᄊᆡᄅᆞ소나ᄐᆞᆯᄎᆔ비로소의곰ᄒᆞ물보ᄅᆞ봉옹여졈
발티니ᄆᆞᆯ거ᄉᆡ여나져일변ᄎᆞᆼ으로ᄃᆞᆯ어오는ᄉᆞᆯ을
바ᄅᆞ며임의숙소ᄃᆡ살ᄋᆞᆯ맛ᄃᆞ낭안에번디갓ᄒᆞ며
ᄒᆞᆫ쵸ᄎᆔ고ᄃᆡᆼ의몸ᄋᆞᆯ쵸ᄎᆞ아진박거나니거쉬더욱
흉ᄒᆡ여라조득이ᄃᆡ군ᄋᆞᆯ모라엄살ᄒᆞ며탈ᄎᆔ거
옹이진ᄒᆞᆯ여동흉ᄒᆞ로ᄃᆞᆯ여기불ᄋᆞᆯᄃᆞᆺᄃᆞ나지아
닌난피라조득이망병ᄋᆞᆯ시살ᄒᆞ다가열모흑
군ᄉᆞᆫᄋᆞᆯ기득어ᄀᆞᆫᄃᆞ셩으로조라ᄋᆞᆯ셔ᄋᆞᆯ아ᄎᆔ말ᄋᆞᆯ
ᄃᆞᆯᄂᆡ오며ᄃᆞᆫ조득이오ᄂᆞᆫ면ᄃᆞᄋᆞᆯ부ᄅᆞᄂᆡ되왈ᄒᆞ은

미커 션갓을 재져가 흔길이 조초이 대도둑이 우믈 일
뵌쉬 오날은 복슬 초일을 허시더보안 쳐지왈 즁
일실음 등 세아가 진상 등평을 보시혀 준데의울나
남울바라 보배 영골노 불허 수 허시더이다 도둑이미 초즐
션하쥰리기 한번거롬 그뢰허엿더니 조곰헌어란아
희도를 쳥병치아니가 려여스스마다 려그 복상혀진
근물은데 쇼소니 쇼이리왈 잇가 쇼장이 도둑의진
쇠을에아 흘여므굴엿더니 당줄시 조술이라 도둑이
옷은 그뢰랑 쇠울 뎌보내기 쳐여왈
젼드울 보내이 젼일홈은 홀연젼이라 상산의근
배양이 잇쳐기 병왈 홀변이어 그배리울 치면
쇼리읏히며 쇼리울 친즉 배뢰용줄 벼고

허리을고쳐변네리와소리업시의상옹을
여셔로향ᄒᆞᆫ나니인견은이울의방ᄒᆞᆫ이라그형셰
셔여헌ᄃᆞ로모ᄅᆞ는서허리을최다가는냥퇴ᄒᆞ나
니다만셩각건대할ᄒᆡ의위인이발휘기혼즉
진츙의돈후ᄒᆞᆫ도죡을힘으로괴젼이을ᄯᅢ
가ᄅᆞᆯ나여다퇴엿더라
도독이보ᄂᆞ니초ᄅᆞᆯ더디며군이ᄌᆞᆫᄃᆞ형의이로비원쉬
형놀받거나와맛거ᄅᆞᆯ삼군을평돈ᄒᆞᆫᄃᆞ제장을ᄅᆞᆯ
나ᄂᆞᆫ장흉의흑을발케ᄂᆞᆫ대도독이평쉭부언을
나원쉬들노시립ᄒᆞᆫ여시며퇴ᄅᆞᆯ간흉ᄒᆞᆫ쟌의속심을
쇠엿ᄂᆞᆫ도화낭협의ᄂᆞᆫ속리헌빗츨쇠여휘헌로
로으ᄂᆞᆫ듯을너여엿볼퇴되고렴가온대사람갓쳐가

ᄯᅢ나 ᄒᆞᆺ시어 도ᄌᆞᆨ이 본인을 도로 내ᄒᆞᆫ 소ᄅᆡ 시ᄒᆞ다가 비
로 ᄎᆞᆷ지 못ᄒᆞ여 거ᄌᆞᆺ 서울 안 ᄒᆡ 경ᄑᆞᆼ이 업고 ᄇᆞᆺ
거ᄂᆞᆫ 광ᄎᆡᆨ이 엇시나 어ᄂᆡ 날 ᄃᆡ가 을 불우ᄒᆡ 오ᄒᆞᆯ 내 샹
의 궁ᄂᆡ ᄒᆞᆯ 홍낭이 도ᄌᆞᆨ의 거ᄎᆡᆨ을 보고 도옹 무 월
금일 진샹 승ᄎᆔ 엇더 ᄒᆞ니 잇ᄂᆞᆫ 도ᄌᆞᆨ이 ᄒᆞᆫ 월 니 ᄇᆡᆨ 변
셔셩으로 장나ᄆᆡ 업셔 ᄌᆞᆫ 실ᄒᆞᆯ 엇더니다 ᄒᆡᆼ이 조ᄉᆞ ᄲᅡ 외 게
인연ᄒᆞ여 긴 법을 벼ᄒᆞ내 ᄲᆞᆼ 장의 ᄒᆞᆫ 지의 진 일 홍에
이솔 ᄐᆡ연 ᄒᆞᆫ 연 ᄒᆞᆯ 엿시니 그 긴 올 치 변 승 젼 ᄒᆞᆯ ᄭᅵ ᄎᆔ 올 가 ᄒᆞ노라 ᄒᆡᆫ
ᄭᅵ의 홍낭이 ᄃᆡ 일 ᄎᆔ 여 잠관 옷 거ᄂᆞᆯ 도ᄌᆞᆨ이 크게
웃고 징ᄎᆔ 왈 ᄇᆡᆨ ᄲᅡᆫ 진 홍의 장 ᄎᆔ 되믄 ᄎᆔ 우나 ᄭᅵ 쉬
ᄲᅡᆼ 나기ᄂᆞᆫ 어 평ᄃᆞ ᄒᆞᆯ 내 내 오 계 ᄌᆞ ᄒᆞ 기 ᄒᆞᆫ 외 ᄭᅵ 인 ᄒᆞᆫ 거 ᄉᆡᆨ
으로 낭의 ᄌᆞᆫ 군을 ᄲᆞᆯ 게 ᄒᆞ여 병을 고 보ᄒᆞᆯ 가 ᄒᆞ 엿더
니 장나ᄆᆡ ᄇᆡ 구ᄌᆞᆨ ᄒᆞᆫ ᄉᆞᆨ은 로 ᄎᆔᆼ ᄃᆞᆨ의 노 련 ᄆᆞ 음

을것잠거못ᄒᆞᆯ여거셕을고졀ᄒᆞ나비로소
영웅열셔업스믈알니로다홍낭이셔ᄎᆞ이붓그려
당지아니거ᄂᆞᆯ도독이탄왈네낭으로ᄒᆞᆫ시소년이
라각일지순는일시희롱이라ᄒᆞ쟉ᄒᆞᆫ죄ᄒᆞ니나
금일편상의탈희을보니나탁의치이여라더으
로향북밧ᄃᆞ음의초감화ᄒᆞᆯ셔아닌지리ᄒᆞᆫᄃᆞᆼ진
을어더날령졍ᄒᆞᆯᄃᆞ국의도라가ᄂᆞᆫ천거졀ᄒᆞᆫ리
요홍낭왈ᄉᆞ보살은엇더ᄒᆞᆫ인물이되어가로도독
왈아직보지못ᄒᆞ엿시나슐법이북실ᄒᆞ다ᄒᆞ니여러
육군심ᄒᆞᆫ는비라홍낭이초왈황이ᄂᆞᆫ죄영ᄒᆞ나
소보살을잡아밧치리니상군은탈희을쾌ᄒᆞᆫ소
각ᄃᆞ힘을난초순이라도독이웃고히락ᄒᆞᆯ니라시
안의도독이왈ᄒᆞᆫ중의ᄂᆡ물ᄂᆡ왈너일흑

이상정낙후이이시나이는나라을괴ᄒᆞ기렬낙속
이와이제밤을당ᄒᆞ여못ᄂᆡ져울당ᄒᆞ여ᄀᆞ죄ᄒᆞᆫ
회로울위로ᄒᆞ리라ᄒᆞᆫᄃᆞ혼야최울불너왈즘아의
근평생의ᄒᆞᆯ일이엇시ᄂᆡ원쉬밤ᄃᆞᆫᄒᆞ구도라가ᄂᆞ니
서ᄂᆡ강ᄒᆞᆼ을븨우지말나혼야최응변ᄒᆞᆫᄃᆞ나오며
생ᄂᆡ의우어왈ᄂᆞᆫ서숙남려ᄒᆞᆼ혐ᄇ불ᄃᆞ근듯ᄉᆞ랑ᄉᆞᆺ
회쌰홍나ᄃᆞ쌰홍ᄉᆞᆺ회ᄒᆞᆼ청ᄒᆞᆫ물우어ᄃᆡ너도후
의쳠ᄒᆞᆼᄒᆞᆫ마라왈ᄒᆞᆼ우의뷩별ᄒᆞᆫ으로조강의ᄋᆡᆯ불안
어즘일은지라일을ᄒᆞᆯ일내오ᄒᆞᆫ더라이날도
두이원슉와즘ᄂᆞᆫ을연ᄒᆞ곰술의하직ᄒᆞᆫ랑ᄒᆞᆫ회
로ᄒᆞᆼ진의여로온물니쾌ᄒᆞᆯ쉬뭉ᄂᆞᆼᄒᆞᆫ여셔벽
되몰앳닷지보ᄒᆞᆫ더니도두이문죄ᄉᆞᆫ여보

너곤즁누쉬잉의온ᄎᆡ이ᄃᆞ쇄봉잘엿ᄂᆞᆫ이장
즁의빗최여조호ᄒᆞᆫ대워권쉬비츼ᄉᆞᆷ을반ᄇᆞᆫ혜최
ᄃᆞ뻐리의ᄂᆞᆫ지혀여쳘ᄂᆞᆫ부화옹이더욱월ᄒᆞ여빗
나거ᄂᆞᆯ은발은졍상의쉬뎟ᄂᆞᆫ대거온이나작ᄂᆞᆯ네
싱분연낙ᄂᆞᆯᄃᆞ될본아담ᄂᆞᆯ예무평낭의황ᄒᆞᆯ거
비ᄒᆞᆫ비숨스즁더ᄂᆞᆯ너도록이가ᄂᆞ나어ᄂᆞᆷᄲᅮᆫ지ᄂᆡ셩
가ᄂᆞᆫ대뎌맛ᄂᆞᆫ나졀을가지ᄃᆞ빅ᄇᆞᆫ젼즁의황ᄒᆡᆼ
즁ᄂᆞᆫ불을ᄇᆡ이상혈일이내쟝속로부혀겁수을
무ᄅᆞᆫ션ᄃᆞ시셕거온대ᄃᆞ될계ᄂᆞᆯ너벙리ᄂᆞᆫ스거랴엿
거ᄆᆞ음이안ᄒᆞᆫᄅᆞᆯ뢰오뢰여ᄒᆞᆫ탄ᄂᆞᆯᄂᆞᆫ심쉬불평ᄂᆞᆯ
뎡너흉낭이졈을쳔여황방이졀로을잉ᄃᆞ옥인의
곤리혀물너거져못ᄅᆞᆯ커ᄂᆞᆯ도둑이옷ᄃᆞ뫌ᄂᆞᆫ궁혈ᄂᆞᆫ쇄로

몬낭을보ᄂᆡ지아니뫼니로보ᄂᆞᆫ하원속여시션거블
안ᄃᆞ로향소복당ᄒᆞ더라이날도독이ᄉᆞᆫ아ᄒᆡ와원
슉ᄂᆞᆫ정통의잇서타ᄂᆞᆫᄃᆞ오제동의진쇄을베도물
쉬호ᄉᆞᆫ까다려왈중일으로제동의리이형거ᄉᆞᆫ이잇
시나목숙진을훼적회ᄃᆞ동청을보리타소ᄉᆞᆫ미청
녕ᄒᆞᆯᄃᆞ가나셜시의홍낭이제ᄀᆞᆫ이요제ᄂᆞᆫ오ᄅᆞᆯ간후
몬ᄃᆞ려의을나오제동을바라보다가ᄂᆞᆯ나급히장
통의로뫼와왈금일쇄통이가장로치보ᄂᆞᆫ나도독
의호백구을갓다도독거뫼뫼라ᄒᆞᆫᄃᆞ보니ᄂᆞᆫ아ᄒᆡ
병을바다봉헌거ᄒᆞᆯ쇄뫼의차ᄃᆞ가셔도독을뵈오
ᄒᆞᆫ니도독이목국진을치ᄃᆞ진샹의잇셔쳑거동편
을살피여ᄒᆞᆯ아ᄒᆡ호백구을도뫼니ᄂᆞᆫ하

이여져왓는일은거운화를거늘어저보니본손
야츼대왈봉헌가온대소찰이잇셔왼쉬를서대
모죽이천이바드시게주라ᄒᆞ대이다로죽이려보
내젹은봉헌거시잇셔왈
되순이가신후는대의을나동남견을바라보니더
이현기운이자욱ᄒᆞ니병처의ᄒᆞ엿시대혹거지하
의필유오술이라소보실의오술이비상ᄒᆞᆫ곤이
왕의ᄃᆞᆯ은비라ᄇᆞᆫ일이나얼을부젼죽제어허기
어려울지라일즉진범을베화일홈이강하셔어
내금헌일이엇거는이견을회매ᄒᆞ소셔소보살의
령회불가의갓징는매왕은불가신장에라ᄒᆞᆯ
로염내혀미여러갓가ᄉᆞ옷이장술이황란ᄒᆞᆫ나
휜도가엽지못ᄒᆞᆯ지라는구셜은블키주ᄒᆞ효빅

궁을 보기바이다 ᄒᆞᆯ 연더라
도독이 변혈의 또 붕헌거시잇거ᄂᆞᆯ 보니이ᄂᆞᆫ 강이
걸고 된거시라 이의 손아쉬다려 쉬당ᄒᆞ여보니셔
안의 지니 진표을보더니 ᄒᆞᆯ연 ᄒᆞᆷ셩이 대작ᄒᆞ니
소별실이 도젹ᄒᆞᆫ다 ᄒᆞ니 승벽이잇지 ᄂᆞᆫ
별실 작법 강이왕 홍낭단 저구ᄌᆞ쥬
션시의 달희되기ᄅᆞᆯ 여뵨 명의 조티ᄒᆞ여 별실다녕
병의 장낙을 ᄂᆞᆫ 심ᄒᆞ니 별실이 병소왈 뎌 왕이 련
일옥띵을 ᄒᆞ장ᄒᆞ시더니 이쳬 죄ᄇᆡ변 셔셩을
당치 못ᄒᆞᆫ 여러갓 쳐나 위ᄒᆞ여시니가 험이 잇ᄉᆞ와
져ᄌᆞ울 ᄃᆞᄒᆞ며 이왼츅을 강ᄒᆞ되 이라 ᄒᆞᄂᆞᆫ 병을
갈ᄋᆞ려 둉ᄆᆞᆫ을 열ᄂᆞᆫ 진쉐를 버리ᄂᆞᆫ도 젼ᄒᆞ니 ᄌᆞ쥬
젼상의셔 바ᄅᆞ 벌계 소별실이 내리의 불ᄂᆞᆫ

슈관을쓰고오석옷슬입고우축의만을
울둘ㄹ좌. 숑의장검을둘어나오니해일헌과
상이내보ㄴ턴뒤되만멱지국의종인헌은손석이라
방울을흔들며갈을둘어웅통을가라쳐니보
석수들이괴상을더려오며부축신령키줄이나
군을보라울리이현향봉다꽃낭자중이라
그기리도다효도를년에줄여삼십축리천
장녕다칼을심이다져살을셩이야채키줄을거야
패명진을죽살은나니그종일장에ㅅ간을파ㄹㄴ
황룡칼을님은나의이일월을빗쳐ㄴ뢰리아뢸
정을내ㄹ가숨의이삼혜축을벼를버혀ㄴ뢰
섭방을벗좌ㄹ과은이순람의게셔이장이암헤

나아갈제 념여라 조독이ᄂ을 벋ᄂ즙히 젼으로

ᄒᆞ여 강ᄭᆞ진을 끌셔 오벡자는 목방강 ᄂ국이을

용슐여 ᄆᆡ발쳔ᄎᆞ운ᄂ 옵ᄂ염믈 옵남쇼ᄌᆞ은

ᄂ살이 ᄂ ᄭᆞ하 멀두ᄂ을 되옥라 ᄒᆞᄂ 일흔 ᄭᆡ앙 ᄒᆞᆼ

를 ᄂ 등남 빙ᄒᆡ의 남하ᄂ 슐여 쇠ᄂ 일흔 ᄃᆡ ᄂ 갈을 ᄂ흘

ᄂ 밤 빙의 남ᄒᆞᆫ ᄒᆞᄂ여 셰ᄒᆞᆫ ᄒᆞᆫ 일쳔 ᄀᆡ는 ᄇᆡᆨ을 쥐ᄭᅥ

쟝은 울내 ᄉᆞ 변으로 도라 다라 운내 제쟝이 셔이

ᄂ리 조 ᄉᆞ졀을 모르ᄂ 귀회 ᄃᆡ ᄒᆞᄂ 문별

황뎨ᄃᆡ 혀 나당 겨ᄂ여 활ᄇᆡ리쟝 령 벌이 일리

심벌이라 부ᄎᆡᆨ ᄂ ᄯᅡ 움 에오ᄂ 왕 은 욕심이오

당이라 ᄯᅡ 음 올 ᄎᆡᆷ 경이라 ᄎᆡᆷ ᄂ 욕심이라

지난 ᄂ 조 ᄯᅡ 운 ᄃᆡ 여러기는 부ᄎᆡᆨ 밧리어ᄂ나

블가와셔평쳥택블을말해보마음라
복심을일우니라。마음이날갓는복심은블
갓호매북방감쥬위를응해는쥬쥬화하여옥
화을쥬헌심쥬을셩해비오진언을염하노마
블을거두어쳔일게할이심쥬안쳔한듯이
혼쳥쳥이니진언을[illegible]옥해소블게할니이혼쳥블
이와혼낭의강마졍이미듯쇄어할나복비[illegible]강
쥬위을응해여심쥬쳥쳥을니마。한의옥해
너、저벌을네소블을쳐이어라오이쇄마한동이보
라。오다가。밴전을바라보뫼는둑오비니한동이내
쳔음강셩에쳥음을졉는셧셔이좌우의졍하나
피방에총는쳥은을여할여가를길이어한다하야

군의당쳐소별군ᄒ여가곳자엿거ᄂᆞᆯ도독이다른골
호령을ᄒ여반진을시ᄒ실ᄉᆡ니손보살이뒤경을
여축시삼왕을거ᄂᆞ린중총의조리와ᄃᆞᆯ회실
보이와ᄂᆞᆫ병원수ᄂᆞᆫ장ᄂᆡ이러ᄒᆞᆫ텰ᄉᆡᆼ이니라
도술이신통ᄒ여면ᄶᆡᆨ지못ᄒᆞᆫ데이아직동
본을맛ᄂᆞ니ᄃᆞᆯ을보아반나이잇실이라
돌더라병원쉬소ᄉᆞ반울ᄇᆡᆯ너왈어ᄎᆡ손보
살이쳐ᄒ여나지안ᄒ니벤일을동쳔의보물을
ᄒ어동총의빗ᄂᆞᆫ쇠ᄂᆞᆫ나니장군은ᄃᆞᆺ미안지을
라리ᄂᆞᆫ오제동북편의뵈ᄂᆞᆫᄇᆞᆨ을ᄒ여지형을ᄒᆞ시ᄂᆞᆫ
오라소ᄉᆡ기쳥ᄇᆡᆼ을ᄃᆞ가니라ᄃᆞᆯ혀손보살을ᄃᆡ
ᄒ여ᄎᆞ력지ᄀᆡ을의논ᄒ더니ᄎᆞᆨ후병이와

별병삼십인이즁복졔의와운즁이녀보나이다
탈흔디조을며갑옷다발을가져오라별장
을베혀오리라보살이발는누꽐을되문은시노물
호쳐에불화져형보자온광촉나그내리올혀
들여목어솟을되잇가쳡은드그나지혜잇는진은
거름을잘는보다는니이졔병장이지형을엿보
문반다시흡아형세을검바드져는비이이쉬올
인연을여계로을울울저어뒤왕은즁아조흔의오
쳔게울강아뫼부컬의게복을흔쳡은오쳔져가다
뫼남헌의녀복을여병변이쳔을겹바하거
돈게다와쳐리종총이나문ᄌᆞ와모든잔장을쇠
속줄례롱을예위함졍이로더니거훈일을혜이내라

티니은와향 둔병어시병 외술직기을 군싱을
티잇가 달은 뒤 칭찬ᄒᆞᆫ 디 굴을 셜니 타이 되순
바삼일이라 향을 살게 ᄒᆞ도록 거보ᄒᆞᆯ나 삼일이외
발이 잠깐 달은 너흔 취치 못ᄒᆞ거ᄒᆞ도록 월일
을 경이ᄒᆞ 못ᄒᆞ더니 금 안 월약물ᄒᆞ니 잠깐 ᄒᆞᆫ
뒤거 보ᄒᆞ다 들ᄒᆞ소는 바을 장ᄒᆞ을 거ᄒᆞ라ᄒᆞᆫ
ᄒᆞ도록이니라 환ᄒᆞ도ᄒᆞ미 달삼장라 ᄒᆞ하감ᄒᆞ일
비병을 다리ᄒᆞ 가만이오 제ᄒᆞ 북편의 가보니 연덕
이 업ᄒᆞᆫ 도ᄒᆞ리 편이나 뎌 모로나 갈 길이 멀 남져
되도록이 더ᄒᆞ 여 잉 우이 ᄒᆞ 되모 ᄒᆞ도 되을 ᄒᆞ 보ᄒᆞ
확 병이 더 잘 ᄒᆞ 여오 계ᄒᆞᆫ 산 ᄒᆞ 여 잘 ᄒᆞ 보 살이 너다
라 길을 바ᄒᆞᆫ ᄒᆞ 제 ᄒᆞ 달 ᄒᆞ 니 다 라 라 우 ᄒᆞ

송줄여 새조와 숨어 만병가 만병이 괴쳐
을 셜쥬 흰둥 괴짓제 에와 셰너로 죽이 불의재
벌을 당줄여 감사 벽병으로 몀진을 재ᄂᆞ 삼
장이 본연이 나와 형을 다줄여 이보데 다편줄나 잉
너만 병이를 을 덥히 왈 탄와 바탈보이고 축을보
평쥐 뭇줄나 돌을 해쥐 변쳐 호표 바ᄂᆞᆫ 쳐울 퇴
별낭을 오에와 삭총ᄂᆞᆫ 쳥ᄃᆞ이 갈이 업스ᄃᆞ 함
셩은 쳔리을 ᄒᆞᆫ 둘ᄂᆞ 시 삭온 비벌치 못ᄒᆞᆫ어
져와 셜봉이로 ᄀᆡ울 ᄀᆞᆯ울어 조ᄎᆞ어ᄂᆞᆫ 뫼흘 일
이ᄎᆞ비 희롱이 ᄉᆞ리 강이 노ᄋᆞ 오모ᄂᆞ 무로ᄇᆞ 쳐 길을 열
녀ᄂᆞᆫ 도ᄂᆞ 죽은 뉴울 빌ᄋᆞ 오ᄎᆞ 취토 죽이ᄉᆞ 흰ᄂᆞ 넘방
위운 호흐ᄒᆞᆫ 번ᄃᆞ해 ᄒᆞᆫ 연ᄃᆞ네 면금 셩ᄀᆞ 이고 양을

ᄒᆞ여 이갓치 ᄌᆞᆫ ᄒᆞᆫ 베 되여 이 여 병이라 엇지 사ᄎᆡᆨ을
(배)목홍ᄃᆡ ᄎᆡᆨ 펼ᄯᆡ 다 되여나 죽게 ᄃᆡᄂᆞᆫ ᄒᆞ되 러옹 한
ᄒᆞᆷ현 화을 방배ᄂᆞᆫ 되ᄌᆞᆫ 오기를 기다리란 라 ᄒᆞᆫᄃᆡ 채
히 ᄲᆞᆯ ᄎᆡᆷ(세)을 가샬여 걸은 쇠시여 ᄂᆞᆼᄎᆞᄂᆞᆫ 말을이 창을
들ᄂᆞᆫ 드되 오ᄂᆞᆫ 안장 ᄒᆞᆫ여 ᄊᆞᆫ 별 십여 년을 버티ᄂᆞᆫ
도죽을 ᄒᆞᆫ오외 ᄒᆞᆯ여 섯ᄃᆡ여 ᄊᆞᆫ 변이 더욱 ᄃᆞᆫ 이에 웃ᄂᆞᆫ
겻쳐여 기디 소우 변이 불갈의 이다가 도둑의 손ᄒᆞ 불
날ᄂᆞᆫ 위ᄌᆞᆫ을 ᄀᆞᆫ나 되여 ᄌᆞ완 ᄒᆞᆫᄭᅴ 화 ᄒᆞᆯ보 실이 ᄉᆞᆫ 손을
저(황)ᄒᆞᆯ늘어 ᄒᆞᆷ티 리여 도죽을 잡으라 ᄒᆞᆯ여 ᄌᆡ ᄭᅥ롱
ᄎᆞᆼ이 더ᄒᆞ 시의 ᄒᆞᆼ낭이 ᄉᆞᆫ 정의 이셔 ᄒᆞ개 ᄀᆞᆫ연 ᄒᆞ
브ᄅᆞᆯ 잡아 가ᄉᆞᆷ ᄃᆞᆯ ᄋᆞᆯ여 모을 별 빌 ᄊᆡᆼ ᄀᆞᆫ다 ᄅᆞᆼ 밧

그ᄌᆞ나타ᄂᆞᆫ 울거ᄂᆞᆯ 환쉬 잠을 ᄭᆡ여 ᄉᆞ야ᄒᆞ

을 불너 지금 어ᄂᆡ ᄯᆡ나 되ᄂᆞᆫ고 무로니 삼경이라 ᄒᆞ거ᄂᆞᆯ

헤거ᄂᆞᆯ 환쉬 왈 밤이 깁허 도도록이 안니 시ᄂᆡ의 삼쇠

도라 ᄃᆞᆫ 몸을 일어 장외의 나와 왈 하ᄂᆞᆯ의 베퇴ᄒᆞᆫ 대

현괴을 살펴 ᄂᆡ 왈 셔ᄉᆡ이 ᄂᆞᆷ난 현ᄃᆡ 흉ᄒᆡᆼ이 각 방의

을 차ᄌᆞᆫ기 운ᄃᆡ 무 칭ᄒᆡᆼ이 당ᄒᆡ 희ᄂᆞ니 헤ᄂᆞᆫ 거 본과 올

이 ᄡᅬ 여ᄉᆞᆺ 서ᄂᆞᆫ ᄃᆡ 경ᄂᆞᆫ 여 생각ᄒᆞᆫ 리 상ᄒᆞᆫ이 회ᄌᆞᆫ 치여

시ᄂᆞᆫ 죽 성의 살거가록 ᄒᆞᄂᆞ니 반다시 연ᄂᆞᆫ 이시미 ᄒᆞᄃᆡ ᄒᆞᆯ

드록 시손 ᄲᅵ기 운ᄃᆡ 로일ᄃᆡ을 어 ᄯᅩᆼ ᄒᆞᆼ 편 건ᄃᆡ 되야

연왈 ᄂᆡᆫ 대 상욱 ᄒᆞ로 몽ᄒᆞ여 ᄃᆡ 손의 왈 상 ᄌᆞᆫ 황 ᄂᆞᆷ의

ᄂᆡ 욱 회라 ᄒᆞᆫ ᄯᅧᆺ 시어 반다시 소록지 ᄒᆞᆫ이 잇쇠 그ᄭᅵ기

옷치이 잇 살이 ᄒᆞ되 그 ᄅᆞᆫ 허이 ᄌᆡᆨ지 아녀 되 ᄒᆞᄅᆞᆯ 반 ᄉᆞᆺ비가

구ᄒᆞ라ᄒᆞ라 졀로와 싸ᄒᆞᆷ을 밧비 가채오라 ᄒᆞ며 일변
발리ᄒᆞ여 갑ᄉᆞ 백여 명을 거ᄂᆞ려 방ᄋᆞ에 오게 ᄒᆞᆷ을 ᄒᆞᆫ
여기ᄂᆞᆫ 녀ᄂᆞ 셔낭 힘ᄉᆞ 뒤를 ᄂᆞ려 욕ᄌᆞᆨ 급ᄒᆞ여 발
울ᄒᆡ 쥐 경ᄉᆞ 가ᄂᆞᆫ 오계 ᄃᆞᆼ을 비러보니 일리 ᄇᆞᆫ 근이 ᄎᆞᆷ
희가 거ᄂᆞᆯ 모로ᄂᆞ 고ᄅᆞᆯ ᄒᆞᆫ 나치 환셔을 진평치 못ᄒᆞ며
조독이 반진의 근ᄅᆞ시 미원 속 거ᄅᆞ혀 ᄒᆞ가ᄂᆞ다 왼
쉬ᄎᆞᆫ 언울 ᄒᆞᆯ 평실이 비월ᄅᆞ여 ᄒᆡᆨ셔 보리 인고 발을
최ᄒᆡ 가ᄃᆞᆫᄂᆞ 길의 ᄒᆞ여 소ᄉᆞᆫ미 을 바나ᄂᆞ 이셔 소ᄉᆞᆫ미 원 속
의회 쟝이러리 물 보ᄅᆞ되 군을 니아ᄆᆞ 바ᄉᆞ운 ᄉᆞᆫ을 혜
최기로 ᄃᆞ육 ᄌᆞᆸ히 ᄒᆡ원 속을 잡으며 ᄒᆞᆯ난지라도 독다
삼과ᄋᆞ 갓가이 오ᄂᆞᆫ 쟝ᄉᆞᆯ은 칼노 배히 ᄇᆡ강히 갓가이
오지 못ᄒᆞᆯ ᄃᆞ라 소ᄉᆞᆫ미 ᄎᆡᆨ광ᄒᆞ되 ᄅᆞ연ᄒᆞᆯ여 ᄋᆞᆫ거 ᄉᆞᆯ

홰죄라가 왼솟을 보ᄃᆞ 되여 왈 왼솟ᄂᆞᆫ 짐갈발
을 벗ᄉᆞ서 지ᄌᆞᆼ도 ᄌᆞ이 간ᄌᆞᆼ의 와여 계시거신ᄃᆡ
즐 보ᄅᆞ니다 흥낭이 담긔이여 ᄎᆞ로 긴ᄌᆞᆼ의 ᄌᆞᆯ이 업
ᄒᆞᄂᆞ다 ᄒᆞ나 ᄒᆞᆫ번이 ᄃᆞᆯ의 더되여시니 보면 화도ᄌᆞ의 일은
이어나 초의 미시ᄭᅮᆯ 알너 보다 ᄒᆞ면 ᄒᆞᆫ엉 멈을 ᄃᆞᆯ너 ᄒᆞᆫ번이면
내ᄃᆞ 죽희 헌ᄉᆞ ᄒᆞᆫ직 치ᄒᆞᆫ평 ᄒᆞᆫ번이 가지어 보면 못ᄒᆞᆯ터
고비되 길을 벌 죄인은 ᄒᆞ나면 일인을 벌ᄒᆞᆫ이
빈을 ᄒᆞ나면 이이을 배되 길이ᄂᆞᆫ 곳의 다ᄒᆞᆫ이엇이것
흥거응이 일네 진ᄌᆞᆼ이 더ᄒᆞᆫ 건을 스보실 이닐을 보
ᄃᆡ되 흥응네 ᄒᆞᆫ장을 ᄒᆞᆫ평ᄒᆞᆫ 괴을드ᄂᆞᆫ 너되제을로
윤여 복을 쳐근 ᄌᆞᆼ을 진쳥도 쳐ᄂᆞ난 대여은 칼니
동의 번죄 서제ᄌᆞᆼ을 베여ᄃᆞᆫ 남의 쳐금라ᄌᆞᆼ이나 여복라ᄌᆞᆼ
이여 쳐영여 ᄒᆞᆫ장ᄒᆞᆫ을의 솟금이 ᄒᆞᆫ의 가죽ᄒᆞ여 ᄂᆞᆷ이

[illegible]
남숩혀여 환빅곰 당이 ᄭᅩᆯ을 ᄉᆞ여 ᄉᆡ로 본번
리 각ᄂᆞᆫ 습혀ᄂᆞᆫ 곧 우가지ᄂᆞᆫ 곽 날기ᄂᆞᆫ ᄃᆞᆺ 이다 ᄌᆞ을
의ᄉᆡ지 ᄒᆞᆼ풍 나영이라 고양ᄇᆡ 좀쇠은 ᄂᆞᆫ이암
ᄇᆡᆨ여 슈방지 못ᄒᆞᆯ져라 ᄇᆞᆫ살이 ᄉᆞᆨ을 방ᄂᆞᆨ이영
셔진 ᄃᆞᆼ의 ᄒᆞ뎐 ᄯᅡᆯ이 ᄌᆞᆼᄎᆞ을 살ᄂᆡᄂᆞᆫ 쥭여ᄇᆞ리
ᄀᆞᆫ이 ᄂᆞ라 ᄃᆞᆼ치 못ᄒᆞ리여 ᄉᆡᆼ도 죽을 ᄀᆞᄅᆞ쳐라 이 ᄌᆞᆼᄎᆞ
올에 와 ᄊᆞ고 감으리라 ᄒᆞ고 평ᄂᆞᆯ 너ᄒᆞ여 ᄒᆞᆫ 젼ᄌᆞᆼ을 ᄒᆞ
일ᄉᆡ의 ᄭᅩᆯ ᄌᆞᆯᄒᆞ여 저ᄒᆞᆺ도 ᄃᆞᆨ을 네ᄋᆞᆫ ᄇᆡᆨ여 쳥장
ᄀᆞᆯ너 일시의 ᄒᆞᆯᄂᆡ 된 ᄎᆞ와게 ᄒᆞᆫ ᄀᆞᆯ너 ᄉᆞᆨ으ᄃᆡ 비
ᄒᆞ오도 ᄃᆞᆨ이 되실 ᄌᆞᆼ곤ᄒᆞ여 불ᄇᆡᄒᆞ니 시어 엇젼 ᄎᆞ질
울물오ᄂᆞᆫ 감ᄋᆞᆫ 울거ᄒᆞ여 나울셔 부ᄎᆞ아ᄂᆞᆫ 면

의시신이 굴의가 죽은 너더라 나오다가 소스미을
바다 소스기 되롤 홍원 죽는 이쾨여 주어나이 잇는조록
이경롤 뫼를 홍훈 글을 이어지 전홍의 오로 소스기 여경
봉원 죽어 기가 길비 만거로 도독을 과져 도려 가는 것
안보려 다시 는 이져 꽃을 나이다 도독이 눈언을 돌고 아 얻이
일녀왈 흉흔 달을 이 죽을 이로 마 만병을 쾌하야 가져
명이라 쏘흔 그 죽을 아져 꽃을 니원 켜비 죽 봉 병을 낫
질이 몬 뎨 잔 아 굴 나울 뫼스다가 뫼스지 못홀 드어 만전
흉의 보런져 못흔 도다 이라 발 죽며 섬니외 생각흘 뎨흔 달
이나올 찾다가 보지 못한 죽 반여 시죽으 물거야 흘뎌 나져
거로 일을 아 흥진가 온지 죽 번죽 퓐 는 가온데 갓 최술흔 편
여아울 외회〃 파이지의 새져 소싱이〃 본죽 나내어져는
바과로 보엣 말의 허엿새며 죽슨 되옷이여로 죽소 보지라향

엇사내나혜싱의의젹되엿곰이리자어야누엇바나니지젼을
운비인나다곰일니쳘혼달은을되지못헤ᄂ죡내조라가과
임어뫼쥬에여러연이평을도울드별을물을내별진에마
서드니졔쟝이일시의승비울장드킨왕는소리ᄂᆞᆫ이
부용졸음각순평흥투트니진의드퍼가중왼솟을
쳐지대이다북왼도독은감간뢈으시드기하돼사죄
울잇박기니시니소강중의왕이로수이라도둑이방강
재거로비록쳬모올도태로패줄나평싱자거롤중에
중론바로그순지의롤물보이견인궁담을니시신을
안면해노은듯순셩한난의차바러바라지못한괴탐의
거지심라옹명심에빵빳슬내셸반기빙이언위에로
리깃즌지화퓡걸을셰에롤발쥼비를쓴드디든일
쳥의반진으로됴흔임을나죄지앙이가든퇴앙을

룰근소셩을ᄌᆞ뢰오지아니ᄒᆞ여일시의들이ᄇᆞᆫ슈네
도흑이ᄒᆞ화쳥을돌우ᄒᆞ며홍도ᄅᆞᆯ여우인지ᄭᆞ지가ᄉᆡ
왕비룡도ᄅᆞᆯᄂᆞ삼장이보ᄅᆞ려겨ᄋᆞᆯ녀ᄀᆞ봉ᄇᆡᆼ을ᄒᆞᆫ부
흔ᄃᆡ라 서의홍원쉬랑ᄇᆡ로진홍을ᄂᆞ구로도라도록
울과ᄌᆡ아형ᄋᆡᆼ이보련ᄂᆞᆫ줄내ᄒᆡᆼ흥ᄒᆞ여ᄂᆞᆫ보ᄅᆞᆯ이ᄋᆞᆸ더
볼쳐ᄉᆞᄌᆡ못ᄒᆞᄂᆞ니소보ᄅᆞᆯ이건샹의셔바라보라ᄋᆞ
다ᄒᆞ여일ᄂᆡ왕을살산로과홍을ᄇᆞᆼ쟝인가ᄒᆞᆫ엿더니
쳐쟝ᄉᆞᆨ의호ᄋᆞᆼᄒᆡ운승쳔ᄒᆞ오ᄂᆞ니가라안을잡재
못ᄒᆞᆯ변내흉을굿ᄒᆞᆯ아지못ᄒᆞᆯ뢰ᄒᆞ리ᄂᆡ이다 그ᄃᆡᆼ쉬
므안이ᄉᆞᆨ샹을여쥬셔ᄂᆞᆷ북의왕내죄ᄇᆡᆼᄒᆞᆫ비ᄂᆞᆼ
흉변흉여ᄋᆞ여ᄉᆞᆯ헌ᄉᆞᆫ모양이나이반다시죄의흣장
울쳐ᄉᆞᆫ도ᄃᆡ가ᄒᆞᆫ번ᄌᆞᆨ여ᄀᆞ[illegible]ᄒᆞᆼ져ᄋᆞᆯ살ᄒᆡ려라ᄒᆞᄂᆞᆫ

의촘옵임의와흑ᄒᆞ여거되왜달앗서나채것생의
쎄효는광축흔현ᄃᆞᆼ이축르치말르일축이항복
중화이혀홍낭이망ᄂᆞᆫ이도족을찰다가이소뢰
울포ᄅᆞ아모되보쳐줄나왓을ᄒᆞᆫ의어지곤혀다디요
다만낭도독의디톄지롱라홍낭ᄭᅴ여신현ᄀᆞ감
으로평ᄉᆡᆼᄭᅳᆺ던바헝ᄀᆞᆺ쎄도과가니그진가을선ᄉᆞ거
기어져온바ᄂᆞᆫᄭᅴ옹이광황현족난졔ᄉᆞ배쥴이
라ᄲᅧᆨ녁이ᄯᅢ디와나되ᄂᆞᆫ못ᄶᅢᆼ신이아족줄모가니ᄒᆞᆫ
온빗ᄂᆞᆫ불에가슴의일어나니ᄉᆞᄉᆡᆼ이조니거ᄉᆞᄒᆞ죄
라ᄉᆡᆼ겸을들ᄂᆞᆫ일네왓ᄂᆞᆫ니나을ᄭᅩᆺᄂᆞᆫ일편ᄀᆞ심
이ᄯᅧ로빗최어나음이ᄂᆞᆫ나의ᄉᆞᄉᆡᆼ을ᄒᆞᆫ번ᄒᆞᆯ고ᄌᆞᄒᆞ나니
난지쥭현보베로ᄯᅩᆺ신이잇ᄉᆞᆯ이니도독의ᄉᆞᄉᆡᆼ을
일ᄂᆡ나의아슥현거ᄉᆞᆯ알ᄂᆞᆯ게ᄉᆞ회홀ᄒᆡ연비

의낭리칼날의셔경연이소ᄅᆡ나며홍낭이여다
시란발라뢰ᄒᆞᆫ연으로일은어셜화빠키을기우뢰
듯더니홍울치니칼이한소리질으더라홍낭이
의칼을들고발을쳐회바로빈전을줄이ᄋᆞ내
낭츅쳥을은번리갓고장츅은편신기흔여진연
칼소리와발발은회룡우거쳐들어오너화날
내는동빅철이불근헌듯일로검당이일회여설발
울여동외번회회여회ᄒᆞ는거세기운키반진
뫼강외메터츅종남영이라발회제제ᄒᆞ여코
계소태를며보실을명회에는몸울호ᄂᆞ아조방을
너홍낭이뜻즌와거와점회게되너보살이일번다
러나며외여일장즌은장간용을구독파이갓쾌
경법박을나조일즁에명국도주을회쾌이업ᄂᆞ거

지장순을속이 세세 장군은 보수코자 말나 홍낭이
차언을 듯더니 우둔탄을 여당지어 굴갈을 날
의버히고자ᄒᆞ더니 달회자조흔여보실을비되거ᄂᆞᆯ
발을들ᄂᆡ여홍낭을취ᄒᆞ여ᄃᆡ원수ᄒᆞ니의홍낭
의션실자녀를당ᄒᆞ되오다하나저ᄒᆞᄃᆡ이편제상이여
곤려오ᄂᆡ만경십여인이채의왕이흡희물보ᄂᆞᆫ
혹기을그음ᄒᆞ여홍낭을에쉬색ᄀᆞ일편일뢰
을ᄂᆡ후작혹우ᄒᆞ여홍낭을싸ᄂᆞᆫ탈회을구하여
ᄂᆡ비혹홍낭의검불이만인찍희ᄂᆞᆫ용이나변하여
의일안조갈ᄂᆞᆫᄂᆡ벽만재홍을눗절여나즁에
ᄂᆞᆫ히당치못홍아절빅ᄒᆞᆫ기운되흰히바강러변
으로일명벽이으로탈희을드으러서조횡을드되니
멋괴외타채당니러보홍이순히더니홀연관

이졔 나ᄂᆡ 열원ᄃᆡ쟝이 쟝을 ᄃᆞ토ᄂᆡ 말을
보라 젼홍의 살을 ᄂᆡ 위홍이 거ᄶᅵ 당ᄒᆞ리ᄅᆞ 외
의 슈ᄀᆞ를 어창ᄒᆡ 신통이 물결을 박ᄎᆞ고 심산변
화귀ᄒᆞ랑을 ᄂᆞᆫ 듯ᄒᆞ더니 그 관살이 크게 소ᄅᆡ를 ᄒᆞ고져
나가니 용낭이 도ᄌᆞᆨ의 발소ᄅᆡ를 보ᄒᆞ리로 급히 발
을 ᄲᆞᆯ녀 와 압흘 당ᄒᆞ여 보니 냥 도ᄌᆞᆨ을 보도리오 나편
의계 소ᄅᆡ ᄒᆞ여 왈 도ᄌᆞᆨ은 어ᄃᆡ를 가시나니 ᄎᆞ 홍은 ᄃᆞᆯ이여
거 잇나이다 도ᄌᆞᆨ이 왼숀을 보든 ᄌᆡ장을 인ᄒᆞ고 담을 ᄯᅱ여 장즁에
즁은 가졋더니 엇지 그져 관롱이 즁 ᄃᆞ라 ᄂᆞ논 홍
이ᄃᆡ 왓을 평이 도ᄌᆞᆨ을 ᄎᆞᆺ고 이자이 ᄯᅢ ᄃᆞᆯ혀와 ᄉᆞ보 실이 즁
홍의 ᄅᆞᆯ 어갓시아 ᄌᆞᆨ젼에 졉오 ᄒᆡ져 젼을 거두지 아니ᄒᆞ고
엿ᄉᆞ온이 ᄲᆞᆺ비로 ᄐᆞ가ᄉᆞᆫ이 ᄃᆞ이ᄋᆞᆫ 낭인이 말을 ᄂᆡ여 ᄂᆡ날을 ᄀᆞ초
ᄒᆡ회근 ᄒᆞᆯ슈 ᄂᆞ말과 장이 ᄂᆡ여 ᄒᆞᆫ 시ᄉᆡᆼ이 긴홀 ᄋᆡ 영녀 엇

시녀창황이드러는만병이원슈을보고놀나신조
갈을들고러운이헌상을여네려싸드로이앙을너저필흉
이동로마플롱이도로회신ᄒᆞᆯ졋리며나오너로록이
소ᄅᆞᆯ며본젼의도라와원쉬ᄲᆞᆯ을나린셔문로여드리혼
졀ᄒᆞ나자의게ᄒᆞ졍ᄒᆞᆫ여로록이곱히ᄎᆞ윤가쟈보니원
슉의임은현로의혈운이임내ᄒᆞᆫ여ᄉᆞ거울려우괴ᄂᆞᆫ여오
너저칸이편로올그도ᄃᆞ몸을보나하만엽이쳔신의당
은가득ᄒᆞᆯ여샹아간뒤로샹현러ᄒᆞᆫ여ᄃᆞ로혈을라ᄂᆞ며여러
라ᄯᅩ빌ᄂᆞ잇ᄉᆞᆫ로셔보더원슉의라신빌의만리강의혈흉
낭ᄌᆞᄅᆞᆯ다ᄒᆞᆫ니도록이야연ᄎᆡ야ᄅᆞᆯ여ᄅᆞᆼ낭을ᄂᆡ로구미져
쳔양현비음을졀평ᄒᆡ옷ᄅᆞᆯ며시반ᄒᆞᆫ구록ᄅᆞᆼ낭이졍신을
진평ᄅᆞᆯ여이러ᄒᆞᆫ니리녀원시ᄉᆞᆼ이현ᄅᆞᆷ과ᄉᆞ올로리보
리아니순원이앙ᄋᆡ지의ᄅᆞᆯ어가시니어로시ᄅᆞᆫ평의회

파혀음즌혀시든국슨을위하사미나칩이강혀
발슴치못흘퇴너와■지즘이간진외즐입즌세보고우
니그가치이어므롤발흘롤리나나칠흔즁번계 현별외손셕은
방당이상궁을좃츠가치혀쳐너와상궁만의어지편
협을좃고쳐주시니너가지시엽는너는혹감격하야
즁재너와유사는일은즈도로혀협을드크혀더니
도리를알아섬기지못흐니일시롤졍으로미흑게
현다즈되니이어지상궁이협을손펏즐시이아보칠
이상궁을뵈타든배아니도소이다드둑이피옹랍왈
양외말이즘와지연이나가봉실줄퍼너와너낭을저
거조알든한갓부부즈뢰형리아비산너어퍼즙난과정
의졸보지아너퍼오나든오히퍼가퍼이아과너쇄낭은
계양녈협재즁이앗쇄소셕을드라보지나아굴너이

또한편지ᄒᆞᆯ일이라차두근심갈재어마홍낭이신채
즁대재홍낭이쌍검을어루ᄆᆡ빌거내두르거ᄂᆞᆫ데
오마만내훙헌소리쥴진시상의와지을놋넌일온리금
가지마음이채울둘ᄃᆞ굴첩ᄉᆞ이엘ᄂᆞ내어종편마심을흘
ᄃᆞ발리니곰냐의즁흉월(물)을다여헌달보실을탐오돼
눈낭이며도족이탐와울뉘여시울고ᄅᆡᄂᆞᆫ젼ᄒᆞ나죽거울에
쇄홀비재얼줄엇시어지지돼옹홍낭발평어ᄂᆞᆫ셩
의잇ᄉᆡ주일ᄒᆞ한편가ᄂᆞᆫ기ᄅᆞᄂᆞᆫ비ᄂᆞᆫ어두엇시니ᄂᆞᆫ심ᄒᆡ
빌오도와줄ᄃᆞ마ᄅᆞᆯ그ᄂᆞᆫ원의가ᄃᆞ재오라ᄒᆞᆯ네라이말이싱
마쳑죽거울죽ᄅᆞᆫᄃᆞ너오너돼돼졍모ᄅᆞᆫ나서쥭쥭거
이ᄂᆞ라쇄도울발헐진뒤
　정장이죽쳑이며죽가ᄋᆞᆯ일ᄂᆞᆫ우미오장이신쳑이
매ᄅᆞᆫ누구ᄅᆞᆫ이니일얼돼ᄂᆞᆫ소지재죽운쥐권미오

동줄기강일뒤삼촌이어찰체올법바로이오
ㅆ나되셤셔이촌어나셥이시올옹희이오체이은흔반
올쌔가거붙울인도희게흰어자저야빈의천애신슈
올취희어오두번물어다섯흔올올나온오연저은
축희이오면흰축라앙이스셤수희이어뒤연옹슈올응
을메오희연주슈취수촌이어시올옹희이오옹도라
니오구비견복이라 조룩어보은뵘어의빈히되지면
의슈거은체갈은부후우우니의냥주죄이어죄조다은
더되웬쇄로손빅병을거난되이셤쵝슈거울가쳐
오계로물가의가자편올보아벼쳐슈과의츤순이셤변식
볼비희여일은체어둘비장견이별쵠을비샤혼듯온흰슈
죽쳔의섬퍼지는듯우러것흔붇초취와안히거순뭘거
운여오란듕어이셥슈거의주복물절은이부자계을알은

왜오제즁의ᄯᅢ터지ᄂᆞ원ᄒᆞ즉시ᄂᆞ관의ᄉᆞ뢰와서쳔ᄅᆞᆯ
으로이쳔거을거ᄂᆞᄯᅢ오제즁부몬바ᄅᆞ미복을버리ᄂᆞᆫᄒᆞ되
와가ᄂᆞᆫ길을ᄲᅮ게ᄒᆞ믈ᄉᆞ슈만ᄒᆞᆫ일ᄅᆞᆫ쳔거을러나ᄯᅢ슉과
보라ᄒᆞᆫ도ᄃᆞ독이완슉와ᄃᆡ군을거ᄂᆞᄯᅢ오제ᄂᆞᆼ남문밧
거졀견ᄃᆞᆯ녀ᄃᆞᆼ쳥을보니라ᄎᆞ셜ᄐᆞᆯ회ᄉᆞ보실이ᄃᆞᆼ쫑
의ᄅᆞ터가군졸을뎜ᄆᆞᄒᆞᄂᆞᄯᅢ여ᄇᆞᆼ의오쳔여인이ᄒᆡ을
당술보더라ᄐᆞᆯ회칼을안ᄃᆞ왈더게ᄇᆞᆼ므독ᄒᆞ완슉ᄂᆞᆫᄒᆡ
불근라ᄀᆞ셩육ᄒᆡ라ᄲᅡᆺᄃᆞᆼ이ᄇᆞᆼ일단거ᄃᆡ쳔ᄃᆞᆯ여장군을
졀단ᄃᆞᆯᄃᆡ라ᄃᆞᆯᄯᅢ본을이거지못ᄃᆞᆯ내보실이ᄲᅡᆯ녹ᄃᆞᆯ
ᄂᆞᆫ야ᄉᆡᆼ검ᄉᆞᆫ광ᄉᆞᆨᄂᆞᆫ무ᄉᆞᆼᄒᆞᆫᄇᆞᆫ광이라ᄉᆞᆨ쳔으로
ᄒᆞᆫ당ᄌᆡ못ᄒᆞᆫᄇᆞᆫ일슉군을로발ᄒᆞᆫ여ᄉᆞᆨ쳔으로ᄂᆞᆫ
ᄇᆡᆨ을쳘ᄃᆞᆫ술ᄇᆡ로ᄅᆞᆯᄀᆞᄂᆞᆫᄂᆞᄃᆡᄃᆞᆯᄒᆡ왈ᄇᆞ인의제
고몬ᄒᆡ나ᄉᆞᆨ쳔ᄒᆞᆫᄎᆡ지ᄂᆞᆫ로쳔의ᄋᆡ시ᄂᆡ여지ᄂᆞᆫᄃᆡ오

연니와 군신 보올귀 병진의 쳐지편을 보나이다 ᄒᆞᆯ
거ᄅᆞᆯ 펼쳐우어 왈 병진 도록이 가장 랑되 즉도다 거빙당
이 너 단지 조기 못 ᄌᆞᆯ으리라 ᄉᆞ보실이 ᄆᆞᆯ 주왈 축젼은 바
다시 니져 못ᄒᆞᆫ바니 져롱기양의 박여 확편셔이 ●ᄒᆞᆫ러
롱동의 숙조ᄋᆞ 오ᄒᆞ며 ᄆᆞᆫ며 명이나 엇지리져 ᄇᆡ을은
심줄뒤 울려 ᄇᆡ상의 둘더니 옹연 동촉의 얼굴ᄉᆞ 귀ᄒᆞᆫ광
촌ᄇᆡ 모든 ᄈᆞᆼ져이 황ᄈᆞᆼ에 그리 외로ᄒᆞ려 ᄒᆞ왈 아ᄋᆞ 새ᄇᆞᆯ니
괴되ᄂᆞᆫ 곱화을 커ᄒᆞ여 소져ᄅᆞᆯ 나ᄆᆞᆯ 힌ᄃᆡ 경을 여 강ᄃᆡ의
울나 바라보니 난귀 여ᄂᆞᆫ 물줄기 ᄒᆞᆫ 동의 ᄲᅵ 실다 져이
하슈허 져ᄃᆞ 바다이 ᄇᆞᆯ을 져ᄒᆞ 평자 가오제 ᄒᆞᆫ이 일허 숙
국이 젼이 ᄀᆞᆯᄒᆞ와 보실이 뒤굴을 이한 ᄆᆞ셔 병진의 셔
숙거울뚠연 이 ᄇᆡ초 다로 궁더연 마가ᄂᆞᆫ 쳐그되ᄅᆞᆯ 나ᄇᆡ져 부
을되고다 ᄒᆞᆫ드이 와 뷰보ᄋᆞ을 열ᄃᆞ라. ᄒᆞ나 되ᄅᆞᆯ니 보살은이

빨죽왈 분 가 쥰디 병 병이 불을 둑 얼 ...

북을 며 가는 길을 막을제 디 다 조을 바리고 쌍을 닙어 굽
헌옥을 변죽내 양편괴게 하 달휘을 히며 져득실보
실을 달이 이 ᄃ쪌은 뼝평이을 가쥐근수을 거나 되지 못ᄒᆞ는
서벽 비스를 뒤며 셔상을 넘어 ᄃ방할셔 옥허며 보얻이 룸을
겁ᄅ리를 을ᄒᆞ타 바토뒤 ᄒ충으로 ᄃ러가니 되 이셰 조ᄅ다.
원ᄎ 남꼰의셔 동편을 보며 남뵨의 불이 다알며 물이 광
빌허 가ᄃ를 원ᄎ로 ᄃ거ᄃ 뵐ᄃ흔 죽이 불내 입의 불을 남
운나랄 회의 동쳥이 넘는ᄃ 이난다 ᄃ길노로 방ᄒ시다 티
ᄅ숙거을 거동ᄌ 셔상의 을나 ᄅ공을 ᄌ며 보며
반ᄅ리 당의 레면ᄂ빠 복충이 셔져ᄌ옷거ᄅ 원ᄎ탄
뵐쳑의 계길ᄂ 복ᄌ동 감ᄌ을 불제로ᄃ 감ᄎ며 불
탄식허며 ᄃ다을 다ᄃ 이제ᄒ울ᄂ며 ᄂ이오며 중을 ᄎ

침을며셩몰을이갓죄 살해하니이여지부의
손상치어니케오려하며탄식흘리며픙이망장하거절은
이근소을거두어도라오니며울이 불근피라도록외울
모재둔은님의슈죡이되엿세다 빨노광듣헐벙
계와다시손형의게곳쳐이논하다가 혼근해피상
근을거두어손권으로도리와다 제갈듕이니편
즌을켜곤며달회의즁화를탐졔을니회보왈됴흘
외보실이래룰을비옹게줄니 리롱등은며 계 셔 샤셩며
되니즁편의큰강이 잇시니병왈위롱가이라가보고뫼
비며환가쳔하이인다 쳔상의거울엇즈랄헌이보살노바
야흐로슈근을조편헌다하거늘도독이왼슈각뫼왈
라연셩각의며져어니표다 즁일의 손근광공이나올게
션을며슈군을동둑둘근편외롱스해하 빙위화의은

듕존이답ᄉᆞ을불너보근복혈을장군은통헌ᄒᆞ여
주롤을나가왕ᄂᆡ생이잇거ᄂᆞᆫ쥐ᄉᆡ물논ᄒᆞᄂᆞᆫ말을ᄒᆞ더
오라계현공을불너왈장군은상뎐ᄒᆞ여가ᄅᆞ뵈와울ᄂᆞ
쳐복을버히라ᄒᆞ복ᄒᆞᄂᆞᆫ물ᄂᆞᆫ줄ᄃᆞ시ᄋᆡᆺ여저벌ᄂᆞᆫ데강구의ᄉᆡ
으라불발ᄒᆞ기을맛ᄎᆞ소ᄉᆡ울보복ᄌᆞ대군졸의셩화
이엽스니내벌ᄂᆞᆫ츄셜ᄎᆡᆨ면홀ᄃᆞ쾌ᄒᆞ니졔ᄃᆞᆼ울시
ᄉᆞᆯ배와달ᄂᆡ쾌작ᄂᆞᆫ쾌ᄒᆞ나이장군은장인을다ᄒᆞ영간
검을여로비게ᄒᆞ며ᄀᆞᆺ다쾌도을ᄂᆡ여흥냥이ᄋᆡᆺ셥져여
오장이백쾌이오ᄉᆞᆯ이ᄂᆞᆫ새발으게불ᄃᆞ쾡쾌ᄂᆞᆫ동굴으록
옷혀분을ᄂᆡ게ᄒᆞ다여더쾌줄계ᄒᆞᆫ거슬은두ᄅᆞᆫ은
쳐올ᄒᆞᆫ다형올ᄒᆞ여군ᄌᆞ갓거줄여병왈타션이좌신병의
발이잇쇠안의군ᄉᆞᆼ을돈주왕ᄂᆡ을임의ᄀᆞ로ᄃᆡ너ᄒᆡ을
술인연술홍으로ᄃᆞᆯ어가ᄃᆞ고쥐을술이연술

상의 ᄉᆞᄉᆞ로 ᄲᅢ로이 살갓고기 온ᄃᆡ 일ᄅᆞ 쾌ᄋᆞᆫ다 ᄒᆞᆫ을
너희 시어거 죽더ᄒᆞᆫ 비두흐 물이 무상ᄒᆞᆫ 나 죽의ᄅᆞᆫ
되ᄒᆞᆫ은 령이 들기ᄇᆡᆼ의 잇심갓 그 죽의 디환호와 근ᄎᆞᆫ빅
여녕 ᄉᆡ독께 ᄒᆞ여다 ᄉᆞᄉᆞ면시 기ᄂᆞᆫ ᄃᆡ호시여 ᄒᆞ여 너원ᄒᆞ고 쏘
ᄂᆞᆫ 법을 일ᄂᆞᆫ 이가로되 나 쳬궁이 ᄲᅡ불ᄃᆡ 옥ᄅᆞᆫᄃᆡ 화야
일ᄃᆞᆼ 비ᄂᆞᆼ 징이 죽심ᄒᆞᆫ 여ᄒᆞᆫ을 어ᄃᆡ오ᄅᆞᆫ 히ᄒᆞᆼ ᄒᆞᆫ 심여
쾌을 ᄃᆡᆯ 톡ᄅᆞᆫ 여보어 원ᄒᆞᆫ ᄎᆞᆫ어 듯ᄒᆞᆫ를 ᄅᆞᆨ합을 기ᄆᆡ니
불너 성쳑을 ᄅᆞᆫ여 별이 아죽더 여로별 투뫼 설봉이
져목을 죽은ᄒᆞ여 강두의 싸이서 불보며 너원ᄒᆞ다ᄒᆞ일
쳥병은 ᄉᆞ와 심여ᄇᆡᆼ 장인을 도져ᄌᆞ을 ᄆᆡ도ᄆᆡ 헤을 못ᄒᆞ리라
빌ᄂᆞᆫ 너ᄐᆞᆺ시의 ᄅᆞᆯᄒᆞᆫ와 보살이 다ᄅᆞᆼ강의 새죽은을 연
즙ᄒᆞᆯ서 죽근징일ᄅᆞᆯ 죽편ᄒᆞᆯ 벼ᄀᆞᆼ기다 건ᄂᆞᆫ 허의 어ᄉᆞᆫ 또ᄒᆞᆫ
쳔ᄎᆡᆨ이 부족ᄒᆞ며 쏴홀 ᄎᆡᆨ키ᄂᆞ 비ᄅᆞᆯ 다ᄅᆞᆫ 너 보살ᄅᆞ ᄀᆞᆺᄅᆞᆫ 싱

ᄒᆞ더니 홀연 쇽샹으로 술슉가너 복슉ᄒᆞ여 션을 쳔너니
혀오니 보살이 보ᄂᆞᆫ 만병으로 고쳔 안을 볼으라 ᄒᆞ니 그려
부당재이너고 비올줄 너ᄃᆞ라나가를 보살이 허곳을 어ᄒᆞ
혀셜으며 잠으라 ᄒᆞ며 옥자화 안는너 는언ᄃᆞᆫ에 복지ᄒᆞᆫ뒤 비병
울어저낭다 너복ᄌᆡ 왈 소지 헤상의ᄅᆞ기 낙져 간생ᄒᆞ여
슉일홰와 간ᄃᆞ 생양헤 선병 병을 받나 슈심ᄒᆞᆨ헌 설어
오라가 싱녀 ᄒᆡᆨ 비울 ᄃᆞ일ᄅᆞ 간연 겹ᄒᆞ여 ᄃᆞ라ᄋᆞ니 ᄒᆞ슈
라 보살이 ᄒᆞᆯ계 휘왈 년후 그낭은 배싱여 ᄒᆡᆨ은 어ᄃᆡ요
난 보셜인이 ᄃᆡ왈 휘상의 선바랑을 기ᄃᆞ리나이다 보살
이 ᄒᆞᆨ시 반장을 보내여 그베을 슈운ᄒᆞ여 오라ᄒᆞ여 가져오
니 셜상의 낭ᄃᆞ 어먹 녹순의 울 영ᄃᆞ 얼골이 검ᄃᆞ라 ᄒᆞ여이
수ᄅᆞ뫼 ᄒᆞ시 상인 볼이라 보살이 일ᄂᆞᆫ 왈 너의 조반 ᄒᆞᆨ순
랑이라 복비나갈 순너 ᄀᆞᆯ 궁의 잇써 비을 복리게 ᄒᆞ

라 일인이 ᄃᆡ왈 소ᄌᆞᄂᆞᆫ 쳔상의 셩장으로 문곡의
와 이ᄃᆞᆫ 나ᄒᆞ여 ᄌᆞ왕이 ᄇᆞ려 ᄂᆞ려 ᄎᆞᆯ 실ᄲᅵᆫ 진셩ᄒᆞ되 이여 ᄇᆞ살
이소왈 연즉 ᄐᆡ조을 시ᄒᆡᆼᄒᆞ여 보게 ᄒᆞ리여 ᄇᆡᆨ작 살을
쥴ᄂᆞᆫ 믈 ᄉᆞ의 ᄃᆞ리고 ᄃᆡ갓ᄒᆞ지 남ᄉᆡᆨ ᄇᆡ 보ᄇᆞᆯ 졀을 ᄃᆞᆼᄃᆞᆼ을
여 평지가 ᄎᆞ친 ᄂᆡ 반긴 ᄒᆞᆫ 실이 되양 칭ᄎᆞᆫ ᄌᆡ셜을 간졍
케 ᄒᆞᆫᄅᆞ 슈군을 쳘둔ᄒᆞ고 병진의 조련ᄒᆞᄂᆞ니 원쉬 ᄉᆞᆫ에
ᄒᆞᆷ군ᄉᆞ 삼쳔 병을 ᄂᆞ여 ᄐᆡ셜을 슉 운ᄒᆞ여 ᄌᆞᄎᆞᆼ희라 ᄒᆞᆯ
즁ᄃᆞ 바ᄃᆞᆯ노가 ᄂᆞ 삼쳔 거를 ᄂᆞ여 ᄂᆞ슉을 장ᄒᆞᆫ즉 디쇼ᄅᆞᆼ
ᄒᆞᆯ을 거ᄂᆞ여 ᄒᆡᆼ을 ᄂᆞ리ᄃᆞ 리 ᄒᆞᆼ강으로 갈ᄉᆡ 이ᄯᆡ 달ᄒᆞ와
보살이 ᄲᅡ름을 ᄒᆞ려 ᄇᆡᆨ을 치며 ᄒᆡᆼᄒᆞ리여 ᄒᆡᄅᆞᆼ강즁
ᄎᆞ의 다ᄃᆞ라 별셕 빙 으로 의 슉실 ᄒᆞ 리ᄒᆞᆼ 샹의 블이
일며 낭ᄃᆡ ᄃᆡ여 보ᄃᆡ ᄒᆞ와 나ᄂᆞᆫ 빙원 ᄒᆞᆫ의 장명으로 이 ᄉᆞ
의 쳔보를 ᄂᆞᄅᆞ 가노라 ᄒᆞᆫ ᄂᆡ 이ᄂᆞᆫ ᄎᆞᆯ 아ᄃᆞᆫ ᄃᆞᆼ이 라 일ᄂᆞᆫ 명ᄒᆞᆫ

울져어 병진으로 도좌가니 즁텬 보물이 통쇄을 조롱ᄒᆞ배
여쳑 젼셜이 삼시간 라셔 불의 그내 달려 본 연이 광
을 들고 화렴츙일 취 셜을 더 보실아 숙더니 잔을
로 배의 올나 얻덕을 바라고 닷더니 물속 싱여 쳑 터셜이
강상의 써올나 그 새도시 실갓고 형옹 거더듬어 입으로
는 뻑뻑 깃도 향아 변 더 거귀 쵤회이 탈흰의 바졔을
치며 삼연 보물을 너가니 그 배는 물노리니 가다가 다른 배
쏘나와 숙상의 소소 쏘임을 버히며 로셜야 쵤회이나
와 쳔지 진동하다가 화아 거옹이 다 듣변 한즁으로 놀나다
롤라 셜이 히상의 소소라 셜이 롤너가니 돌을 물을 돌너베
독할 헤의 명아 듣고 라 보살의 오스되 므로 토당치 못을
또 배 관옹이 상즁며 못태 색거 거진 곤지 좌쳔이 으이 곰되여
슈섬 보배스거라 셜이 내뢰을 숙가고 물속으로 들어

가뎡이출시간의그뵈말회단비압히와내리을
ᄅᆞᆯ려효상의소달회을힝ᄒᆞ여한번그두채내ᄅᆞᆯ
회보살이속흥의드나들회보ᄌᆡ출흥의다녀기야
운지자보살을엽드속상의소스뷔빈광이일혀선
을되여국희더니라ᄒᆞ여드러오며눈보살이수ᄅᆞᆯ법은
로도명그져히여손은조순방으로가르치며각범지못
ᄒᆞᆯ여그ᄅᆞ생어달위의단비울드리엽더니드심여본을닷
다하근독채불속으로들어가나보살아달회ᄯᅩ속궁
의드러가여만진원셜이다라드삼궁장ᄎᆞᆯ이절ᄇᆞᆯ이나속
화의상현지라아가남은지강ᄎᆞᆯ이평신을속습ᄒᆞ여
남은비울ᄌᆡ여시살퇴여홈연속상으로모속희탕
원이분을울내여ᄭᅡ조으거늘원수보ᄂᆞᆫ만셜이오ᄂᆞᆫ가ᄌᆞᆯ
여보다여셜국의일원스지당이ᄎᆡᆼ을ᄂᆞᆫᄀᆞᆫ아니ᄒᆞ여소ᄃᆡ

ᄒᆞ여왈 졔군은 ᄃᆞᆺ지 말나 ᄂᆞᆫ 대병을 쥬의 병을 ㅂ
다치 아니 ᄲᆞᆯ니 ᄒᆡᆼ북쥬에 일병을 보젼ᄒᆞ라 ᄒᆞᆫ대
보살다려 일너왈 ᄂᆡ 이길노 ᄒᆡ상 졔쥬의 가 구완병
[illegible]ᄅᆡ ᄒᆞ여ᄒᆞ엿더니 젹병이 길을 ᄡᅡᆼ으로 엇지 대젹을
ᄃᆡ요 ᄆᆞᆺ비 쥬지의 나ᄒᆡ 다시 와 ᄉᆞᆫᄒᆡ되 ᄑᆡ이의 가ᄭᆡ온ᄃᆡ
뎌의 올나 보살노 거ᄒᆞ려 ᄒᆡ룡동으로 ᄃᆞ려가ᄆᆡ 이날
쥬상이 나려온 ᄉᆞ변 장은 일지연이라 바로 변졍의 다ᄂᆞᆫ
ᄒᆞ라 챵을 ᄃᆞ룰ᄅᆞᆸᄒᆞ니 원쉬 밧비 손을 잡어ᄯᅥ 어왈 쳘
북동의셔 본쥬ᄅᆞᆯ ᄯᅥ보ᄂᆞᆫ 쥬으로 가ᄅᆞ 북은 남으로 ᄋᆡ령
쥬즁젹이 다시 ᄇᆡᆫ나 보ᄅᆞᆯ과 아지아연 ᄇᆡ와 일지연이 쥬어
담왈 쳥이 원쥬의 [illegible]상 긔은을 입어ᄉᆞᆺ혼ᄃᆡ 엇지 ᄌᆞᄎᆔ
어로 길이ᄅᆞ 별ᄒᆞ려ᄒᆞ온 졍이 오날을 거아야 현ᄅᆞ로 잠간
회ᄒᆞᆫ을 혀나 ᄆᆡ자 원쉬 손을 잇고져 도ᄒᆞ거ᄂᆡ오

네도둑이ᄯᅩᄒᆞᆫ반거ᄉᆞᆯ장군이죽기ᄅᆞᆯ위ᄒᆞ여도
적의가ᄂᆞᆫ길을셔살을ᄂᆡ그궁이크도다일지언이죽과
을ᄒᆞᆯ네도둑을잔조보내셔ᄯᅩ이못ᄒᆞ고ᄒᆞ더라홍원슈
다려왈쳡은일리여ᄂᆞ파엇지국가을위ᄒᆞ여공을일우져
즐기되오이길은실노쳡의바라왕을위ᄒᆞ여힘을다ᄒᆞᆯ
며낭자인의ᄯᅳᆺ을조보고져ᄒᆞ매로송이다언이의죽ᄂᆞᆫ
쉬왕이ᄯᅩ일은ᄯᅡ도독하원슈을보ᄂᆞᆫ일ᄅᆞ안이절일ᄂᆞᆫ중
군조ᄎᆡ성각난비잇ᄒᆡ벅ᄯᅥ잣작이잇서이을평ᄇᆡᆼ쳐
못ᄒᆞ면후ᄒᆞᆫ이혼자지아니ᄒᆞ고되이제내이을다타흔희상
으로출수ᄒᆞ여온다ᄒᆞ여ᄯᅩ실노도둑은홋근셤을말
은조ᄎᆡ원슈왈뉘왕이편조을위ᄒᆞ여이갓ᄯᅡ거ᄂᆞᆫ슈시어
이ᄂᆞᆫ국가의ᄯᅡ희ᄒᆞᆫ이다이제칼휘을잡지못ᄒᆞ면ᄂᆞᆫ심이라
이번길의장졸을어더마거ᄃᆞ라ᄒᆞ옵서가죵ᄂᆞᆫ일ᄒᆞ회

하평병칠쳔거와 ᄎᆞ동ᄐᆞ동로 심정을 ᄃᆞ리되엿ᄂᆞ이다
왼쉬 ᄌᆡ회졸에 도독거ᄃᆞ 왈 일의 동ᄲᅮᆫ ᄂᆞᆫ 졍으로 ᄃᆞᆯ희
와 다라나ᄂᆞᆫ 길을 ᄆᆞᆨ어시니 뒤흘 졔 ᄌᆞ흘게 ᄂᆞ니라
도독이 계ᄌᆞ을 거ᄂᆞ려 뎨통ᄌᆞᆼ으로 ᄃᆡᆼᄒᆞ니 ᄉᆞ시에 ᄃᆞᆯ흔
보살노 거ᄂᆞ리 연ᄃᆡ의 오르게 ᄆᆞᆯ뼌에 ᄎᆞ로 보ᄒᆡ 쳐되 ᄒᆞ엿던
ᄲᆞᆯ을 ᄐᆞᆯ희와 보살을 ᄏᆡ여 가지고 뎨통즁으로 가라ᄒᆞ더니
뎨통등의 병진거ᄒᆞ믈 ᄉᆞᆯ피ᄃᆞᆯ이 나셔 ᄃᆡ호ᄒᆞᆫ ᄇᆡ동ᄌᆞᄂ
다라 계ᄒᆞ 왈 ᄂᆡ 통ᄌᆞᆼ을 어ᄃᆞ시어 ᄃᆡ로 갈다 ᄐᆞᆯ흰 ᄇᆞᆯ
이세 즁ᄂᆡ 진ᄒᆞ여 ᄇᆡᆼ나 이 ᄯᅥ나 ᄌᆞ화 남으로 다라나 낭이외
도독이 ᄎᆞᆯ뒤ᄶᅩᆺ쳐 ᄒᆞ더니 항셩이 ᄃᆡ진ᄒᆞ여 ᄇᆡ동으로 ᄆᆞ ᄃᆞᆯ이나
다라 뒤로 ᄒᆞᆯ ᄲᆞᆯ니 항복ᄒᆞ라 ᄒᆞ니 ᄃᆞᆯ흰 뒤로 ᄯᅡ려 ᄉᆡᆼ여
항복을 ᄉᆞ호더니 즁군의 셰 항셩이 일ᄂᆞ고 ᄀᆞ이 ᄯᅬ 병즁에
젹거ᄃᆡ군을 ᄆᆡ 도독이 ᄃᆡ군을 거ᄂᆞ려 ᄃᆡ엿 ᄉᆞᆯᄒᆞ니

달희싸홀의셔엉뉘닷ᄃᆞ려ᄀᆞ러니병진벽ᄡᆞᆫ귀
즁이뭘ᄒᆞᆫ것귀예우며즙히ᄎᆡ니ᄡᆞᆫ면으로방진을헤
뵈실ᄂᆞᆯ을ᄒᆞ위희ᄃᆞ길희친이황울ᄒᆞᆯᄂᆞᆫ나서ᄂᆡ여볼이
졔ᄂᆡ이졔한변조독라자웅을ᄯᅥᆯ면쾨ᄒᆞᆯ넝ᄭᅩ독은
나셔화ᄒᆞ독즁귀황이갈울물ᄃᆞ나와식지ᄐᆞᆫ잘ᄃᆞ리변
도독은황벙울ᄲᆞᆺ고외삽준ᄉᆞ배울롱도ᄀᆞ르시니엿
쟈재놋도뎐으랑ᄏᆡ와당ᄃᆞ시키ᄂᆞ냔ᄲᆞᆫ남벙도즉ᄉᆞᆼ귀
왕이라네숙금울ᄒᆞᆨ해여도독과ᄒᆞᆫ되라ᄀᆞᆯ헤ᄀᆞᆯ
호엽혹중은남방북ᄋᆞ지구의잇ᄭᅥ볼라소ᄉᆞ장윤
으로신즉기의울모ᄃᆞ고이갓되못졔ᄒᆞ리ᄂᆞᄉᆞ궁이
ᄒᆞ왕을엔싱울네ᄂᆞᆫ즉텩ᄉᆞ조회ᄂᆞᆨᄒᆞᆫ켠ᄃᆞ울거ᄉᆞ독
연국도반젹아니변북의잇ᄒᆡ여지나의빌표ᄇᆞᆯᄒᆞᆼ
지와올보ᄃᆞ되오니부ᄒᆡ울람을ᄯᅥ이ᄯᅢ울ᄒᆞᆨ엿시니

이는 존귀을 모로미오나 라왕을 ᄯᆞ라 ᄉᆡᆼ각 활을 모로라 ᄒᆞ시ᄂᆞᆫ 인
의영을 모로ᄂᆞᆫ 금수와 일반이라 이는 동숙을 리판ᄒᆞ연고
되국을 번분 내 불충이여 ᄒᆞ니 너을 버히고 연을 징계ᄒᆞᆯ
되라 ᄒᆞᆯ 뒤 뒤로 줄여 평연 전비 여한의 낭인의 그 세당은
줄여 벌 갓치 쏙기고 공갓치 날을 회내 산악에 못여 지는 듯 ᄒᆞᆯ
여파 도둑여 원수 진상의 쎄 비라보ᄂᆞᆫ 이와 폐장을 돌구나ᄯᅥ
도으파 줄 내라 ᄒᆞᆫ의 뫼 ᄒᆞᆫ 동 훌연 지 동 줄이 갈을 우편의 ᄎᆞ
돌 동동 삼장이 구슬을 보라 복을 피여 라ᄋᆡ 편민 강 줄 내
광 줌이 비 발 되근 데 와 쏴 뷔ᄐᆞᆯ 회 편간 ᄒᆞ되 못 싱여 ᄎᆡ
광을 ᄣᆞᄅᆞ 비 줄 ᄉᆞᆯ 거ᄉᆞᆫ ᄅᆡ지 ᄂᆡ 모든 군션이ᄂᆞᆫ 시인 ᄃᆞᆯ아 줄
어졀 박줄여 본진으로 도ᄑᆡ오 ᄂᆡ ᄉᆞ 보살이 ᄐᆞᆯ히 장ᄒᆡ
가ᄂᆞᆫ 보ᄃᆡ 처경히여 줍히 진언을 ᄲᅥᆷ 줄 ᄇᆡ 불ᄋᆞᆯ 군ᄃᆞ ᄎᆡ
령흉이 ᄃᆡ작을 버 ᄉᆞ속이상 ᄂᆡ 12 부ᄋᆞᄒᆞ 줄이라

현대상으로진뽕의권면을내도록뽕이되도록
여역시변을여오죽려나찰이되여일장을구속하여
문득뭇숙지츨이시려져훈젹이업드이현마람이마
론입을쁠이소변으로흣더지며입이우어왈롱죽을
은번뇌저쌀나누숙청신여기의뽕최를늬지쳐주부레
보굴군초비보랑을너흘왈쉬귀견을며쌀곰일도물을
참지못을변흑환이부공히도다흐른물을검을둘러남승
총울가라최면진연을얼든나고이엽히본이어려지며
다시변현치못히고외것헌일러보실이되여다라나라
둥거늘왼쉬귀장을서죽을여공히신즈랑즈쳐즐여니
보실이손두최빈여리소민실은이되여안쪽이현난즐여
전가을모로들저라왼쉬낭뽕의냐여려면뽕을도스니롯
던빅최은엽죽을게며경뽕의더고여빅귀칠디보되롯

낫고화ᄒᆞ여 일ᄇᆡ 공을ᄃᆡ 금츅ᄒᆞ되 ᄃᆞ 금츅ᄒᆞ고 츈ᄒᆞᆼ
쥬ᄒᆞᆼ 북바ᄃᆞ 금츅ᄒᆞ가 소보살 ᄇᆡᆨ여 ᄀᆡ 뇌원 낫낫
치ᄉᆡ 우니일 ᄇᆡᆨ 질리 소보살은 스시고ᄂᆞᆫ 별디 소보살
이ᄂᆡ 뢰을 북ᄃᆞ기이며 ᄒᆞᆫ희의 ᄭᅩᆨ러 살거져 되인 기를 졸나
원취 군소을 호평 즐여 바ᄒᆞ라 쥴니 보살이 황 겁ᄂᆞᆫ데
뇌연이 비려 왈 원숙은 엇거 ᄇᆡᆨ은 동로 당박 거ᄊᆞᆺ더며
주을 이로시어 가은 더을 도외오 순죵을 ᄉᆞᆫ면 오ᄅᆞᆯ 셩 가ᄌᆞ사
잔명을 살나시면 즁젹을 멸ᄒᆞ고 더시 안가 ᄒᆞᆫ 텬명
죄어 뇌이온 원쉬 바냐 호조에 ᄃᆡ라 ᄯᅢ와 오미 호령으로 즉이
젓ᄎᆡ 각난 즁에 복ᄌᆡ 현셩 병을 살뢰 ᄒᆞᆫ니 엇지 살기을
ᄇᆡ텬뢰 도 보살이 제 왈 이로 ᄎᆞᆫ 권은 츅ᄒᆞ여 지내와 ᄒᆞᆫᄇᆡ
뢰 도 ᄂᆡ 일 ᄌᆞᆨ 도 ᄉᆞ의 철병을 ᄇᆡ니고 뢰 셧 ᄭᅡᆷ이 잇사이다
흉ᄒᆞᆫ 겁진을 ᄇᆡᆺᄂᆞᆫ 뒤 퀀에 도ᄐᆡ가 ᄋᆞᆨ 업을 리ᄌᆞᆺ지

발근텨혀어져 원쉬렴옴 낭구의 염죽올거두니
복올겁올둘어보살의내티올최빼그게소뒤올녀월
효정은 쌀남근터가타당작난줄변개부용검으로네
내티올배히피와보살이내티초어벽비소래혀근봄올
순죽최어어불쓴어호되어간뒤여더라최장이눈올보근
원숙거근활어추보소텬게술노아모게시어랑올군실되
괴이여지가원쉬내소활때여구러호정작난은그소탕올
연연햄의어죽가취평술근소탕이여으로다시원죽어엇
지감히작난수배시옹이불행준어신참이평거혀술변
나당이어저당근에져뎌우변심신공죽의혀다혼으며자
난을엇지살퇴보이의백옹중의쇠혀더올떠나다는
죽이되근올죄죽어뒤흥죽의근디가일모된괴다원숙
장용의와로용근활상공의죽용의이여근이거시퇴면

나와 슉근혀는 옷을 일흔ᄋᆞ신니가 도로와 나의 상흘ᄋᆞ
변쥬빈ᄅᆞᆯ ᄒᆞ완 취소이 제양흘 흉흉은 옥실 이만은 안불
이라 홍도국고 방이 당ᄒᆞᆯ줄 여 남방 통ᄒᆞ여 지이ᄂᆞ나
되이나 흉즁이 반다시 이울 뉘희 빈가 ᄒᆞ나이다 도로이소
되ᄂᆞᆯ게 모ᄒᆞᆫ 이울의 심즁 연나 탈회의 흉험을 비상ᄒᆞ병
을도 화보고 이샤 ᄒᆡ여 오래 되모ᄒᆞ되니 흉도 구엄졔엄슐
가 허ᄃᆞ나 쳐의 조원을 일외 셩ᄆᆡᆼᄒᆞᆯ 진셩게 ᄒᆞ여 ᄒᆡᄒᆞᆫ줄더
자일ᄋᆞᆫ 평병의 도즉이 ᄃᆡ즈 울로 흐르ᄂᆞᆯ을 ᄒᆞᆫ을 장아되
졔ᄒᆞ여 ᄒᆞᆫ텬 크게 소ᄅᆡ 즐여 오ᄅᆞᆫ 남방은 빈ᄒᆞᆫ 지극이라 ᄒᆡ
병편준와 ᄒᆞᆼ비쳘 지ᄂᆡ잉ᄒᆡ 쳘나오 도독이오 ᄂᆞᆯ오
쟝귀ᄒᆞᆫ 복식ᄒᆡ이 갓도다 ᄒᆞ올 급흐므로 보르 칙방
ᄒᆞᆯ비ᄋᆞ나 텬지의 오ᄒᆡᆼ재ᄀᆡ을 ᄒᆞ라 ᄒᆞ오 ᄉᆞᆼ회ᄒᆞᆯ ᄒᆡᄋᆞ이 잇
시ᄋᆞ 네젹을 어ᄀᆞ자 ᄇᆞᆯ고ᄃᆡ ᄋᆞ소 ᄒᆞᆼ훈ᄃᆞ은 이ᄌᆡ 보이여 ᄒᆞᆯ

아비 올흔 이ᄅᆞ기를 피ᄒᆞᆫ 줄 ᄂᆡ 미츠 지은 올 모로니
오시상국을 범ᄒᆞᄂᆡ 군신지의를 모롬이되 ᄂᆡ 횡명을 밧
즈와 효셩시러옴을 오비켠퇴 굴을 소켠고 져ᄒᆞᆯ 낭ᄂᆡ 잣
혼난 ᄒᆞᆺ 부도ᄒᆞᆫ 놈은 오ᄒᆡ ᄎᆞ 못ᄒᆞ리라 ᄒᆞᆯ 죄ᄉᆞ으 ᄆᆞ ᄇᆞ그ᄅᆞᆯ
쏘ᄂᆞ 츅영을 ᄂᆡ 술ᄂᆡ 왕을 부지ᄒᆞᆫ 인이 ᄀᆞ아 ᄯᅥᄂᆞᆫ 비지 못ᄒᆞ여
술이 ᄀᆞᆫᄃᆞᆼ 호노니 ᄇᆞᆫ 인주 ᄎᆡᆨ재 용이 잇ᄉᆞ며 편ᄒᆞᆫ 울혼
ᄃᆞᆺ거온 울가 ᄭᅳᆺ시나 시ᄋᆞᆫ 이물 황ᄒᆞ여 ᄋᆞ여 ᄇᆡᆺᄉᆞᆫ ᄂᆡ어
져강슨 헌ᄇᆞᆯ노 흉ᄒᆞᆫ 울 ᄲᆞᆯᄒᆞ순ᄆᆡ ᄂᆡ 쳐갓ᄂᆞᆫ 졍ᄉᆡᆼ올 보ᄒᆞ
강현셔 나ᄒᆞᆫ 츅의ᄂᆞᆫ 기울 버ᄋᆡᆼ ᄂᆡᄆᆡ 졀다 ᄒᆡᆼ혼ᄂᆞᆫ 고셔
지ᄂᆞᆫ이 ᄆᆡ다시 그ᄅᆡᆫ이ᄂᆞᆯ은 ᄃᆡ시 ᄇᆞᆯ나도록 비ᄒᆞ라 ᄒᆞ되 더연ᄂᆞᆯ이
이ᄅᆞᆫ 바난 화ᄌᆡᄒᆞᆫ 이라 살ᄂᆡ 돌그ᄅᆞᆯ 이ᄋᆡ와 부ᄒᆞᄂᆞᆫ을 가ᄒᆞ
쇠되오 무ᄉᆞ을 ᄇᆡᆼᄒᆞᆫ 여ᄂᆞ여 ᄯᅡᄒᆞᄒᆞ ᄃᆞ연ᄒᆞᆫ도 ᄋᆞᄒᆞᆫ ᄒᆡᆼᄒᆡᆼ
ᄒᆞᆯᄆᆡ 도ᄒᆡᆼ ᄒᆞᆼ왕으ᄅᆞᆯ 블ᄂᆡ 왕을 ᄀᆞᄒᆞ 왕이 ᄒᆞᆫ으ᄋᆞᆯ 위ᄒᆞ여 ᄒᆞ

즁일을 왓시더니 내로다가 ᄒᆞᆫ 상거쥭 ᄃᆡᆫᄒᆞᆫ ...
즁텬의와 이제 홍조쥭을 진평ᄒᆞᆯ 저업ᄉᆞ니 뒤 왕이 오샤
의작회여 평손을 셥ᄒᆞᆫ 혜ᄅᆞᆯ 빅셩을 교화ᄒᆞ여 다
시 반혀ᄂᆞᆫ 톄만이 업게 ᄒᆞ소셔 동쥭 즁에 ᄂᆞ려 계ᄇᆡ 왈
리 인이 평조의 은덕을 ᄃᆡ이 입ᄉᆞ와 임의 죄을 ᄉᆞᄒᆞ시신
셩ᄒᆞᆯ지 은혜로 더ᄒᆞ신지라 ᄒᆞᆫ 도죽을 ᄆᆡᆺ기시면 ᄇᆡᆨ쥭
을 오신 혜은 ᄌᆡ의 잇지 아니ᄒᆞ여 와 도쥭의 가 도 죄상을
심폐의 사이 되이다 도죽이 ᄌᆞ 스울 도졔ᄒᆞ여 ᄅᆞ 빅셩을 인
복ᄒᆞ여 흉호신의울 가라쳐 니 부로들이 ᄂᆡ ᄃᆞ로 아
강복ᄒᆞ더라 도죽이 ᄒᆞᆫ 군헐을 셔 쥭 ᄎᆞ 왕이 ᄃᆞ여나
와 ᄅᆞ 멸ᄒᆞᆯ 셔 홀원 ᄎᆞ거 ᄭᅵᆺ 쳐졀 ᄌᆞᄒᆞᆫ 거신의로 가
토뒤리 인 ᄋᆞᆫ 이 일 ᄂᆡ 일 ᄌᆡ ᄒᆞ여 ᄎᆞᆫ 평이 ᄅᆞ 이 ᄒᆞ여 평셩
죵쥭의 나가을 ᄇᆞᆯᄒᆞ여 ᄒᆞᆫ번 ᄃᆞᄉᆡ 평고 ᄒᆞᆫ즉 은

마음을 견잡지 못ᄒᆞᆫ지라 언연이지 종ᄒᆞ여
의뢰 원슈을 맛나매 평셩을 의탁ᄒᆞ고 ᄌᆡ훗쳬을
홍모ᄒᆞ여 ᄒᆞᆫ편되 ᄯᅩ나 인연을 ᄒᆞ여 거리을 일을지
아나 혜병 쎄ᄒᆞ나 고ᄉᆞᆺ지 조어 발늬 지꽃을 내ᄭᅩᆺ시
ᄉᆞ탕은 대슉슉이 일인이라 죄아한아 지못ᄒᆞᆯ나되
의평심이 여촌을 니원슈는 그평니을 의지ᄒᆞᆯ소 거국
여가로 쳬인로의 둘게 ᄒᆞᆯ여 츅소ᄒᆡ 연군의 일을쳐편
의 ᄎᆞᆫ을 잡아 평계ᄒᆞ여 연이 부왕의 손을 잡아 ᄂᆞ
물이 비오롯ᄒᆞ여 쥐왈 불초내을 ᄉᆡᆼ각지 마실
길이 만슈목 강ᄒᆞ소셔 죽 벼셔로 내 ᄲᅧᆯ의 평논을
이불 거록지 못ᄒᆞ다 도도ᄒᆞ나 빌ᄒᆞᆯ셔 쳘복당이
ᄒᆞᆫ뢰ᄒᆞ여 도둑이 흔 홍의 남은 ᄃᆞᆫ을 반연을 ᄒᆞᆺ상
쳘복당을 사장ᄒᆞ 을 봉ᄒᆞ여 ᄉᆡᆼ뇌을 ᄒᆞᆫ고ᄌᆡ공을
ᄃᆞ박으로 울ᄒᆞ여 상군 평을ᄒᆞ의 기리ᄒᆞ을이 리고 모ᄅᆞᆯ

연가운울내벼랑강울홍홍 [illegible]
타벼룰기는소뢰진홍ᄃᆞᆯ려되수삭울ᄉᆡᆼ내뒤훈
며한곳의이표커는황쳥갓가이혹훈뫼ᄉᆡᆨ뢰
보이날리과수이경온이다돌이조독거고왈이살여
욱아산이오졈화연이고이퇴잇고고즉제현낭이잇
다훈기룰도독이토병라티부르니심닉평되지라
더퇴나
도독봉셜남화신영뎨는 홍원슈니거이ᄒᆞ현훈
황셩은지의오게로국산퇴울버화보로최장삼
은의룰기는병웅이독나퇴업시불한둘ᄃᆡ환쳥
이ᄃᆡ혹헤로거퇴니다곳보는제키이니그소년의거울
청찬군리오도독이현낭이거폐헤는취소가갓
라훈니홍원슈울조진보이한셜낭이갓가

이잇다술불이그르쇨

나믈ᄉᆞᆯ뎌 ᄒᆞ더라 도ᄌᆞᆨ이 보ᄂᆞᆫ 도ᄉᆞᆯ을 …
리금 옥을 ᄂᆞ추어 죽이고 ᄉᆞᄅᆞᆷ이 블 ᄉᆞᄅᆞᄂᆞᆫ 줄 여션낭
을 려우 ᄒᆞᆫ 경ᄒᆞᆫ 뎌라 원슈의 ᄃᆡ그 이 탕ᄒᆡ야 가ᄉᆞ
이오 뉘 쳔 졍이 그 안의 이로 비 이 ᄯᅥᆨ상이 도두이 갓
가이오 믈 르드시 ᄃᆡ에 부 시 탕황 ᄒᆞ여 욕을 보기ᄉᆞ 도둑
을 ᄭᆞ지라 ᄒᆞ시니 황시랑은 뎐열련당ᄒᆞ여 흥낭
홍모를 드른 ᄎᆞ 흑 ᄒᆞᆫ 황 ᄒᆞ여 욕이라 그날 홍낭을 ᄎᆞᆺ
흉ᄋᆡ 너 그 도ᄯᅡ와 ᄯᅥ야 ᄒᆞᆯ 이 거거 보 ᄎᆞᆨ ᄒᆡ거
셰에 날 노 더 ᄒᆞᆫ 여 인 ᄒᆞᆫ 여 ᄒᆞᆫ 거 ᄒᆞᆫ 기야 ᄒᆞᆫ 니 비방 ᄒᆞᆫ
셩으로 ᄲᅧᆯ 조 일 년 ᄂᆡ 몃을 ᄎᆞᆺ 흥원ᄉᆞ 케 ᄒᆞᆫ니 신명의
죄 지으니 큰 거ᄉᆞ라 ᄋᆡ런 이 ᄋᆞᆫ 줄 ᄯᆡ헤 불을 ᄇᆞᆯ근 소ᄒᆡ
지 못 ᄒᆞᆫ 변방 ᄇᆡᆨ이 너라 ᄒᆞᆫ 여 일 ᄯᅢᆯ 큰 ᄉᆡᆨ을 갓가
미안이 경ᄉᆞ을 ᄒᆡᆼ ᄒᆞᆯ 네 슈년지간 ᄒᆞᆫ 주인을

옴이러치 줄니 그다 ᄉᆞ람이 쳬일된지라 텬뎌
아름다이 너기ᄉᆞ 예부시랑으로 불으셔 니일ᄇᆡᆫ
병귀 그 졀혹ᄒᆞᆫ ᄉᆞ람이 되물ᄅᆡ히 이내 기다려 황
시랑이 어병을 ᄲᆡᆺᄂᆞᆫ와 말ᄒᆞᆷ을 ᄒᆞ여 ᄇᆡᆨ 나바리그 ᄊᆞ
니시랑이 공북으로 져쳔이 ᄃᆞᆼ현대 도두이 ᄉᆞ란을
아ᄃᆞ쳐로 ᄯᅢ을 ᄲᆡᆺ친후 도두이ᄇᆞᆯ 건되 이ᄇᆞᆯ두졀실
안면이 익은 나과지 ᄋᆞᆼᄋᆞᆼ을 ᄂᆞ거 ᄋᆞᆫ이 ᄉᆞᆨ연ᄒᆞ여 쳔
빌님강 쳥상의 황ᄌᆞ셔 이어타 십니여 크게 깃거ᄒᆞᆷ
신ᄌᆞ될쳐 쇄지 몬의 기러기 올 쳔ᄐᆡᆫ지 ᄉᆞᆨ년의 이졔 ᄭᅥ
조보 니미 ᄯᅳᆺ ᄯᅥ여 ᄅᆞᆫ도 면인ᄃᆞᆺ 홀나 업강 쳥연 ᄶᅡᆨ되
양숙ᄂᆞᆫ 울거 여ᄒᆡ 실잇가 황시랑이 ᄃᆡ옹ᄂᆞᆫ 말ᄒᆞ
뎐에 불인ᄒᆡ여 운상 대두ᄭᅴ ᄒᆡ ᄭᆡᄂᆞᆫ 호니 중일 황
병을 ᄲᆡᆺᄂᆞᆫ와 넝에 운증ᄋᆞ을 ᄉᆡᆼ각ᄒᆞᄉᆞ 인ᄂᆡ의 ᄉᆞᆨ도 운ᄒᆞᆫ

홍ᄃᆞ시이ᄉᆞ왕ᄒᆡ여ᄒᆡ물ᄎᆡ이로조세로도이ᄒᆡᄉᆞ
그졀ᄂᆞ리다ᄒᆡ믈깃거ᄒᆞᆫ형ᄒᆡ더라황시뢰이부원
츅보기ᄅᆞᆯ쳥ᄒᆡ여도독이심니의그본ᄉᆡᆨ이ᄃᆞᆯ나
헤ᄂᆞᆫ게ᄒᆞᆫ을실소ᄒᆞᆫ너이ᄯᅩ공ᄒᆡ라●의손이ᄎᆞᆺ을
불너이ᄎᆞᆺ을일으ᄂᆞᆫ황시랑을원츅쟝즁으로보
내니시랑이원츅와ᄒᆞᆫ원을쳐ᄃᆞᆫ을ᄃᆞ리보니명
촌도치의손쳥이가ᄂᆞᆫ녹번홍이와아리셔온거
이쳥ᄂᆞᆫ헌거시상다강도를ᄒᆞᆫ홍쳐은이즁이ᄋᆡᆫ으나경
졸간셩각지못ᄒᆞᆯ지라니와져희와ᄒᆞᆯ말이황
실을ᄂᆞᆫ오ᄂᆞᆫ셰적ᄌᆞᆨ가의낭쳘을나대ᄉᆞ원츅의대
돼지용이쳔ᄒᆞ의옥제갓ᄎᆞᄂᆞᆫ 반셩이고ᄋᆡᆼ이ᄒᆞᆫ번보
기을원ᄒᆡ엿더니쳥은으로용당을샹ᄃᆡᄒᆞᆫ니영명
이라어ᄌᆡ지신리쇠이니타가원ᄒᆡ스일쳥당을

홀니일ᄂᆞᆫ젼의고일숨을드르며극일ᄂᆞᆫ소흑ᄉᆞ
슌황여욕을모로더니오다면이당와흥ᄒᆞᆫ말은
반항의즉작ᄒᆞᄂᆞᆫ자최조쳔은이ᄉᆡᆼ주젼며홍숙의
더된온모을ᄲᆡ오며못ᄒᆞ지안난반조술이라황시랑
이일ᄂᆞᆫ변복ᄒᆞ고형용을은둔ᄒᆞ니낭ᄃᆞ혼욕을면ᄒᆞᆫ뒤
홀ᄂᆞ되ᄂᆞᆫ듯ᄒᆞᄃᆞ쳥옹이키의싱이이ᄋᆞᆫ지라심녀의셜
각ᄒᆞ되키이엇지강낭혼의후신이아니나제간의이갓
치갓혼얼굴이잇시며혼낭은쇄목싱의후쳐이며
그ᄒᆞ나이잇ᄂᆞᆫ그도ᄂᆞᆫ더쇄가지톱스런흑녀이잇실이
호쟝ᄒᆞ여온모홍쟈여평음이엇지혼낭여갓혼ᄃᆞ니
의목도키일ᄂᆞᆫ흑의년거벗지나되니잇ᄂᆞᆫ연치되볼ᄂᆞᆫ디
싱오쇄도ᄉᆞ이아시랑이소ᄇᆞᆯ원칙ᄒᆞᄂᆞᆫ셩을흑이시ᄂᆞᆫ도
마나ᄅᆞᆫ의거니재시변온모셩음이쾌갓ᄌᆞ며되ᄉᆞ나

이외이유이생각ᄒ더니소왈왕후의외모로짐작ᄒ건
귀셤졀ᄒ는지나지못ᄒ던ᄃᆺ을나이다홍낭에는발
을통ᄒ생각ᄒ되비록ᄌ승을ᄎᄌ셰시나오히려네나
을잇지아니ᄒ리이갓지더로이ᄌ나어지오음지아니
러오이의ᄌ평연셕ᄂ뒤왈진복ᄒ거게ᄂ나ᄂ쳐
나엇지나올수이리오이연시랑이홍ᄒᄂ말을이ᄂ보
즁시ᄇ초초이다ᄒ시랑이고홍ᄂ패ᄒ다ᄒ이의다서
도독장졍의와소왈승상이낭평ᄂ여간셩지긔을에
려ᄌ가의말ᄒ이라고홍모올보건ᄃ녀ᄌ의긔상이잇
시어ᄂ이ᄒ더이다도독이소왈착ᄒ은방은상길의ᄂ다
셔아고얼굴이복인갓라ᄒ내흉탈의녀ᄌ긔상을의
심ᄒ리오이의홍왈권슈을볼내왈낭이황시랑을보
며반갑지아니ᄒ냐홍낭이소이ᄃ왈수년지

간반ᄉᆞ며꽁과며반강ᄒᆞ반강지아니ᄒᆞᆯ모로오니
을원조모르ᄂᆞ이다도독이소ᄅᆞᆯ황시랑은낭의울어
라편당호롱가아녀변부원슈공명이시리오홍낭에
옥여왈황시랑은본ᄃᆡ불ᄃᆡ홀인ᄂᆞᆫ불이재시ᄇᆡ보강
낭홍다칠룡룡룡달물ᄇᆞᆫ간ᄃᆡ못ᄒᆞᆫ우옥우울ᄒᆞᆫ이
나고의인이변ᄒᆡ며ᄒᆞᆫ건지작의도운며ᄒᆞᆫ서ᄂᆞᆫ앙강졀
상와낭ᄎᆞᆺ는장안오라는라게엄숄가ᄂᆞᆫ니이다도독
이ᄀᆞ러타이의간ᄒᆞᆫ을며ᄉᆞᆫ련을ᄃᆡ평ᄒᆞᆫᄂᆞᆫ황시랑이
도독다쾌아니ᄒᆞᆯ레ᄂᆞᆫ병일쳔본장계황ᄒᆞᆫ동이쥐일ᄃᆡ
제ᄂᆞᆫ좌의장ᄒᆞᆫ동조ᄉᆞ생이쥐이ᄉᆞᆷ되리ᄂᆞᆫ도독다일침ᄒᆡ
군을거ᄂᆞ뫼통ᄒᆞᆫ이뫼ᄂᆞᆫ숄아쟤쥐오다뫼ᄂᆞᆫ소ᄉᆞᆫ비는
후ᄂᆞᆫ이뫼여쾌후뎨되여일ᄂᆞᆫ긔ᄂᆞᆫ원슈이헝거올다
로려라삼군장ᄉᆞ의ᄉᆞᆫ을거오ᄂᆞᆫ비업ᄂᆞᆫ뎌ᄅᆞᆯ회오며김궁윤혼홈

평셩간가이ᄂᆞᆫ ᄅᆞ레 쳘봉이 가득ᄒᆞ이 ᄂᆞ니 원위ᄂᆞᆫ
의하와 아ᄌᆞ을 기다리더니 본쥬ᄅᆞ 가ᄋᆞ여 진쳔ᄒᆞ녀 ᄅᆞ륵
이백만대군을 거나려 볼의 이ᄅᆞ러 북군ᄒᆡ야 ᄌᆞ시 볼
뵈오니 효ᄌᆞ의 녕모리 화ᄒᆞ엿더ᄅᆞ 티오 빌리니 재부쳔
의 쳘ᄌᆞᄅᆞ 기간ᄌᆞᆫ 독을 ᄆᆞᆺ ᄌᆞᄅᆞ 쳥ᄒᆡ 연강ᄌᆞᆫ 시ᄂᆞᆯ 긴
발ᄉᆞᆯ을 아ᄌᆞ지 못ᄒᆞ여 ᄀᆞᆫ이 겁츅ᄒᆞ야 내슉이 쳔금 변
ᄒᆞᆫ ᄃᆞ니 죽기가의 흉복이 ᄂᆞᆫ오 본의 ᄃᆡ평이 ᄒᆞ여 쇄 ᄒᆞᆫ생
이 변네 나오ᄂᆞᆫ 녀을 기다리시니 밧비 조현게ᄒᆞ라 ᄒᆞᄂᆞ 죽
이 죽시 ᄃᆞ래가 너어 ᄇᆡᆨ울 놉히 ᄅᆞ어리 ᄒᆞᆫ 남은 ᄒᆞᆫ 동편
ᄒᆞᆫᄒᆞᆫ을 기다리시ᄂᆞᆫ 지라 ᄎᆡ 군평ᄂᆞᆯ 이ᄒᆞ야 ᄂᆞᆫ이 담편
의 나아가ᄂᆞᆫ 온 슉비의 ᄉᆞ토만 ᄒᆡ ᄌᆞ나 삼ᄌᆞ 졀ᄂᆞᆯ 이 승편
ᄅᆞ을 올너ᄅᆞ 쭈얼 북ᄌᆞᄂᆞᆫ 소리 진ᄌᆞᆫ 이ᄒᆞᆫ 상이ᄅᆞ

독을담졀여인견ᄌᆞᆯ슨빈기시는옹안의희
석어ᄂᆞᆫ들시ᄃᆞ옥옴어켠ᄃᆞᆫ슨기간측ᄃᆞ을위옥더실
서가지가이나 오는옹모통쳐졀일고더옥언건강
대ᄌᆞᆯᄃᆞ통쳐동인ᄌᆞᆯ여옹조의거상이퍼경이져
냥주도책을삭평즁내공이크ᄃᆞ슌직을안보ᄌᆞᆯ내쟝
치수부어스ᄅᆞᆯ경의승을강ᄒᆞ되오ᄅᆞᆫ세ᄃᆞ옥비의향운
물마록부어도록을죽시내ᄒᆞᆫ흉탈이년소나져조
죽난외즙재시의도온승어쥥리ᄅᆞ난순직의만해와
라림이경동을두어와시내부ᄒᆞᆫ근셔이안실이오ᄅᆞᆫ시
너ᄂᆞ독이여츅을밧ᄌᆞᆫ일을되며쳔운이유옥ᄌᆞᆫ셩치
여ᄌᆞᆯᄌᆞᆯ오시니신동이잔계도디ᄒᆞ나민의일을을리감지
못ᄌᆞᆯ리ᄌᆞᆯ소이다상이갈아순디날이임의늣ᄌᆞᆫ경어라
넌씨쳑가온대빈쳬ᄃᆞ원고휭여의근헐거서오경

의부모기라 ᄒᆡ미 간절ᄒᆞᆫ 쥴 ᄯᅡ나 일ᄃᆞ이 불 내가 다ᄒᆞᆫ사
ᄅᆞ 화ᄅᆞᆯ 쥴 ᄉᆡᆼ이 도로이어 ᄀᆞ울ᄉᆞ 외ᄅᆞᆯ 녀 부외ᄅᆞ녀ᄃᆞ로
의 ᄭᅩᆺ 보ᄂᆞᆫ 너 귀ᄒᆡ나 ᄃᆞᄅᆞ 년연ᄌᆡ을 칭찬ᄒᆞᆯ 뎌으로 부ᄅᆞᆯ
의 이르러 부궁을 뫼셔 ᄇᆡ당의 ᄃᆞ러 가모 부인 거뫼
암ᄅᆞ 그ᄉᆞᆫ이 셩쵀 안강ᄒᆞᆯ서 모ᄅᆞᆯ 깃거 ᄒᆞ는 표ᄅᆞᆫ의 ᄅᆞᆯ
려ᄒᆞᆷ다 부인의 ᄯᅳᆺ거오미 엇더ᄒᆞ리요 그 손을 잡
아어린 ᄃᆞ시 아ᄌᆞ의 얼골을 바라보아 슉이 발을 ᄆᆞ
ᄅᆞᆯ ᄃᆞ도 독은 부모인 셕이 ᄒᆡ되시니 염ᄉᆞ 물 깃거인
셕의 ᄃᆞᆯ ᄐᆞᆼ화 거셩ᄒᆞᆫ 쥴 나편ᄒᆞᆫ 쥴 너ᄒᆞᆷ 불ᄒᆞᆫ 족
셩신 ᄎᆡ활ᄒᆞᆫ 녀을 보기 온ᄃᆡ 동탕ᄒᆞᆫ 편ᄒᆞᆫ 쥴이 더
옥빗나ᄃᆞ ᄃᆡ 유화ᄒᆞᆫ 쥴 나 부인이 희ᄉᆡᆨ으로 ᄀᆞ기 간별
뢰을 일 너 슉 여 ᄒᆞᆫ 담의 외리 이온 징이라

흥외부는 눈대닥 글라 나가니라 ᄒᆞ시ᄂᆞᆫ 낭이
몸의입을 뫼열욱이 몸외의 나와 그쥭인을 ᄲᅡ즈
뫼를다가 욱의염ᄂᆞᆫ 렴다 쾌롱의 삼별를 ᄲᅵ감이
ᄲᅡᆯ를 저못 헐저라 어린드시 곳보ᄂᆞᆫ 뎐인 간커보
다가 원쉬 범와 흥몸의 들며 ᄲᅡ천의 나아가 절
ᄒᆞ니 원쉬 연욱을 보ᄂᆡ 섬뫼 흥를여 기간 부슈에 엿
런바울 슈어 봇ᄂᆞᆫ 옹부인 침소울 부름ᄂᆡ 연옹이
함수를 내인 드를여 소쳐 침소의 ᄲᅡᆼ이 드려가니 슬
쾨ᄲᅡᆺ참도 록울보ᄂᆞᆫ 소리를 뎌 침스의 왓다가 흥낭
울ᄲᅡᆫ나니 흥낭이 소뫼의 손을 잡ᄂᆞᆫ 낭항 쳐 보ᄂᆞᆫ 렴은
쳑쇠 ᄲᅡᆯ을 몰를 니소 쳐 ᄲᅡ즂낭으며 ᄒᆞ뫼 뢴 ᄲᅵ욱의

의영졔왈 홍낭이 네 능히 ᄉᆞ다셔ᄅᆞ인을 찻즈ᄅᆞ다
홍낭이 ᄃᆡ왈 쳡의 몸은 님의 죠은 몸이여눌이
졔다시 소뢰을 ᄇᆡ오나이다 가더이나 잇ᄃᆞ이의 쳔조
븟들ᄅᆞ 잉실을 어별회을 발줄 뫼복 궁현쳔회 후
담흑호를 더ᄒᆞ 소졔 본왈 슉홍야 ᄎᆞᆫ 혼심낭이 죽엇
난가 어리리엿나냐 홍낭이 곳ᄌᆞ ᄃᆡ왈 소삼낭이 쳡을
곳ᄎᆞᆫ 존준 쥴엿다 가져 증박거 이나이다 소졔 거이히
네져녕 욕으로 볼으라 ᄃᆞᆯ네 손안쳐 녕을 이어 엄
니ᄒᆡ여 소졔 거ᄆᆞᆯ 안 ᄃᆞᆯ네 소졔 반져왈 쳑일 옹모와
말을으니 뢰여 발어 보기 어렵ᄃᆞ다 날노 일렬ᄒᆞ여 슉
쥭왈 지졀가 니 실쳑의 잇지 못ᄒᆞᆯ 엿더 어엇지 화실
현노 장이 ᄃᆡ롤 알녀 쥬가의 빌홈이 빗날

쥴알앗시되야쳐지왈이ᄂᆞᆫ다쇼져의죽신
베오월슉의리시현베ᄒᆞ쇼이다ᄒᆞ더라도둑이후
왈별당을쳐드러ᄒᆞᆫ낭의ᄎᆔ쇼을평을니ᄒᆞᆫ낭
이슈아쳐일리연연유을다되ᄂᆞᄎᆔ쇼로가아라
시야의도둑이난칠을뫼쳐로용이발슐ᄒᆞᆯ션
슨이흑연변셕ᄂᆞ그간쳔낭의흉과을ᄃᆡ강일으
ᄭᅧ왈네아비키뵉ᄂᆞ군어두어가ᄂᆞᆫ울아리뭇ᄂᆞᆫ나
나너ᄂᆞᆫ알아쳐치허라도둑이ᄎᆔ셕뒤왈이ᄂᆞᆫ다ᄒᆡ
아의ᄌᆔ라복졀엉시쳔협을질연ᄂᆞᆫ녀슐ᄒᆡ의
이욕을ᄭᅵᆺ쳐오니죽뢰ᄂᆞᆫ나빗쵸를이가면어아이
일이광디이되여연단의상쳐편평의일오시에
되오나소ᄂᆞᆫ뫼ᄂᆞᆫ단혈을일이안닐가ᄂᆞᆫ나이더이의흉

낭이져셩을에도손을밧나개로을변되니다의주
완장으로왓더가셩공헌혼혼랄이번복강남
이불쉐ㄴ이알외니응의침묵흘므로도병둥차
한줄ㄷ부인이흑연왈백인이우아이셔라되
의츅쳘은원지되니널느비로소물네가양츅
연장잉이너기더니어지순라반나박거가만나가
울거졀흘뒤을연니나어지순라낫다흔든보도
독이모견부로서물웅줄너울시규츅젹의ㄷ게
됴주슐귀흔쵼삼낭을시여견지됴흔일이감쵸지
못소연이도러나니공이소려의부더의진셜흔블안비
나서로이궁의부벽흠외쥴너회든인셔왈흔즉
홍낭은손닷시변은삼낭은언괴쳐보도독이

손야치더르을베화ᄅᆞᆫ이ᄌᆞᆨ고이여볼ᄂᆞ
ᄒᆞᆯ나복인이심ᄒᆞᆼ뵈리ᄒᆞᆫᄒᆞᆫ여셩각ᄒᆞᆫ데하나ᄒᆞ이
심이ᄌᆞᆨ국을모혀ᄒᆞᆫ거ᄉᆞᆯ일던운여ᄎᆞᄌᆞᆯ나어기인외
현우ᄎᆞᆫ혈은의다ᄒᆞᆯ나이가ᄌᆞ치진이ᄒᆞᆯ다오ᄒᆞᆯ내ᄒᆞᆼ
시와외인을서조안기며와ᄒᆞᆫ야을조독이며ᄌᆞᆼ을
뫼셔자라ᄃᆞ이일도독이올복을갓초ᄃᆞᄒᆞᆫ뵈ᄉᆞᆨ여
거휘을보ᄒᆞᆫ키ᄒᆞᆫ낭이ᄃᆞ왈ᄐᆡ이일시젼ᄒᆞᆯ광
ᄉᆞᆨ키몬젼여상즁을외ᄒᆞᆫ이오나ᄒᆞᆼ운도파오ᄂᆞᆫ버술
을ᄉᆞᆫ별리볼ᄒᆞᆷ도상ᄌᆞᆼ을조ᄎᆞᆫᄒᆞᆼ은ᄒᆞᆫ여일바리ᄌᆞᆨ
을도오ᄇᆡ옥즁일ᄂᆞᆫ혼ᄒᆞᆫᄒᆞᆫ리의다시ᄃᆞ터가ᄂᆞᆫ이쳥
뵈ᄉᆞᆺ지아녀와볼기ᄒᆞᆫ오ᄇᆡ여터가지여실상을알외
ᄃᆞ리ᄒᆞᆫ아이며ᄒᆞᆯ나도독이쳐광을거아뎌조회ᄒᆞᆯ나샹

이조회밧드실셔혼동탈의불쳠흔몰믈으시더
한님학ᄉᆞ셔일강조흠을가려탕쳔의올나ᄂᆞᆫ기로의
쌀션쳥흉흠탈은본이향축절기라하시여쳔의
셔낡으니상이듯음시다가하연실셕을소리우을
보시며갈아ᄉᆞ대이셔이낡은되이엇진말이보슨시니
쳡쳥흉흔탈은본이향축쳔기로혀병되거
박히여조근하의놀난몸이창히일속으로과ᄉᆞᆫ
셩을도음쳔만니의욕완막비라섬신도단의도
동으로장흉을ᄃᆞ절벽흉쳔의장축조타신을
본ᄃᆞ국의도라오기물외를네브ᄂᆞᆫ병을바라미이
너러니뜻밧기일흠이조졍의들니ᄂᆞᆫ베살이거장
이되옵나ᄂᆞᆷᄃᆞ현각의입의항홀펌비ᄒᆞᆫ

와거ᄒᆞᆫ지계를도망치못ᄒᆞ리로소이다ᄒᆞ여
ᄯᅢ잠시ᄉᆞ은ᄒᆞᆫ오문현은을ᄉᆞ혜ᄒᆞ오미오나다시ᄌᆞ옹
의당ᄒᆞᆯ이참ᄂᆡᄒᆞ온두이ᄂᆞᆫ즈부을길게거ᄒᆞᆼ
ᄒᆞᆫᄃᆞ로현을언연이조릉ᄒᆞᆫ미라복원ᄐᆡ하ᄂᆞᆫ현
지부므시라신협의여ᄀᆞᆯ지정리을살ᄒᆡ보사
부원숙인숙을삭ᄒᆞᆯ시ᄂᆞᆫ거ᄒᆞᆫ긔죄을더ᄒᆞ리시
현책을발키ᄉᆞᆫ셔ᄒᆞᆫ엿더라
상이ᄒᆞᆯ몸을ᄒᆞᆯ으시ᄂᆞᆫ도ᄅᆞᆨ을각가ᄒᆞ여인결ᄒᆞᆫᄉᆞᆫ현여
부로서ᄂᆞᆫ도득이ᄒᆞᆫ숙ᄒᆞᆫ여죽왈선이거ᄒᆞᆫ긔죄ᄉᆞ리ᄅᆞ
초소이다상이여우오시ᄂᆞᆫ욕용이컨ᄂᆞᆫᄒᆞᆫᄉᆞ왈이ᄂᆞᆫ죽기-
을외ᄒᆞᆫ여그러조을빌ᄂᆞᆫ져ᄒᆞᆫ이ᄂᆡ그지셔ᄃᆞᆫ물드못ᄒᆞ고
을그라도득이황ᄒᆞᆼᄒᆞᆫ여이외알외다ᄒᆞᆫ거부거ᄒᆞᆯ라

되소죽을지나다가흉을맛난일을다편당호의알죽
히여죽은가들엇다가련상의ᄇᆞ나관도로부린일
쳘을죽을온데상이다서부로서데부삼일노쇽
즁의쌔거여엇저들네소라나물부로서여도둑이
여러발의혐의뎐발로잇ᄂᆞ그쳥기쳔즁으로빅
랑현상편하이알몬데셔나그졀디을말즁뎨디
왈그일은신이존셔이아져못즐오나권뤄기여지금
가지둥거지인이잇순운나순야쳐을불으순흉도지
베을하몬즐시면손셔이아로실가는나이라면즉
라뫼상이은야쳐을불오쟈즐신도둑이즉왈기
인도분이하즉쳔인으로일이준조즐와즁근즐엇
손우나흉흉을탈라갓되잉즈죄야여즐내이다

상이하 ᄌᆞᄒᆞᆫ 손야ᄎᆡ을 불으ᄅᆡᆨᄒᆞᆯ 시다 ᄉᆞᆨ욕
의부병ᄌᆞ 온귀상이 갓아이 나아 오라ᄒᆞᆫ손 하고ᄌᆞᆫ 손왈
베가 ᄒᆞᆼᄒᆞᆫ 탈의 자ᄌᆞ 거ᄌᆞᆼ을 다연다ᄒᆞᆫ니 일ᄂᆞ온
이리 빌ᄂᆞᆫ 자쇠이 알ᄂᆞᆫ의라 솔야ᄎᆡ 복북ᄌᆞᆨ 일ᄂᆞᆫ 신온 본
이ᄒᆞᆼ ᄌᆞᆨ구술 ᄆᆡ여 셩되히 옵던니 할ᄂᆞᆫ 형ᄌᆞᆨ ᄒᆞᆫ소ᄉᆞ
도이셔 부ᄅᆞ기의 가셔 고ᄉᆞ쳥을 보온즉 그 소쳔ᄂᆞᆫ 지금
시엄더 신을 ᄒᆡᆼᄒᆞᆫ 내아ᄅᆞᆯ 부더이 ᄅᆞᆯ 인ᄒᆞᆫ 손이ᄅᆞ 패을
피 금창 개일ᄂᆞᆫ 인이 ᄌᆞᆨ기을 ᄒᆞᆫ 부ᄒᆡ여 거금의 ᄉᆞᆯ 라나
갓셩이 반일 불된 현일이 잇거든 견뎌인 병을 수ᄒᆞᆯ
변ᄒᆡᆨ 쳔도 되ᄆᆞᆫ 온ᄌᆞᆫ을 후상ᄒᆞᆯ 되라 ᄒᆞᆫ양기 불시 물외
된 ᄇᆡᆨ 칠팔십 니ᄂᆞᆫ 백ᄂᆡ을 단니ᄂᆞᆫ 불셕이 암기ᄒᆡ라
ᄒᆞᆫ가 보온즉 다연 모년 모일 뎐안ᄒᆞ고 ᄌᆞ고ᄇᆡ이 ᄌᆞᆯ탕ᄒᆞᆫ다

가[illegible]이되표일생의시신이여아져가기견져염ㄷ
빠르나갈지시나악옥순변이리헐순탐이잇시니
그졍기는한죽제일방쳥구의스몽난강남홍이
가무법졀이일음의스몽나는쟝기로평누실년의
비상일홍이정향이되오나마옹의맛난져이나변혀
실치안이채헐셕갓훈편심을조물이그졀조을
회괴으되죽음을달게여져죽요이되되연다가근
빅나을신치을영ㄷ가다가어셜빈나져우조셜훈엿
다가홍낭의밀내니온남가지간발나타의구병
올인줄여왓다가졍졀시낭된속을밧나병권의홍
군현훈둑지미이베훈니말숨이차헤잇셔옥쥭지
연이안졀의베퍼시니졀신졀헌기연신게

이ᄂᆡ기ᄂᆡ복의이화조용소져의흠으로현ᄒᆡ뇌
ᄃᆞ려나니상이용안을쳐사갈아ᄉᆞ대거져ᄂᆡ보려라쳔
ᄅᆞ의드믄일이로다ᄒᆞᄂᆞᆫ탈을일리병장으로아닛
더나여지열협저ᄒᆞ디이장ᄒᆞ믈알앗시ᄂᆡ창기
로될리여ᄎᆞᆫ들여절부의볼그럽지아니ᄒᆞ도다ᄒᆞ신
비답ᄒᆞ시니왈
괴이ᄒᆞ다견의일이여ᄎᆞ나라난선싱인의ᄂᆡ뎌
람베ᄂᆞᆫ엿시니국가의운인ᄂᆞᆫ배다반그려조을보
ᄃᆞ취될제니여지남녀을분별ᄒᆞ리요정은나
라의쳔ᄎᆞᄂᆞᆫ베살올ᄉᆞ잉쳐알나국가을길
게도와현명을거ᄉᆞ리지말나ᄉᆞ아ᄒᆞ의국연
을드로니뉵시상졀ᄒᆡ지벼이낫싸ᄅᆞᆫ절리ᄒᆞᄂᆞᆫ오

히려그일병을지보ᄂᆞᆫᄯᅥᆺ거ᄂᆞᆫ붑이ᄯᅥ뎡쳔
기로ᄂᆡᄂᆞᆫ졀ᄃᆡ어ᄂᆞ리아ᄒᆞᆷ당리ᄃᆡᄂᆡᄃᆡ오작
일ᄌᆞ외의셔ᄂᆞᆫ셔이못보앗기ᄃᆡ시볼ᄂᆡ보ᄂᆞ
텨ᄂᆞᆯ나난쳔주ᄂᆞᆫ시임귀신으로포평ᄒᆡ연의
온단회블을기로아ᄂᆡ부로나ᄃᆡᄒᆞ짐이ᄇᆡ구르
거ᄂᆞᆫ낭ᄇᆡ으로ᄇᆡᄅᆞ블웅ᄂᆞᆫ듸ᄉᆞᆫᄉᆞᆫ가ᄒᆞᆼ의ᄒᆡ
상셔ᄒᆞᆫ일ᄋᆞᆯ외ᄒᆞᆫᄒᆞᆯ셋더라
도독이ᄌᆞᆫ슈ᄌᆞᆨ왈ᄒᆞᆼᄒᆞᆫ탈이시ᄎᆡᆨᄅᆞᆼ진외견아리ᄂᆡᆨ
을ᄃᆞᆫ다ᄒᆞᆯ오나ᄀᆞᆫᄂᆞᆫ본을ᄲᆞᆯ슬허울긴ᄃᆡᄒᆡ가ᄇᆡᆨ을
의ᄒᆡᄭᅴ오니셜의ᄲᅧ살인ᄌᆞᆨᄒᆞᆫᄒᆞᆫ탈의ᄂᆡ살ᄌᆞᆨ셔
ᄭᅴ라ᄒᆡ일ᄂᆞᆫ리ᄭᅴ쳔뎐ᄂᆡᄂᆞᆫ로ᄒᆡᆼ조련작이블ᄀᆞᆯ오
니환ᄉᆞᆨᄒᆡ시블리ᄌᆞᆨ시ᄭᅴᄉᆞᆫ리온단ᄃᆡᆯ가ᄂᆞᆫ나

나이다 상이 갈아ᄉᆞᄃᆡ 경이 인뢰을 앗게 짐의
간셩지신을 앗스니 이 짐의 ᄇᆡᆺ던 ᄇᆡ 아니로다 짐이
혼ᄒᆞᆫ 쥴을 불으ᄂᆞᆫ 뢰ᄒᆞᆯ 나ᄃᆡ 신의 솔실이 보ᄂᆞᆫ대
렬을 여 못ᄒᆞᆯ 나 벼살은 ᄉᆞ양ᄒᆞ여 못ᄒᆞᆯ 터라 ᄒᆞᆯ시ᄂᆞᆫ 이의
공과 복을 상ᄒᆞᆫ즉 셔어원 추의 울지 보랴ᄒᆞ온 일은도
빌ᄂᆞᆫ 흉ᄒᆞᆫ 탈의 신ᄒᆞᆯ 치물여 ᄒᆞᆫ은 도술지 법이
지졍ᄒᆞ 지모ᄒᆞᆯ여 와구지심 다 보ᄌᆞ기 ᄒᆞᆫ이 실셩을
ᄉᆞ지 ᄆᆞᆫ련 위덕으로 도욱ᄒᆞᆯ이 필경 나ᄂᆞᆫ 도둑이 아니
번흉ᄒᆞᆫ 탈의 젹쇽ᄒᆞ엿ᄂᆞᆫ 흉ᄒᆞᆫ 탈이 이여 ᄇᆞᆫ 도둑의 ᄇᆡ
외엄ᄉᆞ퍼ᄂᆡ와 군보쥬의 온위로 강젹을 사뎐ᄂᆞᆫ
ᄉᆞ젹이 희비ᄒᆞᆯ 나 상이 ᄀᆞᆯᄋᆞ이 졍판ᄒᆞ시ᄆᆡ ᄃᆡ이 졍탄
풀ᄉᆞ 도둑 ᄂᆡᆫ 광쥬으로 ᄯᅥᆫ 왕ᄉᆞᆷ을 봉ᄒᆞᆫ 순우ᄉᆡᆼ 신상을 졈

ᄒᆞ시ᄂᆞᆫ 동혼달노 난셩후 졈벙 부상ᄎᆡ을 봉ᄒᆞ시ᄂᆞᆫ
횡ᄌᆞ손 ᄭᆞ솔육견으로 ᄒᆡᆼ부상ᄎᆡ어손 뒤복을 겅
ᄒᆞ시ᄂᆞᆫ 뇌쳔룡으로 상정ᄒᆞᆫ 을베ᄒᆞᆫ 서ᄂᆞᆫ 롱로 ᄭᆞ달노
쳔ᄂᆞᆫ 좌우장군을 비ᄒᆡ서ᄂᆞᆫ 솔야 좌ᄂᆞᆫ 좌로장ᄂᆞᆫ을
비ᄒᆡᄂᆞᆫ 기여 ᄎᆡ장은 각ᄂᆞᆫ 상작ᄒᆞᆯ 서ᄃᆞ 도독이 우죡ᄒᆞᆯ
여ᄅᆞᆫ 이쳑ᄂᆞᆫ 왕각이 불가ᄒᆞᆫ 물죡ᄒᆞᆯ ᄂᆞᆫ 지어 동혼달
이ᄒᆞ 방ᄭᅴ 쳔지 녀ᄒᆞ 벼살이 복당ᄒᆞᆫ 옵ᄂᆞᆫ 솔야ᄒᆞᄂᆞᆫ
강남ᄉᆞ 탐으로 홍혼달을 ᄒᆞᄂᆞᆫ 이념다 봇ᄒᆞᆯ 온나 달
직온 부당ᄒᆞᆫ ᄂᆡ거륵시물 바라나이다 상우ᄋᆞ 시녀
갈이ᄉᆞ 대우ᄒᆞᆫ 철 란은 ᄌᆞ가옹인지 벙이 ᄂᆡ 작ᄎᆡᆸ
을 ᄎᆔᄂᆞᆫ 횡증 쳔 난을 상ᄉᆞᄒᆞᆫ 서ᄃᆞ 상이 쇼ᄒᆞ과ᄒᆞᆫ 사
난셩후 홍혼달이 ᄌᆞᆫ이 엽ᄒᆞᆯ 거서 나 자 증셩

졔일방의 연왕복을 연ᄒᆞ여 난셩부을 짓ᄂᆞ
가등노ᄇᆡ 젼결을 슌금ᄒᆞ시ᄂᆡ 황금쳔단을 샹슌
ᄒᆞᆯ시니 홍혼탈이 려숨ᄂᆞᆫ 인ᄒᆞ여 샹소ᄒᆞᆯ나 샹이 불
윤ᄒᆞᆫ사 다연왕이 왕작을 더ᄒᆞ시니 북양현으로
태야을 봉ᄒᆞ시고 보부인으로 뢰모을 봉ᄒᆞ시고 을 황
난부인을 윤소뢰는 연국샹원부인을 봉ᄒᆞ시고 황소
져ᄒᆞ원부인을 봉ᄒᆞ시다 올각노을 조라 보ᄂᆞᆫ 왈 경ᄃᆡ
이향쥬ᄂᆞᆫ 소ᄌᆞ 이셜ᄒᆡ의 경의 ᄂᆡ양 뢰향국의 졔ᄒᆞᆫ 혼
탈을 주ᄂᆞᆫ다 ᄒᆞᆫ 나가히난 쳥국의 거과돼귀 샹쳑ᄒᆞᆫ
ᄃᆞ 홍혼탈의 샹원되메 ᄒᆞᆫ 으로 미엽다 ᄒᆞᆫ 혈관ᄒᆞᆫ 순금은
쳔단을 슈송ᄒᆞ시니 이을 보아 조서 인이 경제ᄒᆞᆯ 일이
윤소뢰는 현 종긔 셩은 으로 셩이 기ᄃᆞ린 셩ᄒᆞᆫ 편 심이

무심이작ᄉᆞᆯ나소연이에길마음을쳥뎡ᄒᆞ오못ᄒᆞ
퉁시는주ᄉᆞ아탁ᄒᆞ여모녀간베울을다ᄒᆞ며ᄇᆡ회을
모아셩각ᄒᆞ는ᄃᆡ홀저물반터비를ᄒᆞ며물ᄲᅮᆫ는ᄃᆡ홀
츄ᄇᆡ별은천하의쳘가ᄒᆞᆫ신병강ᄒᆞᆯ을ᄒᆞ며조복
울강ᄒᆞ나오ᄇᆡ저복이남아우으로천ᄒᆞᆫ이가ᄃᆡ옹ᄉᆞ
ᄒᆞ시ᄃᆞ주ᄃᆞ의인되리심이고아간을보나눈을감ᄃᆞ가
복와만ᄒᆞᆷ험ᄒᆞ며ᄒᆞᆫ날들여화우심은조일선ᄌᆞ쳑은
여편여자ᄒᆞᆫ나신혼시부혀츄병이셩가ᄒᆞ니조ᄉᆞ쳑
의을나식ᄒᆞᆫ의리면ᄒᆞᆫ는비되ᄃᆞ당시인의석지탐을
맛낭이여지견계피아닐베ᄃᆡ옵이쉐면왕이조회을
ᄒᆞᄒᆞᆫ되조ᄉᆞ려ᄒᆞ더니상이갓가이인견ᄒᆞᆫᄉᆞ가만부ᄒᆞᆫ
갓치조용ᄒᆞᆫ당물시며가목조시ᄃᆡ경에출천ᄒᆞᆫ후
가츙의오란리ᄉᆞ잇는가시부거여와징이엄기

로경의소실을장간께ᄃᆞᆫ향의보기와ᄒᆞᆫ븐
가충ᄒᆞ을길평ᄒᆞ여ᄉᆞ다가경의될가ᄒᆞ믈기다
이ᄲᅵ라경은ᄀᆞ되치ᄇᆞᆯᄂᆞᆫ못되로쾨ᄒᆞᆯ대두거ᄂᆞᆫ며
ᄂᆞᆫ의예ᄉᆞ일이어단셔울축장ᄒᆞ여화복기룰셩
각ᄒᆞᆯ라염왕이ᄂᆞᆫ슉ᄒᆞ여벽션의일을대강ᄒᆞᆯ
텬하상이져상화복ᄒᆞ여ᄇᆞᆯ엄기을축장ᄒᆞ라ᄒᆞ시
더라염왕이ᄉᆞᆫ은후붑내로라오ᄂᆞᆫ길의올가ᄂᆞᆫ복을
의빌으니복인이반가우믈이거지못ᄒᆞ얀지어홍
젹을ᄎᆞ탕ᄒᆞᆯᄂᆞᆫ평인이되ᄒᆞᆫᄒᆞᆯ물치하ᄒᆞᆯ며쳔히측
친을평비ᄒᆞ여쳔을내람ᄂᆞᆫ이키총ᄒᆞᆯᄂᆞᆫ은ᄂᆞᆫ이되평ᄒᆞ
여ᄲᅵ련ᄇᆞᆯᄒᆞᆯ옷치고다니아내알ᄒᆞᆫ상의반거비ᄒᆞ듀
쳥ᄒᆞᆫ이시나작위령ᄋᆞᆫ굽ᄒᆞᆫ사왕ᄒᆞᆫ귀인이되시나

도로하고셔의아리셔은즌미을보ᄅᆞᄃᆞ의면이뒤번의
즌경ᄌᆞ심이나어위안복긍평히을다못하난지라
연이나평순여가의는즌툴ᄅᆞ순담출몬ᄅᆞ니ᄀᆞᆼ울위
로즐실가하나이다왕이깁을드티바셔ᄇᆡ울ᄉᆡᆨ
냥욕을아모는의뫼의발솔을펼으시드어린순회ᄅᆞ만
아ᄅᆞ시ᄇᆡᆫ소셔는개리술하와반즌지도을다는되나
조흔술이나빈니죽시ᄇᆡᆫ출셔의죽ᄅᆞᆷ을쳐올기ᄅᆞᆯ
나이다연ᄒᆡ의화뎌헌미우의죽거잠기ᄂᆞᆫ을으니동탕
룡쳐화상을경동할지라부인이눅굿거오불이거
저못하시갈오ᄃᆡ즌간내의구ᄅᆞ술퇴ᄅᆞ쳐라ᄂᆞᆯ여한번
오리몰을여그티오시간절을ᄅᆞ평ᄅᆞᆯ여왕비의즌귀여
엿셔어미마음의엇더타못할일이아니미옴은쳐
을방듀일ᄂᆡ즐여강보우아와가ᄉᆞ순와와와소

뎡라일의로가로쳐비업스나즈믄병댱쥐복
이쏘한고로외즁숀허물을덥흐세니아직못거이다큰
라허물이나엽난지쑥소잇거꼿즐나나하살인나엽뎐
나가이쇄뎐왕이술이빈취즌며즁화거ㅣ우
의가득즐넝을소뎌갓즌션내숙된이나그즌뽀의숀뎜
이일의씻즈믈보니외즌므로리당연즐ㄷ복인라온졍
이길흥을숀륵악복모활심을극긴허존니퇴여댱
연지숀라본안이잠간몽농들녀비이웃드뎌왈소셩
온본뎌허믈이빈온지라남의라실을어지즈이빌
허리잇드로허믈을보로거나와우의낭당이씻당
하즐시벼아퇴로하비원방퇴이즌온이는다아모
의벌니고흔허실뎌인가즌나다빈한가리복즉혈일
이잇신나이는번소내즌의라흑혈을일이아니라곰일모

르시기그ᄂᆞᆫ나이다부인이우ᄋᆞᆫ편빅쳐이셔ᄯᆞᆯᄉᆞ랑이
션인도ᄒᆞᆫ가지쥬ᄆᆞᆯ은ᄯᅦ시다ᄒᆞ니어지시ᄉᆞᆨ인이되오
엇지ᄒᆞᆫ가지ᄉᆡᆼ이리오빈가지나되ᄂᆞ니ᄯᅡ년왕이ᄉᆞ
이뒤ᄯᆞᆯ의션이방탕ᄒᆞ여난리ᄎᆡᆼ을두어ᄯᅥ니실
인이두거설ᄒᆞ여왕ᄂᆞ이ᄒᆡ게나오니그을ᄂᆞᆫ심ᄒᆞ나이
다부인이러욕놀나흑은션난의일의스뎍을뫼심
졀는가목연부당ᄒᆞ니왕이우어ᄯᆞᆯ아뫼가념ᄒᆞᆷ을
거여ᄒᆞᆯ셔난니가부인이당ᄯᆞᆯ홍을ᄒᆞᆫᄎᆞᆨ셔보ᄂᆞᆫ고외
인을지즘가지이저보ᄂᆞᆫ나이다왕ᄯᆞᆯ쇼쳐낭평ᄒᆞ여
의와의ᄡᅡᆫ나다뫼왓나이다ᄅᆞ뫼왓ᄯᅥ니실인이되단불
낙ᄒᆞᆯ여라께ᄡᅡᆫ은어는다ᄉᆞ션의효셕ᄒᆞᆫ지ᄒᆞ쇼이ᄒᆞ부
빈이옷ᄃᆞᆯᄯᆞᆯ이ᄯᅡᆯ온ᄉᆞ상이날을ᄉᆞᆨ이니ᄒᆞ다내되ᄒᆞᆫ
으로져거지우ᄒᆞ이나니그졀니영ᄒᆞᆯ가ᄒᆞ노라

왕이ᄃᆡ왈아뫼조시ᄂᆞᆫ되리평의가ᄒᆡᆫ살려
거못ᄒᆡ시니과편일은잇지못ᄒᆞᆯᄃᆡ니거ᄒᆞᆷ당ᄒᆞ여ᄂᆞᆫ
강젹으로보ᄂᆡ안ᄒᆞᆼ졍은줄안[illegible]이ᄂᆞᆫ연초ᄂᆡ곤원
이처안년일을잉아보ᄂᆞᆫ즁옹ᄒᆞᆫ계ᄅᆞᆯ초쳐부인이
뎌욱목안ᄃᆞᆯ녀다ᄆᆞᆫ출순ᄃᆞᆯ더ᄐᆞ승상이웃ᄃᆞ이후ᄂᆞᆫ
로와뫼오ᄂᆞᆯ일을ᄎᆞᆺ드라오ᄂᆞᆫ길의황복의이로니
위부인이반겨ᄒᆡ졀을의셜궁방순ᄒᆞ물회ᄒᆞᄂᆞᆫ다시
후연왈이뢰ᄐᆞᆺ명귀ᄒᆞᆯ시어깃복이ᄒᆞ그릴나아너와
병이ᄌᆞᆯ슉의강ᄒᆡ서어진소뫼남즁가괄부즁슉라
이엇지로물에시거ᄒᆡ니아니ᄒᆡ오기강변ᄂᆞᆫ을엇지
ᄒᆡ발ᄒᆡᄒᆡ잇가ᄂᆡ아의ᄇᆡᆼ이과즘아지못ᄒᆞᄂᆞ니ᄒᆞᆫ어나변
이깅ᄒᆡ시어ᄂᆞᆫ보지심의어ᄅᆞᆫ되살리ᄋᆞ어ᄅᆡ잇가왕이

미우의 결거울이 흉즁 여기리라 계ᄒᆞᆺᄃᆞ 해왈 결흉
화복이 작기 제 잇난니 엇지ᄃᆞ 불을 ᄅᆞᆺ슬터 엿ᄃᆞ
부인이 당ᄃᆞ 련니 왕이ᄃᆞ 흑다 시오물 일캇ᄃᆞ 도라
오니라 올부인이 ᄉᆞ가의 입분손 오원의 ᄂᆞᆺ
엿ᄃᆞ가 죵싱하의 산두 죵방이 무블하 거라 ᄃᆞᆼ뇽
츅셜이 삼일 신복갓치 호에 주ᄃᆞ 줄ᄃᆞ 쥰어 므ᄃᆞ 줄ᄂᆡ 딘
쳐국복의 반호 숙끄릴 배영스니 주ᄃᆞ의 예이 보ᄃᆞ 즐
본영아 갓ᄉᆞᄃᆞ 가복의 ᄉᆞᆼ졍은 부ᄒᆞᆼ 복슉ᄂᆞᆫ 여동ᄂᆞᆯ 올화
복줄ᄃᆞ 비복을 위여 으로 복마ᄒᆞᆯ여 ᄀᆞ불이 ᄆᆞᆯ음오ᄂᆡ 그ᄃᆡ
올ᄒᆡ야 ᄂᆡ 쳥환ᄒᆞᆯ리오 일ᄃᆞ온 욕보 셜ᄒᆡ오 부인ᄭᅴ
간을 가죄와 소쳐 거울 ᄂᆡᄃᆞ 기쇠와 왈
ᄂᆡ너올 아ᄃᆞᆯ 갓쳐 길너 죽올가 ᄒᆞᆯ배 아ᄃᆞᆷ다

은빨라 청관을 본마타 져못근나 롯기을
을쾌언이나와 들날가 즐엿더니제 드르며고
최봉소쥐낭은 즐여느리운에 씨낫들 드리엉게를
내엿지한심ᄒᆡ아리 오더범부뎌으로 ᄂᆡ몸을로
허닥을직어 칠거지악어 우심을 츄ᄇᆡᆼ이르ᄀᆞ
리며눌근시 비룩춍첩을 드다우 악이뎔거서
오미닥이엉은 쥭근져비룩 춍쳡이 엉스나엇괴
은의을 보젼을되오니 ᄃᆞᆺ관디더잇ᄃᆞ 투거즐는은을
보지봇즐 엿서술 룩다내 설을나아ᄅᆞ거이자
의이로단 빨가즐엿더라
복인이 보기을 ᄡᅡ든ᄢᅵ 소부연즐 다가셜차 다되볼을
어씨울 쾌부인이 무삼빨 숨즐서려노 셜쉬이우어

생각다가 왈 다른 빨숨은 업ᄂ다 빈득거기 묵더
신지쇼리을 득거편다 근심을 서더이다 부인이
또 비쇼를 너설위운근 이쇼리라려 무러왈 득거가 뭐
슨 빨이 너가 쇼리는다 시득거 빨을 숄쇄 부인이 머런
근심을 시더이다 부인이다 빌옷은 엇지 아니 쥬너 설취다
세우려 왈 득거가 묵더서 너가 부인이라 쿨이며 겨왈는고
거슨 아라 무어슬 쇄는나 방내ᄃ 점즌는 거시 득거과
을 나너과 설위려 경왈 우리 부인이 빌넝이 시더다
노선은 울풀 슨혹 쇄상의 싱각나는 거슨 득거 박거냥
허이다 울 부인 데우음을 참리 못출더니 미쇄흔냥
이드려와 보니 부인이 웃ᄂ 모 천쇠강을 너며 보이여가
쿨더 방은 즁 밴을 너 이즁 쳐을 아는 낭남 형

이남궐의낭ᄌᆞ왈쳡이맛당이오날밤의언
군을쳥ᄒᆞ지ᄒᆞ리이다온각노라평양부인ᄭᅴ흥육ᄒᆞᆯ
내근심이졸ᄂᆡ시게ᄒᆞ리이다부인은다ᄡᅳᆯ일이ᄂᆞ
ᄒᆞᆯᄉᆞ쳐부인이잠ᄉᆞ무던이ᄒᆡ라ᄒᆞ시아외왕이별당
의가난쳥을보니난쳥이ᄎᆞᆨᄒᆞ와만좌부삼석각
는베잇거ᄂᆞᆯ왕이결회좌ᄒᆞ여내문왈무삼번뇌ᄒᆞᆯ
미잇ᄂᆞᆫ냐설상이불안ᄒᆞᆫ냐어ᄀᆡ과ᄒᆞᆫ이다ᄒᆞ조난
쳥이ᄃᆡ왈신상이불평ᄒᆞᆫ것아니라심석불평ᄒᆞᆫ나
이다왕이우문왈무삼불안지ᄉᆞ이나뇨난쳥이ᄃᆡ
왈ᄂᆞᆫ쳡이쳡의가온ᄃᆡ잇ᄉᆞᆫ즉심ᄉᆞ을바리히기어
렵ᄉᆞ심ᄉᆞ을바ᄅᆞ히리오ᄒᆞᆫ즉비록쳡일지라도
그가온ᄃᆡ쳥거ᄒᆞ거ᄂᆞᆫ니이엇지나ᄋᆞᆫᄌᆞ라니리잇가

연왕이우믈밧긔나고계나즉졀을ᄆᆞᆯ흘타황셔
부여시다ᄒᆞᄂᆞᆫ나난졍이고아ᄅᆞᆫ대되시믈을보ᄅᆞᆷ
옹낭ᄌᆞ의ᄯᅢ가ᄉᆞ연을귀강ᄇᆞᆯᄂᆞᆫ셰과왈졀라ᄒᆞ여거
홍이쳡을되시믈내일ᄌᆞ시홍진의조ᄀᆞᆷᄒᆞ더비
엄ᄒᆞ여이밀은올각노부홍쇄가이와ᄉᆞ연이ᄯᅥᄒᆞᆫ
나이울당ᄒᆞᆫ뫼발병무지라ᄒᆞᆫ연한졍을쳡의ᄒᆞᆫ나
비졍ᄉᆞ인간홍쳡이되여잇시니어ᄯᅦ온줄알니ᄭᅵ심
셔불안도ᄉᆞ이다왕이ᄉᆞ왈이연쳡의ᄂᆞᆫ겁ᄒᆞᆫ이라부
인의발그므로쳘ᄯᅵ낭을의심ᄒᆞᆫ엿실진대부홍쇄
간을졍을ᄲᅢ여시리오면졍이ᄯᅥ소ᄅᆡ왈ᄯᅢ즁당ᄒᆞᆫ
여경홍ᄒᆞᆫ눈뫼시리녀을즉여지ᄉᆞ지ᄒᆞᆫ나여더케
뉘계빌우리잇ᄀᆞ쳡반ᄉᆞ긔의심가ᄒᆞᆫ여업스

니쇼져의입소지뎌이쇄복쌍을대쇄상에
아는뵈라내발이너레셔나타의드던쳐의가삭아람
담불나이타왕이일장대소를ᄃᆞ왈이는나의일
서는담으로훌룬부인의조심을는발울을대라ᄒᆞ룰
여인연줄비내말진된지라기방당이일부인을
보아라흑줄리라궤드즉시일어부인침소의가난
셩이옷드가나쌀아가황밧거셔룰오니왕이부인
보드왈악가셜워부은쎠간을가져왓다줄내이이
나쎵이오리아므메가뵈잉괴모줄불쾌줄시ᄂᆞ니가
복인이뒤왈이나뢰이더왕이소쌀그뎐지며대이나
내가잠간어더보드러줄나ᄒᆞ다줄병쾌손이을둑져
흔쳐개여룰드부인다뎌왈이손연이흑시운관뎐시

연이영나나가ᄉᆞ쳬아어을홋이ᄂᆞᆫ답지아니ᄃᆞ니왕이
후ᄒᆞ의편지을들ᄂᆞᆫ형낭독흥고쳐간을노코왈셩
티부인은두거올안난가을엇더니ᄌᆡ즘아보의쳐
홍ᄉᆞᆫ의여촌즁니이엇지흰즘초고을뵈니이쳑터
실니잇시되오이졔ᄂᆞᆫ편일을니기욧ᄎᆡ다시ᄂᆞᆫ두거
치마티아부보의ᄋᆞ홀을술홍들라ᄉᆞ쳬ᄒᆡ무연녀당
둘니다시편지을일ᄌᆞ너뵐부인은이ᄆᆞᆫᄯᆞᆯ의셩녀과
ᄯᆞᆯᄃᆞ홍즁이ᄒᆞ후ᄂᆞᆫ두심을바리소쳐속람의허여시ᄃᆡ
불아녀쳑이별연거나ᄒᆞ죠엿시아보의명뢰ᄒᆞ시
므로ᄃᆡ속이ᄃᆞ로시되오연이다녀모의ᄋᆞ은을세ᄭᅵ가
ᄃᆞᄂᆞᆫ셩벼의불고쳠지아니거ᄃᆞ시인이볼바를바ᄂᆞᆫ도
다부인이평즘당와노ᄅᆞᆫ이외오졔서나ᄉᆞ몸이어리갈
이오왕의우소왈연즉이러편ᄯᆞᆯ을지아니여ᄂᆞᆫ

노부인이평셕허왈군ᄌᆞ의소리본물갓회다님을
르스인의소리본달기술갓다ᄒᆞ니그소리ᄂᆞᆫ단주변ᄒᆞ다
시변을낭ᄒᆞ쳡이부졀ᄒᆞᆫ영시달게소리여허섭ᄒᆞᆫ져
잇더니ᄆᆞ음에쳡드당돌허ᄆᆡᆫ가ᄅᆞᆯ나이다왕이난쳥의
발이울트물을알ᄅᆞᆫ즉허ᄅᆞᆯ여셩각ᄅᆞᆯ귀울시의[illegible]
통달ᄒᆞᆫ므로도내ᄂᆞᆫ현셩이라ᄇᆡ부졀영시ᄂᆞᆫ이을이
간ᄒᆞ도다ᄒᆞᆫ다시웃ᄅᆞ왈이ᄂᆞᆫ셩의일시농담이라약
보의ᄅᆞ심ᄅᆞᆯ서불보ᄂᆞᆫ비ᄅᆞᆯ소ᄂᆞᆫ모[redacted]되ᄆᆡ어ᄶᅥ우물알
아일시회연으로고쳐의ᄉᆡᆼ을못보아한ᄅᆞᆯ시며북
인가라최지모허물겸ᄉᆞᄅᆞᆯ시기여ᄂᆞᆫ고ᄅᆞᆯ엿더이ᄒᆞ뫼
쇽으시ᄆᆡᄅᆞᆯ다울북인이비ᄅᆞᆯ소왕의소작을알ᄂᆞᆫ잠쇼
북담에터어문득괴광의의기로소허나ᄲᆡ난쳥이웃ᄂᆞᆫ

돌어와좌의안ᄌᆞ매살생군 이일졔이반군즁의
간퀵을대ᄌᆞᆯ식어겁ᄌᆞᆯ지이시령이졔ᄒᆞ니복인을
당치못ᄒᆞᆯ소항번을ᄶᅩᆺ고식어가왕이난쳔의ᄆᆞᆯ을
놋ᄂᆞᆫ뒤소쌀니복안과항복ᄒᆞᆯ니이어ᄯᅡ장홍포ᄒᆞᆯ
뵈게술의ᄲᅡ지미로다ᄒᆞᄂᆞᆫ낭인을대ᄒᆞᆯ여한쌀ᄒᆞᆯ쑥
소는일장홍당으로한번웃ᄂᆞᆫ그ᄲᅡᆫ을쳐나와어지부
인라난셩의지령간에어난줄어지술이티줄되오
존ᄂᆞᆫ로부녀의두계ᄂᆞᆫ철거지아의우심ᄒᆞᆯ난쾌ᄒᆞᆫ이
타불탕이비장의이을범ᄒᆞᆫ졔잇싱어지한심ᄒᆞ리
이어며조령의노로되업스나이번손실난의죽언으로
복인은외심쾌ᄒᆞ야령에와한번령되소회ᄒᆞᆯ리줄나
쳬일은딕을ᄒᆞᆫ로ᄒᆞᆯ여야손거ᄐᆞᆯ을누젤지라

은일도쳔의일이만아ᄉᆞ올절을지못ᄒᆞ나
리락ᄒᆞᆫ산ᄒᆞᆼ의ᄌᆞ로을쟉ᄂᆞᆫ계어지ᄌᆞ주온지아니ᄒᆞ오
되더라이쇠ᄒᆞᆫ난어터야부ᄅᆞ게ᄒᆞᆫ일ᄒᆞ뢰ᄒᆞᆨ일을
여ᄲᅮᆯ이랑ᄒᆞᆯ나가즁의ᄉᆞ연을ᄲᅢᄒᆞᆯᄃᆞ난셩이뷰
셕을아담이ᄒᆞᆫ여계ᄒᆞ외셔ᄉᆞᆫ비ᄒᆞᆯᄃᆞ원비올부인
다. 최히황시계ᄌᆞᆼ츌이계비ᄒᆞᆯ나초연ᄒᆞᆫ주질이며
셜연지퇴인간화셕퇴는ᄉᆞᆫ탕갓지아ᄒᆞ니ᄉᆞ믄난
난셩이라황셩은후난니편확이ᄒᆞᆫ슉을ᄒᆞᆫ쳐보
여가강변ᄌᆞ쥬ᄒᆞ더라보다ᄒᆡ부인의ᄌᆞᆼ연ᄒᆞᆼ다온
황의절ᄌᆞᆼ거ᄒᆡ와난셩의ᄌᆞ룰ᄒᆞᆯ골ᄀᆡ이어ᄒᆞᆷᄒᆞᆫ
ᄌᆞᆯ티오ᄌᆞᆫ연을각ᄂᆞ븨인이ᄌᆞ녀의ᄌᆞ동ᄒᆞᆫ셔기ᄉᆞ믄
이가즁의ᄒᆡ쟉인ᄌᆞ쳔쟈ᄒᆞᆫ니황시보ᄂᆡ최음쳔낭

울식이ᄒᆞᆫ 몬 황희 ᄒᆞᆼ이 ᄭᆡ난의 계오 ᄌᆞᆯ을 ᄎᆞᆫ거ᄂᆞᆫ 평
신비두음을 읍ᄒᆞᆯ가 그ᄒᆞᆫ 안과 셩을 ᄉᆞ거ᄒᆞ여 ᄒᆞᆨ
운ᄌᆞᆯ노야ᄂᆞᆫ 안ᄉᆞ시다의 회한셩 갓ᄒᆞᆫ 정셩 뎡 극저셕
으로 주난의게 장이 되여 홀ᄉᆞᆫ이 능히 천제 로 광
봉작ᄒᆞᄉᆞ 일홈이 덕왕의 소실이아 ᄀᆞ거ᄀᆞᆺ호 넌
빅이 소리ᄒᆞ나 여러 ᄎᆞᆫ 두귀괴이 되여 아인의 호광화상
이ᄀᆞᆯ어 ᄃᆡᄒᆞᆫ키 ᄭᅳᆺ 그네 져 물 듯ᄀᆞ 왕의 아시 졀 빌고 ᄂᆞᆫ
감이러 항이라 두상의 벽부인아 되ᄃᆞ로 뵈시ᄉᆞᆼ을 여로ᄉᆞᆫ
화섬을 감ᄉᆞᆷ기어 형ᄃᆡ니 이ᄋᆞᆯ뢰의 ᄌᆡᆯ을 바ᄃᆞ니 ᄒᆞ면
지셕은 본ᄃᆞᆸ이라 노퇴 비난셩을 갓가이 잘을 ᄒᆞ여
왕의 변의 ᄌᆞ기 련 밀을 부터 ᄒᆞᆨ탄 ᄒᆞᆨ소ᄒᆞ며 회셩
현ᄋᆞᆼ 귀을 일ᄀᆞ라 ᄆᆡ을 복인이 ᄌᆞᄒᆞ여 ᄉᆞᆯ며

널소문너머모로되온갑해분효지석을발뫼
여취줄을드러내되온살연천화거울괴여왕의
변회홀해게즐불치난즐여타난셩이즐일정당의
셔젹진지나는설화주야가횡시설의고다오나왕이
터즈듣여난당의뵈앙드바로별당의이끄니난쳔이
난간을의지줄여원천을쳥만줄여안젼거늘왕
이소왈흔탈은금야연왕부중별당월셕이셕
일넌화봉월셕라어더늘그난셩이우울여일어나
져왈왕손을셩각해나무비훈몽이라한가천평병
월이엇지흉흔탈의분흑해물읏지아니리오왕이
키소왈모다몽흉이여요날울괴안고무어슬괴오년
라의난셩의옷슬잇그러당의나혀월하의비회홀
녀쳔상을우러러보매횡텬의일점구름이업던근쳔

광이라더니반의 술을흐르든도든흉즁복졍을비
타보내근ㅣ졔원의후거과욕즐는샹궤할재와망
괴열의여시니이나라의불신기쳐라왕이욱이보
다가되경를여난셩다되밀낭은뎨거울을보라는돠
날송난난쳔에룩라을흘니이우이보다가리밀평
이어지날니엇드아는일쥭이빅옥도쇠이즈리삼귀
찰좌의검거되이그근ㅣ졔왕의후거당힌쥭간
션이논쳔됴난을드렬근의흉병을가되온다흘니이
국가의큰근심이너이되가왕이편쎨에효힌이울영
녜즌근비라근그로인즁이비안 민간질드이신주비고
소쳔하울다스리다니이졔황샹이홍희평쳔는슨
홍병에자하시니여흥이슨방의큰일이업드라우근시
인이삭전이업셔흉년가모로고평안흠물쳔

계ᄒᆞᆫ녀우으로오ᄂᆞᆫ 춘지력을 ᄌᆞᆯ뱅치못ᄒᆞᆯᄅᆞ다만
그시졀의ᄐᆡ평해블버허ᄇᆞᆯ솜ᄌᆞ녹아경편소퇴와
슝슐혀ᄂᆞᆫ과셕이일ᄒᆞᄃᆞ기의거슨되ᄅᆞᆫ쏫의어그니
녑셔복편은ᄒᆞᆷ을오구ᄒᆞ녀부키을탐ᄒᆞᄂᆞᆫ광ᄒᆞᄂᆞᆫ편
령녀와김ᄒᆞᆫ쳥각을ᄃᆞᄂᆞᆫ져적ᄋᆞ뎌이ᄂᆞᆫ나의외구편
ᄅᆞᆫ심이타이회 ᄉᆞ퀸변이젼뢰ᄌᆞᆯ니거즘뒤선리졀의
잇쇠연지변ᄒᆞ흐리오난셜이로ᄋᆞᆼᄃᆞᆯ국가위ᄉᆞᄋᆞᆯ
쳥의어ᄀᆡ당ᄃᆞᆯ이외ᄂᆞᆫᄌᆞᆯ뢰잇가ᄇᆞᆫ은상ᄌᆞᆼᄒᆞᆯ즉삼섭
이못뢰시ᄃᆞᄒᆞᆯ징엽상의인으로ᄇᆡ실ᄋᆡᄂᆞᆷᄒᆞ시ᄆᆞᆫ
고로변권을쳔ᄃᆞᆫᄌᆞᆯ실ᄋᆡᄒᆞᆫᄃᆞᆫᄒᆞᆫ고ᄌᆞᆷᄒᆞ물의섭ᄒᆞᆯᄂᆞ소인
은그젼쇄셔가연과라바라ᄀᆡ뒤상궁은로섭ᄒᆞᆫᄉᆞ로평
ᄉᆞ을대ᄉᆞ와쳔단회ᄇᆞᆯ으소회언노ᄒᆞᆫ회ᄋᆞᆯ심본도회
ᄌᆞᆯ녀와젼다ᄇᆡᆼ을ᄉᆞ인ᄌᆞᆯ서ᄋᆡ로ᄒᆞᆯ가ᄌᆞᆯ나니장ᄉᆞ방

의궁셩신퇴을셩각지못ᄒᆞᆯ시ᄋᆞ나가왕이쳥카와
졍은술을ᄉᆡᆨ리쥐왈네낭을오지젼이다인즁에
누ᄂᆞᆫ현졍부을당키못ᄒᆞᆯ가ᄒᆞ엿더니금야ᄌᆡ연은
아니ᄂᆞᆫ의구괴로다내본ᄃᆡ남방즁우로셩은에ᄇᆞᆼ쥭
ᄒᆞ여외ᄂᆞᆫ신의죄ᄂᆞᆫ서나온즁이왕후취상의빗치만
일이붐을염시ᄒᆞ여나라의일을붓ᄋᆞ쳐ᄒᆡ이실진
ᄃᆡ만번죽어도ᄉᆞ양치아닐거시니병혀ᄇᆞ구왈주혀
존신거쳑을도라보되오날셩이스레왈상공발삼
이러ᄒᆞᆫ변을조ᄒᆞᆷ을나ᄇᆞᆺ그려지아니실이니쳥이어지
강히우러ᄂᆞᆫ당ᄒᆞᆫ되엿가ᄒᆞᄂᆞᆫ쳥온ᄃᆞᆯᄒᆞ여조몰이
원비ᄂᆞᆫ몰쇠게ᄒᆞ여ᄃᆞ군술에박퇴을이골어일
가득히변넘기쉽다ᄒᆞᆫ온ᄃᆡ상군은당후의학발쌍
친을셩각ᄒᆞᆫ온졈퇴ᄒᆞᆫ기을텁ᄒᆞᆫ츠쇼쳐왕이

목연부당이라 좌셜 쳔하 치란과 국가 흥망
이비양 고심치 아니리오 일신을 비우게 ᄒᆞ며 소리
츄회 변 젼신이 흥모를 ᄃᆞ거운이 죽게 ᄒᆡ 빅병이 스침
은 분은 ᄌᆞ연 ᄒᆞᆫ편니 되라 ᄃᆞ로온 솟각ᄒᆞᆫ 셩은 ᄃᆞ편하 울고
화를 산ᄒᆞᆷ 숙다 거상이 ᄒᆞᆫᄂᆞᆫ 시아 ᄃᆞ 기각 셜의 ᄲᅳᆯ
ᄉᆞᆷ이어 ᄀᆞᆯ 연ᄃᆞ 옥뫼ᄒᆡ 기 조쳐의 이셜 돗ᄃᆞᆯ 이이어지
ᄒᆡ 취ᄒᆡ 고ᄅᆞᆯ 룬 제ᄂᆞᆫ ᄃᆞ고 인일ᄅᆞᆯ 풍 고심ᄅᆞᆯ 베여되
오어ᄯᅢ 남비ᄋᆞᆯ 편평ᄃᆞᆫ 죽 빅ᄉᆞ거ᄂᆞᆫ 심이 업ᄃᆞ 조젼
이ᄂᆞᆫ 봇ᄒᆡ 이ᄅᆞᆯ 여ᄉᆞ 방의 일ᄯᅵ 업ᄂᆞᆫ 돗모량 간ᄒᆞᆫ ᄯᅢ
각외 쳘ᄂᆞ다 간화ᄅᆞᆯ ᄂᆞᆫ 롱숙이 잇쇠ᄀᆞ 홍죽 원외상
화로어ᄅᆞᆯ ᄂᆞᆫ ᄃᆞᆯ기ᄇᆡ게 시니 ᄃᆡ문 ᄌᆞ두의 ᄀᆞ욕ᄒᆞᆫ 덤며
반ᄒᆞ야 죽 블감ᄌᆡ외 젼쇄ᄒᆞᆫ 셩각이 업ᄃᆡ라 이ᄯᅢ 연
왕이 ᄂᆡ양이 올ᄂᆞᆫ 심ᄅᆞᆯ 여 조회ᄋᆞᆯ 임ᄒᆞᆫ 죽 ᄃᆞᆼ쳥ᄒᆞᆫ

빨숨다정직ᄒᆞᆫ녕은이기믈일신을도라보지아녀
죠낭의직간ᄒᆞ는쟉되녕ᄒᆡ부ᄒᆞᆫ을ᄉᆞ양져아
날지하ᄂᆞᆫ도는그대ᄇᆡᆼ을우러ᄂᆞᆫ되ᄉᆞᆫ복두갓치
씃ᄂᆞ쇼인은그념의줄볼겅ᄒᆞ여더옥보리하여지리
화을엿보니홍온어쇽의군신이상득ᄒᆞ미칙비취
즘의참설이어지러ᄒᆞᆫ들리쓰랑옴이홀ᄂᆞ줄여봉이ᄅᆞᆫ
줄ᄂᆞ여롱이되ᄂᆞᆫ저라ᄐᆡᆫ거국별의상이호원의을오ᄉᆞ
지셔ᄒᆞ시여ᄃᆡᆯ쇽이ᄇᆡᆼ낭ᄒᆞᆫ게상이즌시을다되시
ᄂᆞ원훙의놈되남ᄒᆞᆫ손완상ᄒᆞ시더홀번ᄒᆞᆼ편의
셩황쇼리단쇽쳐절ᄒᆞ여온쇼의ᄃᆞᆯ니거ᄒᆞᆫ상이븐
뒤옴놀의홍변이제사올ᄒᆞᆯ지음을갈ᄒᆞ시ᄃᆞ이육
이ᄂᆞᆯ으시다자ᄂᆞ서ᄃᆞ이초취어뒤허ᄂᆞᄂᆞᆫ오ᄃᆞᄒᆞᆫ서ᄂᆞ고
뉘소된ᄃᆞᄒᆞ간ᄒᆞ불줄라